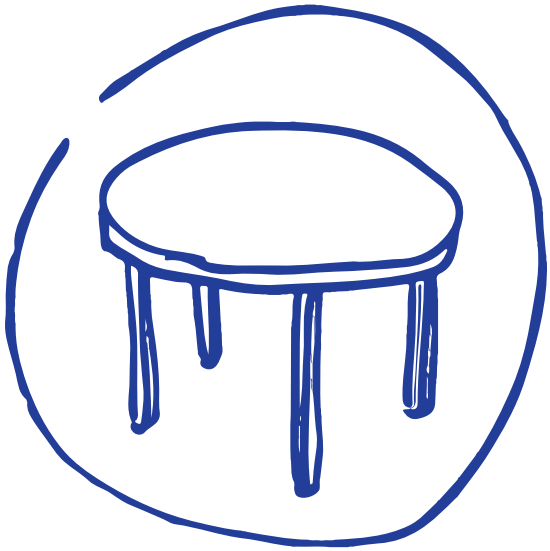
2021-2022 ANNUAL REPORT

성북문화재단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2021-2022 ANNUAL REPORT

성북문화재단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성북문화재단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목차

재단 개요

성북문화재단 미션과 비전 7
성북문화재단 시설 약도 8
성북문화재단 연혁 (21년 ~ 22년) 10
성북문화재단 조직도 12
성북문화재단 예산현황 14
연차보고서 여는 글 15

문화도시, 성북 : 공존을 위하여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20
문화도시 협의체 운영 22
문화도시, 성북 공론장 24
지역문화예술 안전망 실험 28
공공예술사업 <지금, 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3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 예술순환로 34
한책추진단 38
성북책모꼬지(Book Festival) 42

문화도시, 성북 : 공유를 통해서

성북예술마을만들기, 또 다른 7년을 위한 소고 46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석관예술마을만들기 52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미아리고개예술마을만들기 56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월곡예술마을만들기 60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월장석예술마을만들기 64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장위예술마을만들기 68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종암예술마을만들기 72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74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정릉예술마을만들기 78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82
도시자원의 연결과 공유를 위한 문화커먼즈 86
도서관은 실험실 90
마을in수다 94
인문학습공동체 100
문화도시, 홍보 104
문화도시, 아카이브 118

문화도시, 성북 : 다시금 순환으로

지역대학협력사업 124
생활문화거버넌스 '성북생활문화살롱20' 128
문화,공간,사람이 연결되는 문화도시 기반구축 130
성북진경X오픈스페이스 페스타 138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42
지역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146
동네 친구들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148
친구 따라 공탁에 갔다가... 152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성북구립도서관

성북구 한 책 읽기 158
작가와의 만남 160
네트워크 : 온 162
이야기청 성북 164
북스타트 166
성북 U-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170
성북정보도서관 172
아리랑도서관 174
해오름도서관 178
종암동새날도서관 184
서경로꿈마루도서관 186
석관동미리내도서관 188
달빛마루도서관 192
정릉도서관 196
청수도서관 198
월곡꿈그림도서관 202
- 도서관총회 활성화 204
- 월곡 인문학동맹 206
아리랑어린이도서관 208
성북이음도서관 212
장위행복누림도서관 214
성북길빛도서관 218
글빛도서관 224

내 삶을 풍요롭게 성북문화재단 문화시설

성북구립미술관 230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234
성북예술창작터 238
성북 N 작가공모' 마무리 즈음에 쓰는..... 24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작업실 밖으로 나가 창작물과 마주 서기 244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246
안녕, 나의 미술관 250
거리갤러리 254
-미술관 소장품 관리 256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258
-미술관 콘텐츠 활성화 26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264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문화센터 268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10주년 272
꿈빛극장 276
꿈빛극장과 함께한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을 마무리하며 280
아리랑시네센터 282
-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인디웨이브' 284
- 성북청춘불패영화제 288
미아리고개예술극장 292
미아리고개하부공간(미인도) 296
천장산우화극장 298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302
청년살이발전소 306
내가 만난 청년살이발전소 310
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314
길음청년희망스토어 318

성북문화재단 사업운영

성북문화바캉스 324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동네예술치유소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328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332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 문화예술교육 허브하기 334
공유가꿈 340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341
나눔풍성 344

수상실적

21-22 수상실적 346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성북문화재단 미션과 비전

미션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 성북

비전

참여와 공감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플랫폼

핵심가치

공존	공유	순환	혁신

전략목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문화 확산	지역문화 네트워크 협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동체 조성	창의경영과 문화행정 혁신

전략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 활성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영상 공연 생활 문화 활성화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체계 구축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미술문화의 보존과 확산	창의 양성과 조직만족도 제고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성북문화재단 문화시설 약도

정릉 예술마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솔향기문화사랑방
청수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청년살이발전소
정릉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SBCF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미인찐도 (미아리고개 개 하부공간)
성북구립미술관
거리갤러리
성북구민여성회관
해오름도서관
성북예술창작터
동네소통공작소
성북이음도서관
성북 예술마을
성북길빛도서관
꿈빛극장/ 글빛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종암 예술마을
장위 예술마을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월장석 예술마을
성북정보도서관/ 천장산우화극장/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월곡 예술마을
석관 예술마을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오리랩하우스

- SBCF 성북문화재단
- 예술마을만들기
- 성북구립도서관
- 문화시설
- 복합공간

성북문화재단 연혁

2021

(2020.10.06.~2021.)03.20.	DMZ 생태전 : 뚜루루 쮸쀼쮸쀼 展
01.~12.	2021 성북구 한 책 읽기
03.23.~06.26.	2021 기획전시《해와 달: 일월》
03.25.~06.27.	《땅의 소리: 김승영》展
05.14.~07.17.	《이리듐 에이지: 새 친족 만들기》
05.25.~07.24.	성북예술동 2021《목소리의 극장》
05.26.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정례회
06.10.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2차 정례회
09.02.~09.04.	기주봉 배우전
09.07.~10.23.	2021 성북 N 작가공모《구름 그림자》
09.09.~12.11.	최만린1주기 추모전《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10.07.~12.05.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
10.26.~10.30.	2021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우리, 함께>
10.26.~12.30.	《그림X책: 블루 허밍 Blue Humming》
11.01.~11.15.	제3회 성북생활문화주간 일상, 그 이상
11.02.~11.20.	관-학 연계 프로그램《쇼케이스 2021: 페르소나 사회》
11.10.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3차 정례회
11.11.~11.16.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11.16.~11.27.	2Weeks Challenge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
11.20.~11.28.	제12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2.02.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성북구 최종 선정
12.04.	성북공명 합창영상 발표회
12.18.	제9회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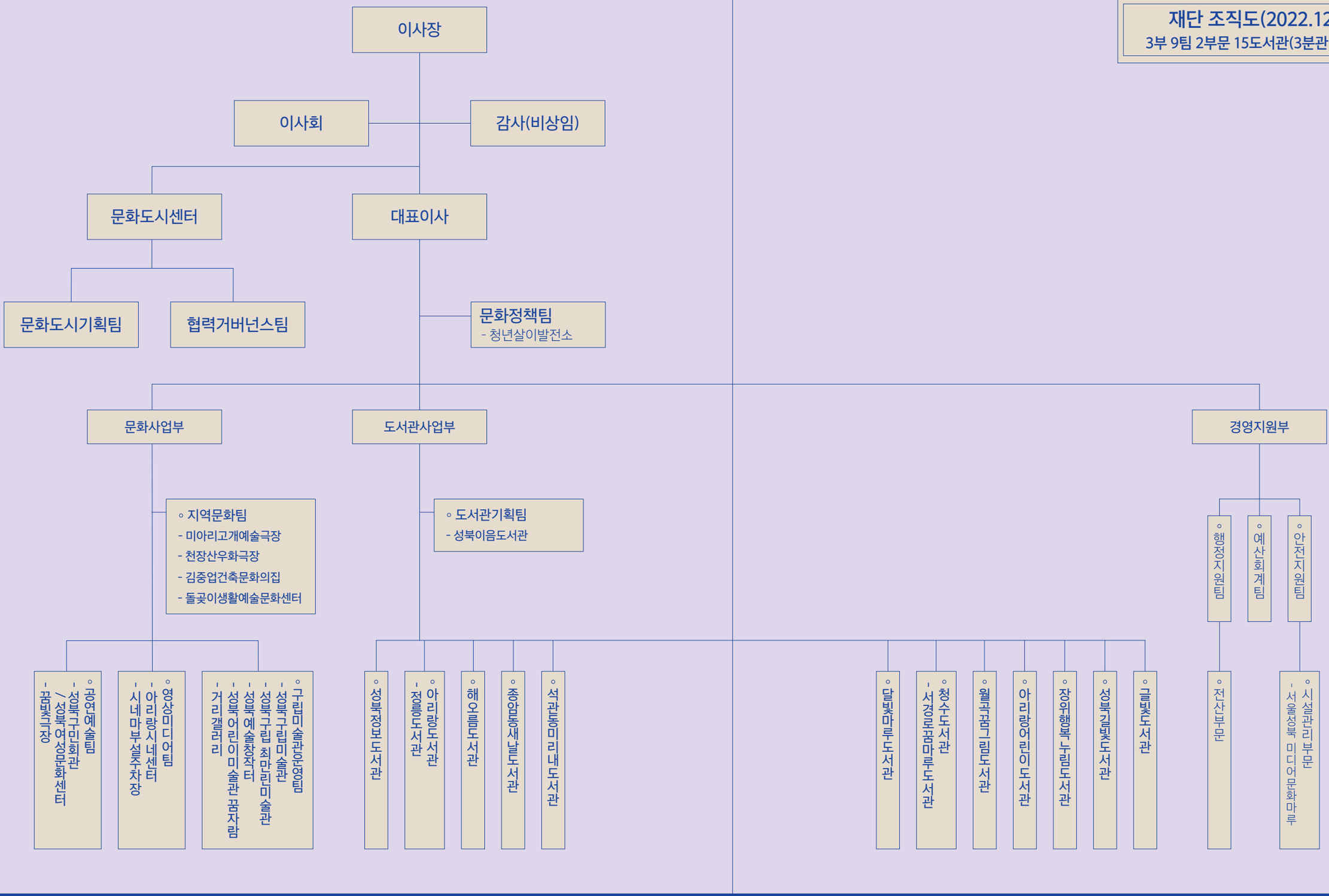
2022

01.~12.	2022 성북구 한 책 읽기
03.02.	문화도시센터 조직 구성
03.22.~06.25.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
03.22.~2023.02.04.	SMA 아뜰리에《아하, 우리!》
03.30.~07.03.	윤중식 10주기 추모전《회향懷鄕》
04.12.~07.09.	2022 건축X조각 기획전시《감각의 시어》
06.30.	성북 문화도시 대놓고 거버넌스 시민원정대 - 춘천
07.26.~2023.02.04.	2022 SUMMER PROJECT《백기은: 퐁퐁퐁 비행》
07.29.~08.07.	제6회 성북문화바캉스
08.01.	청년창업 실험공간 '공업사'오픈
8.23.~9.18.	이야기청 성북 프로젝트 '노인의 이야기가 도서관이다'
08.26.~08.28.	양익준 전: 바라만 본다
09.16~11.12.	2022 성북 N 작가공모《채집-채굴》
09.22.~12.03.	최만린 공공조각 프로젝트《모두의 조각》
09.25.	제13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0.04.~10.31.	2022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다시-우리>
10.05.~12.04.	《시간의 초상:정현》展
10.15.~10.16.	2022 두근두근 별길마켓
10.18.~10.30.	성북진경;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10.26.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11.10.~11.15.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성북문화재단 조직도

Organization

재단 조직도(2022.12.01. 기준)
3부 9팀 2부문 15도서관(3분관 포함) 1센터(2팀)



성북문화재단 예산현황

재무상태표

제 1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단위: 원

과목	제 10(당)기		제 9(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993,576,221		1,519,075,976
(1)당좌자산		1,993,576,221		1,519,075,976
현금및현금등가물	1,942,651,154		1,489,746,600	
단기금융상품	10,000,000		10,000,000	
미수금	31,251,998		11,027,638	
선급금	2,258,828		2,946,328	
선급비용	5,240,150		2,524,930	
미수법인세	2,174,091		1,781,000	
기타유동자산	-		1,049,480	
Ⅱ. 비유동자산		1,836,553,445		1,510,924,720
(1)투자자산		-		60,559,015
퇴직연금운용자산	-		60,559,015	
(2)유형자산		1,704,453,445		1,386,565,705
집기비품	1,490,333,171		1,084,091,581	
감가상각누계액	(914,939,334)		(640,644,574)	
시설비	2,204,536,831		1,612,722,951	
감가상각누계액	(1,314,095,702)		(906,116,124)	
차량운반구	96,818,311		96,818,311	
감가상각누계액	(77,377,902)		(61,408,552)	
도서	814,772,019		652,622,209	
감가상각누계액	(595,593,949)		(451,520,097)	
(3)수탁자산		-		-
수탁비품자산	852,055,205		845,807,485	
감가상각누계액	(765,635,414)		(697,202,033)	
수탁자산취득보조금	(86,419,791)		(148,605,452)	
수탁시설자산	1,194,616,880		1,167,616,880	
감가상각누계액	(951,199,400)		(758,652,66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43,417,480)		(408,964,220)	
수탁도서자산	2,815,599,050		2,502,448,050	
감가상각누계액	(2,210,121,986)		(1,852,234,62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05,477,064)		(650,213,424)	
(4)기타비유동자산		132,100,000		63,800,000
보증금	191,280,000		122,980,000	
자산취득보조금	(59,180,000)		(59,180,000)	
자산총계		3,830,129,666		3,030,000,696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단위: 원

과목	제 10(당)기		제 9(전)기	
부채				
Ⅰ. 유동부채		1,104,433,740		1,002,205,951
대행사업예수금	7,084,670		4,955,647	
지원사업예수금	276,898,538		263,987,677	
기타미지급금	78,659,139		133,324,819	
예수금	179,684,005		172,571,711	
부가세예수금	36,160,838		13,275,967	
영화초대권	1,300,000		488,8000	
기타보증금	1,843,000		2,204,000	
선수금	4,600		4,600	
미지급비용	522,797,020		411,393,530	
미지급법인세	1,930		-	
Ⅱ. 비유동부채		61,758,682		-
퇴직급여충당부채	5,465,207,973		4,542,235,120	
퇴직연금운용자산	(5,403,449,291)		(4,542,235,120)	
부채총계		1,166,192,422		1,002,205,951
자본				
Ⅰ. 기본금		10,000,000		10,000,000
기본재산	10,000,000		10,000,000	
이익잉여금		2,653,937,244		2,017,794,745
이익잉여금	2,653,937,244		2,017,794,745	
순자산총계		2,663,937,244		2,027,794,745
부채와순자산총계		3,830,129,666		3,030,000,696

여는 글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2022년에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성북문화재단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토대 위에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닌,

지금껏 우리가 함께해 온 시간들을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다.

공유성북원탁회의와 한책추진단이라는
성북의 거버넌스 두 축을 중심으로
공존・공유・순환 이라는 핵심가치로
기존의 사업과 이야기들을 재분류하여
언젠가 다시 올 10년을 준비한 과정

이는 2021년
제4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현재는 그 첫 페이지가 마무리 되었다.

성북문화재단이 꿈꾸는
새로운 문화도시 성북
그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 본다.

문화도시, 성북 : 공존을 위하여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문화도시 협의체 운영
문화도시 '성북' 공론장
지역문화예술 안전망 실험
공공예술사업 <지금,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공공예술사업 <지금,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예술활동거점지역활성화 : 예술순환로
한책추진단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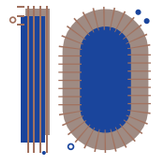
문화도시, 성북

공존

공존(共存)

1.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2.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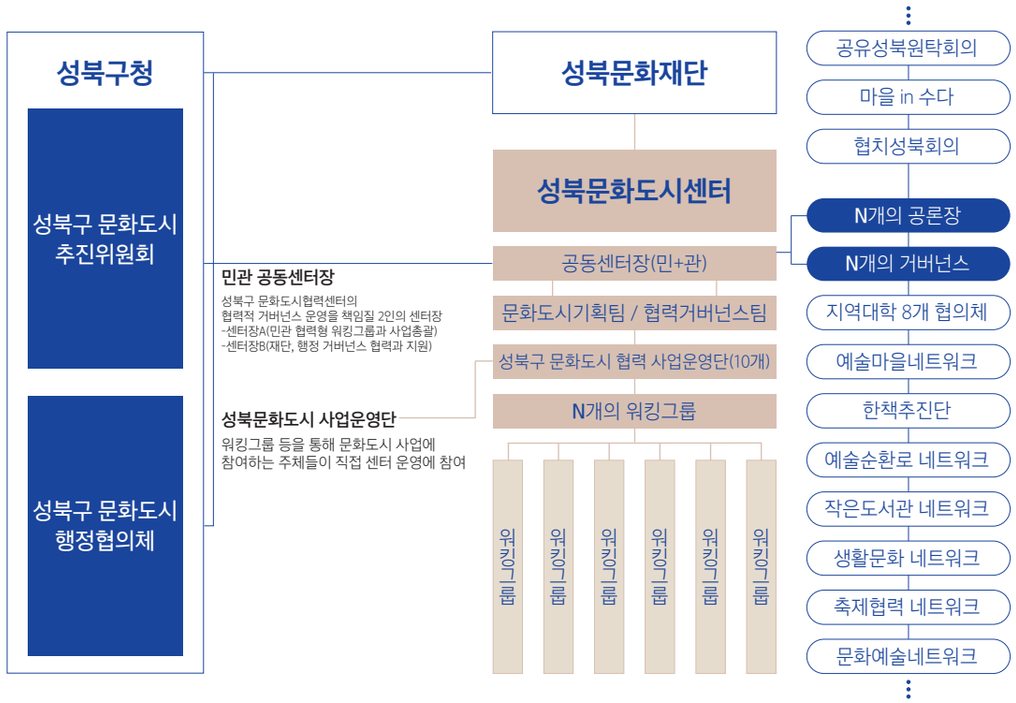
성북의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그 키워드에 '공존'을 넣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창립 이후 지난 10여년간 성북문화재단은 단독으로 사업을 펼친 적이 거의 없다. 언제나 지역의 성원들과 함께 했으며, 이러한 재단의 운영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재단은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첫 단추로 생각하였으며, 예술가와 시민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문화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를 차용하였다. 그렇게 성북구청, 성북문화도시센터, 성북구 공동운영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넓혀갔다. 그 결과 문화도시 성북은 시민 - 전문가 - 공공(公共)이 함께 문화도시를 경영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구분	조직구성	운영횟수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상시
성북문화도시센터 ('21 문화도시추진TF팀)	민관공동센터장(2명) 문화도시기획팀(4명) 협력거버넌스팀(8명) [협력]도서관기획팀	상시
('21 문화도시추진TF팀)	문화도시기획팀(4명)	월1회(탄력적운영)
성북문화도시 공동운영워킹그룹	협력거버넌스팀(8명)	상시(탄력적운영)



그 결과 민・관 공동센터장 도입을 비롯하여 문화도시기획팀, 협력거버넌스팀, 도서관기획팀(협력팀)을 조직하여 전문조직과 행정의 인력구성을 갖추었고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 또한 공동운영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로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성원들과 그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도시센터 워크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민·관 공동센터장

문화도시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도시 공동운영 워킹그룹

문화도시 협의체 운영

재단은 공존하는 문화도시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행정협의체, 지역대학협의체 등을 구성하며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2021년 5월에 발족한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차 정례회를 진행하며 참여 성원이 함께 사업방향을 진단하며 구체적인 의제 발굴을 진행하였다.
행정협의체를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사업 연계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힘을 모았다.
성북구의회는 법정문화도시지정 결의안을 채택하며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드러냈으며, 폭넓은 협력기반을 만들기 위해 관내 8개 대학, 도시재생 및 문화 에술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진행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분	내용/운영횟수
문화도시추진위원회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 - 총 22명(공동(민·관)위원장 2명, 공동(민·관)부위원장 2명, 위원 18명) - 위원 구성 : 당연직 4명, 위촉위원 18명(13개 분야)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3회, 104명 참여 (4.22 17명, 6.26 16명, 10.18 17명)
문화도시행정협의체	◦ 행정협의체 회의(8.23 16명), 자치행정과 회의(9.5 11명) ◦ 성북구 주민자치회(20개동) 업무협약(9.5 11명, 9.20 24명)
구의회거버넌스	◦ 성북구 구의회 의장단 회의(9.26 9명) ◦ 구의회 성북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 채택(10.20 22명)
지역대학 협의체	◦ 문화도시 사업추진 민 · 관 · 학 협력체계 마련과 추진기반 확보 ◦ 총 5회 (2.28 9명, 3.15 4명, 5.17 6명, 6.23 8명, 9.5 10명) / 37명

성북구 문화도시 추진 위원회

성북구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성북구청·주민자치협의회·성북문화도시센터 업무협약식

성북구 법정문화도시 지정결의

문화도시, 성북 공론장

문화도시 '성북'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를 위해 공론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지역문화 사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관계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으로서의 예술가, 예술가로서의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공론장과 전문가 참여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했으며, 보편적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밀착형 일상 공론장으로 <찾아가는 시민 인터뷰>, <찾아가는 문화도시 설명회>, <통합 공론장>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갔다.

구분	내용/운영횟수
공론장 워킹그룹 논의 테이블	ㅇ 주제별 공론장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 논의 테이블 운영(16회 / 72명)
문화예술 커뮤니티 참여 공론장	ㅇ 지역문화예술 커뮤니티 주제별 공론장 운영(6회 / 82명)
전문가 참여 심층 인터뷰 (FGI)	ㅇ 주제별 공론장(FGI) 2개 주제 4회 진행(4회 / 11명) - 1. 역사문화의 관점에서 본 관광과 브랜딩 전략(2회) - 2.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문화향유 혁신과 확장(2회)
찾아가는 문화도시 설명회	ㅇ 문화도시 사업 및 법정 문화도시 개념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운영(23회, 4,746명)
찾아가는 시민 인터뷰	ㅇ 활동 시민주체와 시민의제를 발견하는 보편 시민 대상 인터뷰 진행(72회, 107명) ㅇ '성북청년시민회'와 협력워킹그룹 '링커(Linker)' 구성, 협력 진행
통합 공론장	ㅇ '뭐든지 공론장' - 도시공론수집조-더글의 대모험 진행(10.18.~10.30. 성북구 전역) - 시민 대상 의견 현장 리서치 진행(258건) ㅇ '뭐든지 공론장' - 야외 전시(10.23. 성북분수마루광장) - 문화도시 성북 비전 확산 및 시민의견 수렴 위한 야외 공론장 진행(912명)
공론장 및 인터뷰 자료집 발간	ㅇ 공론장 결과 및 찾아가는 시민인터뷰 자료집 발간(12월)

이를 통해 문화도시 가치 및 비전 공유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시민 주체를 확대했으며, 지역과 시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한 적극 참여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활동가 그룹 협력으로 성북 내 다양한 주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시민 인터뷰

성북구 문화도시 홍보차량

문화도시 성북, 뭐든지 공론장

문화도시 홍보부스

문화도시 성북, 뭐든지 공론장

찾아가는 시민 인터뷰

찾아가는 문화도시 설명회

지역문화예술 안전망 실험

문화도시 '성북'의 다양한 활동들은 지역문화예술 안전망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동네예술 일자리 연결센터>, <성북, 열린대학> 사업들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자원들이 지역 안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창조적 문화해결을 위한 <동네예술 일자리 연결센터>
도시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드러나는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문제해결 관점이 필요하다. <동네예술 일자리 연결센터>는 도시와 예술가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예술·일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확산해 나간다.

지역문화매개자 양성사업 <성북 열린대학: LOC>
새로운 지역문화 주체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동북권 기반 교육기관 5개소와 협력을 통해 열린 방식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구분	내용/운영횟수
동네예술 일자리 연결센터	ㅇ 연구 워킹그룹 구성(7~11월) - 연구 자문 및 워킹그룹 운영 5회(20명) - FGI 운영 4회(27명) ㅇ 해커톤 포럼 운영 1회(23명)
지역문화매개자 양성사업 <성북 열린대학: LOC>	ㅇ 동북권 기반 교육기관 5개소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설계(4~7월) - 22년 예비사업 기간 내 총 9회(117명) ㅇ '열린대학' 타이틀로 동북권역 교육브랜딩 통합화 전략 수립(8~9월) ㅇ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를 위한 '강북 열린대학, 지역문화를 매개하는 활동가를 위한 '성북 열린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10~11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했으며, 문화예술인력의 안정적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창조적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성북 열린대학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안전망 연구

공공예술사업 <지금 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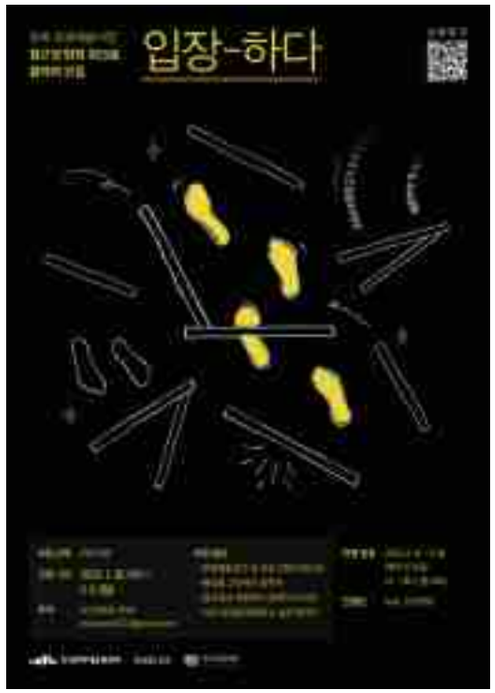
성북 공공예술사업은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불평등 완화'를 주제로 예술프로젝트와 워크숍, 액션리서치, 공연, 전시 그리고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해당 사업은 불평등 요소 중 퀴어, 장애, 디아스포라를 중심 주제로 지역생태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탐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쳤다.

연도	프로젝트명	횟수	참여자
2021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10	450
	트라이아웃 <디아스포라 기행>	3	110
2022	액션리서치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예술이 뭘 할 수(나) 있나>	4	55
	접근성 탐방 워크숍 <입장-하다>	6	120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	8	186
	액션리서치 <이상한 퀴어주의자 & 퀴어한 이상주의자>	4	40
	워크숍 <퀴어한 장소만들기 튜토리얼 Lv.1>	4	80
	공연 <다음이야기-장소>	1	683
	결과보고전 <입장하기, 질문하기, 장소 만들기 +제안하기>	10	65
	컨퍼런스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우리는 뭘 할 수(나) 있나?>	2	579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액션리서치 <이상한 퀴어주의자 & 퀴어한 이상주의자>

액션리서치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예술이 뭘 할 수(나) 있나>



접근성 탐방 워크숍 <입장-하다>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

공연 <다음이야기-장소>

컨퍼런스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우리는 뭘 할 수(나) 있나?>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 예술순환로

문화도시 성북은 지역의 예술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 중 '예술순환로'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지원하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여러 지역 문화 주체들과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월곡-석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예술인 주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진행 되었다.

2021년

사업운영			
구분	사업내용	회차	참여인원 (조회수)
1	예술순환로 전체모임 및 공론장	3회	41명
2	예술순환로 사업 운영위원회	16회	219명
3	예술순환로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13,785여명
4	웹진 믿미	4회	74명
5	성북 지역연구 <오픈리서치 랩> 협력윈원회	4회	38명
6	성북 지역연구 <오픈리서치랩> 한국성북학 사례강의 및 월례포럼	9회	109명
7	성북학 컨퍼런스 <성북학을 말하다>	2일	129명 (587명)
8	지역예술인 지역조사연구 <소주제 연구> 모임	7회	93명
9	예술순환로 예술제 <동네쌀롱제> 유위쌀롱	21회	275명
10	예술순환로 예술제 <동네쌀롱제> 실험기획	4건	162명
11	예술생태계스터디YE:S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옆동네 예술생태계 좌담회>	3회	60명
12	예술생태계스터디YE:S 우리동네 작은 예술스터디 <자근자근 테이블>	21회	119명
13	예술생태계스터디YE:S 실험형 스터디 <예술로 돈 벌 수 있을까?>	16회	226명
14	예술순환로 공간 중심 커뮤니티 <작당원>	6회	72명
15	거점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예술가의방><예술가월관씨의 일일> 등	4회	305명

공간운영				
구분	공간명	내용	회차	참여인원 (조회수)
1	예술램프	공유 커뮤니티 공간 운영	108건	945명
		공유 작업공간 운영	2개월	9명
2	오리랩하우스 (빈집)운영	내부대관운영	16건	137명
		외부대관운영	8건	99명

불안정한 생활환경(주거, 높은 생활비 등)으로 서울을 떠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창작활동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문화도시 성북이 가져야 할 필수 모습 중 하나였다.

2022년

사업운영			
구분	사업내용	회차	참여인원 (조회수)
1	예술순환로 전체모임 및 공론장	8회	220명
2	예술순환로 사업 운영위원회	25회	250명
3	예술순환로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13,863여명
4	웹진 믿미 발간	4회	40명
5	성북 지역연구 아카이빙 하우스 <오리랩하우스> 운영위원회	11	82명
6	지역연구 <성북 오픈 리서치 랩> 성북학 워크숍	7회	95명
7	성북학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4회	52명
8	예술순환로 예술제 <동네쌀롱제> 워크숍 및 공유회	12회	224명
9	예술생태계스터디YE:S 우리동네 작은 예술스터디 <자근자근 테이블>	17회	139명
10	예술생태계스터디YE:S <예술로 잘 살 수 있을까?> 스터디	15회	130명
11	예술순환로 공간 중심 커뮤니티 <작당원>	21회	166명
12	거점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지역공간협력전시 곳곳> 등	5회	8,812명

공간운영				
구분	공간명	내용	회차	참여인원
1	예술램프	윈도우 갤러리 전시 진행	5건	4명
		공유 커뮤니티 공간 운영	92건	614명
		공유 작업공간 운영	5개월	18명
2	오리랩하우스 (빈집)운영	내부대관운영	36건	399명
		외부대관운영	11건	78명

없어
지면
코
당을
예술

흥성흥성
예술순환로
2022 Art Soonhwanro 2022 예술순환로 2022 Art
2022.06.24.(fri) - 07.03(sun)
YRIGAFE B1
*오프닝 06.25(sat)
19:00

예술로
잘살수있을까?
2022.
7.1-
9.16
오리엔
하우스

곳곳 -
전시작품
모집
이리카페
아트쌀라운지
시차지
커피날에
보리수
초아컨-스튜디오
신청▼
~10/28

한책추진단

한책추진단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성북구 한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해 함께 읽고, 경험하고, 토론한다.

재단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서 건강한 주체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한책추진단'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한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룹이었다. 또한 성북의 대표 거버넌스 중 하나인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는 도서관과 성북구 한 책 읽기 독서 운동을 공동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중심 협의체로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성북형 거버넌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버넌스이기도 했다. 관내 15개의 성북구립도서관과 2,131명의 한책추진단을 통해 '문화도시, 성북'의 방향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문화도시와 주민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 수 있었다.
'한 책'을 구심점으로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만들어 온 '한책추진단', 나에서 우리, 마을과 지역으로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	2022
한책추진단(명)	1,301	2,131
운영 횟수(회)	326	330
참여자(명)	26,892	23,701

2022 한 책 후보도서데이 <브로콜리 펀치>

2022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 정례회의

2022 한 책 후보도서데이 <밝은밤>

2022 한 책 후보도서데이 <긴긴밤>

2022 성북구 한 책 10권 토론회 <이어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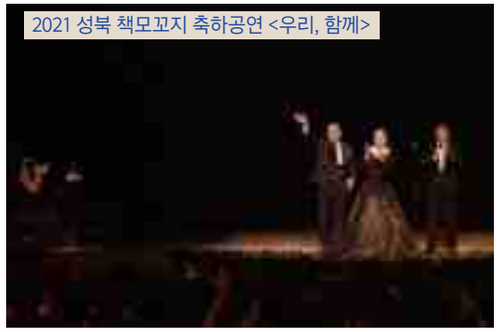
2022 청청프로젝트 첫 만남의 날

2022 한 책 후보도서데이 <브로콜리 펀치>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성북 책모꼬지는 '한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북의 대표 책 축제다.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등의 민간단체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서회와 주민 커뮤니티, 유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1년과 22년의 책모꼬지는 그간 함께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연대와 공존을 다짐하는 축제로 구성되었다. 지역 안에서 우리가 만든 기억들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문화도시와 함께 만들어나갈 독서운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진행년도	참여단체 수	참여인원	진행방식
2021	총 85개 단체	7,835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2	총 97개 단체	8,870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1 성북 책모꼬지 축하공연 <우리, 함께>

2021 성북 책모꼬지 올해의 한 책 북콘서트

2022 성북 책모꼬지 <지금, 함께 한다는 것>
김경일 교수 강연

2022 성북 책모꼬지 <지금, 함께 한다는 것>
김영하 작가 강연

2022 성북 책모꼬지 <다시-우리> 성북구 한 책 선포 & 축하공연

2022 성북 책모꼬지 <다시-우리> 성북구 한 책 선포 &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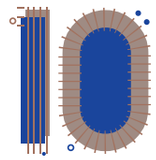
문화도시, 성북 : 공유를 통해서

성북예술마을만들기, 또 다른 7년을 위한 소고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석관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미아리고개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월곡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월장석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장위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종암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정릉예술마을만들기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도시자원의 연결과 공유를 위한 문화커먼즈
도서관은 실험실
마을in수다
인문학습공동체
문화도시, 홍보
문화도시, 아카이브

공유(共有)

1.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문화도시 성북의 핵심가치 공존을 이은 다음 가치는 공유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함께 가진다는 뜻보다는 '나누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기울어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누는 것으로 그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것. 문화도시 성북에서 말하는 '공유'의 가치다.



성북 예술마을만들기, 또 다른 7년을 위한 소고

하장호_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전 이사장

예술마을만들기의 그 기나긴 여정의 시작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도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에서부터 오늘날의 서울까지, 외형과 기술력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는 시민들에게 생산의 공간이자, 안락의 공간이며, 다양한 욕망이 분출하고 충돌하는 삶의 역동성으로 넘쳐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 이러한 도시를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커다란 힘은 '공동체'와 '문화'였다. 전제적 왕권에 의해 지배 받는 도시이든, 현대사회의 민주적 대의권력이 작동하는 도시이든, 시민 개개인의 삶을 작동하게 하는 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한 규율을 통해 시민들에게 내면화되기 마련이며 이는 공통의 가치체계와 규범, 특정한 형태의 삶의 양식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 이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20세기 말을 지배했던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공동체와 문화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세계화의 파고를 넘어서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상징하는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전쟁,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특별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한다. 과거 인류의 종말을 상상하며 만들어졌던 극영화들이 일종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며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어느 장면처럼 뇌리에 박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금은 비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북의 예술마을만들기의 출발 지점은 바로 이 전례가 없는 인류사적 위기에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이 자기 파괴적인 욕망을 시민들의 삶의 원리로 내면화 하고, 영화 속에서 보아왔던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현재로 소환해 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어쩌면 예술마을만들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정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무한경쟁의 원리와 불평등의 재생산, 편리함이란 이름의 탐욕적인 소비와 착취, 시민 개개인의 삶과 미래를 '국민'과 '주민'이란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관료적 지배구조를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의 내일이 보일 것이란 절박함이 예술마을만들기란 고민에 담겨 있다. 때문에 성북의 예술마을만들기는 공공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관료권력이 만들어 던져주는 문화 서비스가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와 예술을 지향하고, 시민들을 규율하는 기존의 질서와 원리가 아닌 자체적인 합의와 원칙들을 만들어가며, 개개인의 삶으로부터 유리된 예술이 아닌 일상의 삶의 공간 자체를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초대되는 시민이 아닌 스스로 발견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할 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조직된 힘이란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 시민들 스스로 바꿔가는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조직된 힘이 성북 예술마을만들기가 그려보는 새로운 도시의 가능성이다.

성북의 예술마을만들기가 걸어온 7년

성북 예술마을만들기의 실험은 2015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두 개의 워킹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문화정책의 환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2014년 수년간 준비해오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지역 기반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새로운 활동기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확산되던 시기였고 다양한 형태의 예술마을에 대한 상상과 제안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탓도 있었고 지역문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지역 공간을 예술마을 이란 형태로 재구조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자극하였다. 그러면서 주되게 거론되었던 사례들이 헤이리나 문래창작촌과 같은 클러스트형 모델, 감천마을과 같은 공공미술형 모델, 대학로나 홍대 같은 문화지구형 모델들이였다.
하지만 성북은 이러한 모델들이 갖는 한계와 문제로 인해 성북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와는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하였다. 예술가들을 인위적으로 몰아넣는 클러스트형 방식도 아닌, 원주민의 삶과는 유리된 채 경관사업의 의미만 갖는 공공미술형도 아닌, 행정이 주도하는 개발형 사업에 가까운 문화지구형 모델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고민하였다. 기존의 지역성을 해치지 않되 지역의 정체성과 특징을 담아내면서도 창조적 시민주체의 힘으로 도시의 삶을 바꿔내고, 지역 예술인에게도 일과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여 함께 상승하고 진화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성북 예술마을만들기의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첫 해의 정릉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과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은 이러한 초기 구상을 실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두 워킹그룹은 예술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운영 틀을 앞서 말한 예술마을만들기 방향에 공감한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민관협력 형태로 구성하였고, 성북문화재단의 해당 지역 담당자 1인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민간 코디네이터 1인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성북 예술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구축에 기반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워킹그룹은 정릉 지역의 정릉시장 일대와, 동선/돈암동의 미아리고개 일대를 주요 활동 공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활동주체, 이해관계자, 예술가, 청년 등을 워킹그룹에 초대하고 예술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한 공감과 의견 교환,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였다. 정릉 예술마을만들기의 경우 2014년부터 진행한 정릉신시장 사업이 기초가 되어 2015년부터 비교적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을 세팅하여 진행하였고, 반면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의 경우는 이전 활동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찾아 만나고 지역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네트워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후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성북문화재단과 지역 민간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실무 협력구조, 지역 활동 주체의 발견과 네트워킹, 지역적 특성의 발굴과 활동 의제 설정, 참여 사업의 제안과 구체화, 지역 주체의 일 환경 마련이 그것이다. 이후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은 이러한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미인도'라는 도시재생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며 성북문화재단과의 공동운영 협약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이후 성북 예술마을만들기는 워킹그룹 조직과 확장 과정에서 성북문화재단과 지역 주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몇 차례 갈등과 숙의의 과정을 겪기도 하였으나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탄탄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갔고 이는 2018년 '성북 예술마을만들기 연석회의'(예마연석회의)로 이어진다. 예마연석회의는 정릉, 미아리고개, 월장석 등 지역 단위로 개별화 되어 진행되던 각각의 워킹그룹 활동을 연결하고, 성북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을 하나의 활동 모델로 정식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을 거버넌스 틀 위에 올려놓고 예산 및 집행, 운영 등에 대한 민관협력 구조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호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의 분배와 집행을 모색하였고 이는 각 예술마을만들기 그룹 간의 더 강한 연대와 활동 촉진의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예마연석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성북문화재단의 지역협력 사업의 일부로 제안하고 구조화 하면서 말 그대로 Bottom-Up 방식의 활동을 구현해 내었다.

이와 같은 성북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과나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을 형성해 내었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역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문화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며 이후 성북의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북 예술마을만들기의 위기와 기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최근 성북의 지역문화생태계를 두고 위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좋았던 시절은 가고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이 성북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어떤 이는 걱정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성북에서 활동을 이어왔던 사람들이야 성과를 내려는 활동도 아니었고, 남들과의 경쟁을 감안한 활동은 더더욱 아니었기에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지역 활동이 이전과는 다른 환경 하에서 기획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혁신적인 실험과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10년간의 정책환경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개별 정책 영역에서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왔으나 큰틀에서 보면 예술진흥과 전통문화계승이란 틀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예술창작 환경의 보장,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 이 후 문화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적인 틀이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성북 예술마을만들기가 해왔던 공공의 지역 기반 지원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고나 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들려온다.

새로운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은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던 것 중 시민참여 부분을 뺀 문화복지 관점에서의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과 지역문화 정책을 지방문화 정책으로 협소화 해 접근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은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확장과 시민이 도시문화의 내일을 결정하고 참여한다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과 같은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얼마 전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체계를 공개하였다. 디자인과 경관 중심의 문화정책과 역사도시와 관련된 계획 등을 통해 살펴볼 때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같은 거대 토건계획의 연장과 유사한 계획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은 시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메가시티로서 서울의 브랜드 강화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성북구의 문화정책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성북구는 지역문화생태계의 네트워킹과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2016년 '성북구 창조문화역사도시 추진계획'이란 것을 수립하였다. 단년도 업무계획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지역문화기본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계획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된 정책과 중앙정부-서울시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들, 향후 성북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 과제들을 정리하여 수립 되었다. 예술마을만들기 활동 역시 이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살펴본 성북의 지역문화 정책 환경은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비전과 목표,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실행체계로서 거버넌스라는 완결된 구조가 만들어졌던 성북의 지역문화 정책 환경은 비전도, 목표도, 거버넌스도 사라지고 행정의 업무계획만 남은 모양새다. 이는 2022년 성북구의 문화분야 업무과제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민, 예술, 역사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했던 정책 체계는 올해는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과 역사문화도시라는 두 개의 틀로 축소되었고, 세부추진 과제들도 대부분이 시설조성이나 기존 추진되던 사업이 대부분이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비전체계나 정책 및 사업계획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말이 있다.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특히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활동의 지속성을 둘러싼 위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술마을만들기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가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 거버넌스가 상호간의 호의와 신뢰만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통치 권력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장임을, 따라서 우리의 역량과 자원, 힘이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1차적인 조건임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으며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주체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민관 협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주고 있다. 또한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지역의 공유자원을 발굴하고 조직해 활용하는 운동으로서의 공유, 커먼즈 운동이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강한 메시지이다. 또한 공공의 자원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나 행정조차도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시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결국 이 글의 앞에서 지적했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 힘을 만든다는 우리 활동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마을만들기란 이름의 알 수 없는 활동에 참여한 지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간 많은 이들이 도대체 예술마을이 뭔지, 그걸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으며 나 또한 이 활동의 기획자 중 한 사람으로 그 답을 끊임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언제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답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이제는 그 답을 찾는 여정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이 죽음으로서 그 의미가 결정되지 않듯이 예술마을만들기란 것 역시 만들어질 예술마을의 모습으로 그 의미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술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바람,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마을이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뻔한 자기 최면을 걸어본다. 이제 겨우 7년이다.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며, 우리의 미래를 바꿔내는 일이 겨우 7년 정도의 시간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가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또 다른 7년을 기대해 본다.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석관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성북구 내에는 다양한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성장 중이었다. 성북문화재단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예술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그룹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했다.

석관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역안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해왔다.
그 결과 21년에는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능들을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며 주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향유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고도는 공유재>를 운영하였다.
또한 22년에는 더욱 확장 되어 단순 서비스 형태가 아닌 지역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점들을 모색하고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문화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맞다!쌀롱>과 지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지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못개봉새상품>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2021

정기모임	돌고도는 공유재	돌고도는 공유재 × 민들레 협력프로젝트	돌고도는 공유재 × 성북진경연계프로젝트
총 26회	총 3회	총 2회	총 2회
누적 178명 참여	누적 24명 참여	누적 45명 참여	누적 20명 참여

2022

정기모임	쌀롱프로젝트 <아맞다!쌀롱>	협업프로젝트 전시 <못개봉 새상품>
총 30회	총 4회	1회 (2022.10.24.~10.30.)
누적 186명 참여	누적 33명 참여	103명

돌고도는 공유재

돌고도는 공유재 x 민들레 협력 프로젝트

돌고도는 공유재

<몽개봉 새상품> 전시

<몽개봉 새상품> 전시

<몽개봉 새상품> 사전프로그램

쌀롱프로젝트 <아맞다!쌀롱>

동양화 공유재

산책 공유재

2022
못개봉 새상품

아맞다
이이야기는
한번나눠보고
싶어요.
2022. 05. 24. TUE. 19:30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미아리고개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2015년 워킹그룹에서 시작된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미아리고개하부공간(미인도)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로 성장해왔다. 커뮤니티 그룹 <아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들>은 다년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성북의 활동을 도모하고 미아리고개(동선동) 일대의 고유 활동들을 만들었다. 이 중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은 대표 활동 콘텐츠이며, 동선동주민자치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지역 공간 및 커뮤니티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2021

사업명	기간(회차)	참여자	비고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4.10(1회차)	360회	온라인
	6.12(1회차)	256회	
	8.21(1회차)	416회	
	10.16(1회차)	284회	
	12.181회차)	297회	
무엇이든 세미나	04.~11(4회)	30명	
아름다운 미아리고개친구들 네트워크 모임	01.~12(43회)	회당 15명	

2022

사업명			비고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4.23(1회차)	280회	온라인
	6.18(1회차)	428명	
	8.20(1회차)	320명	
	10.22(1회차)	521명	
무엇이든 세미나	06.~11(2회)	20명	
아름다운 미아리고개친구들 네트워크 모임	01.~12(43회)	회당 15명	

고개장
2021년 17일(토)

고개장
2022.06.18.(토)

고개장
2021.12.18(토)

고개장
2022. 10. 22. (토)
HALLOW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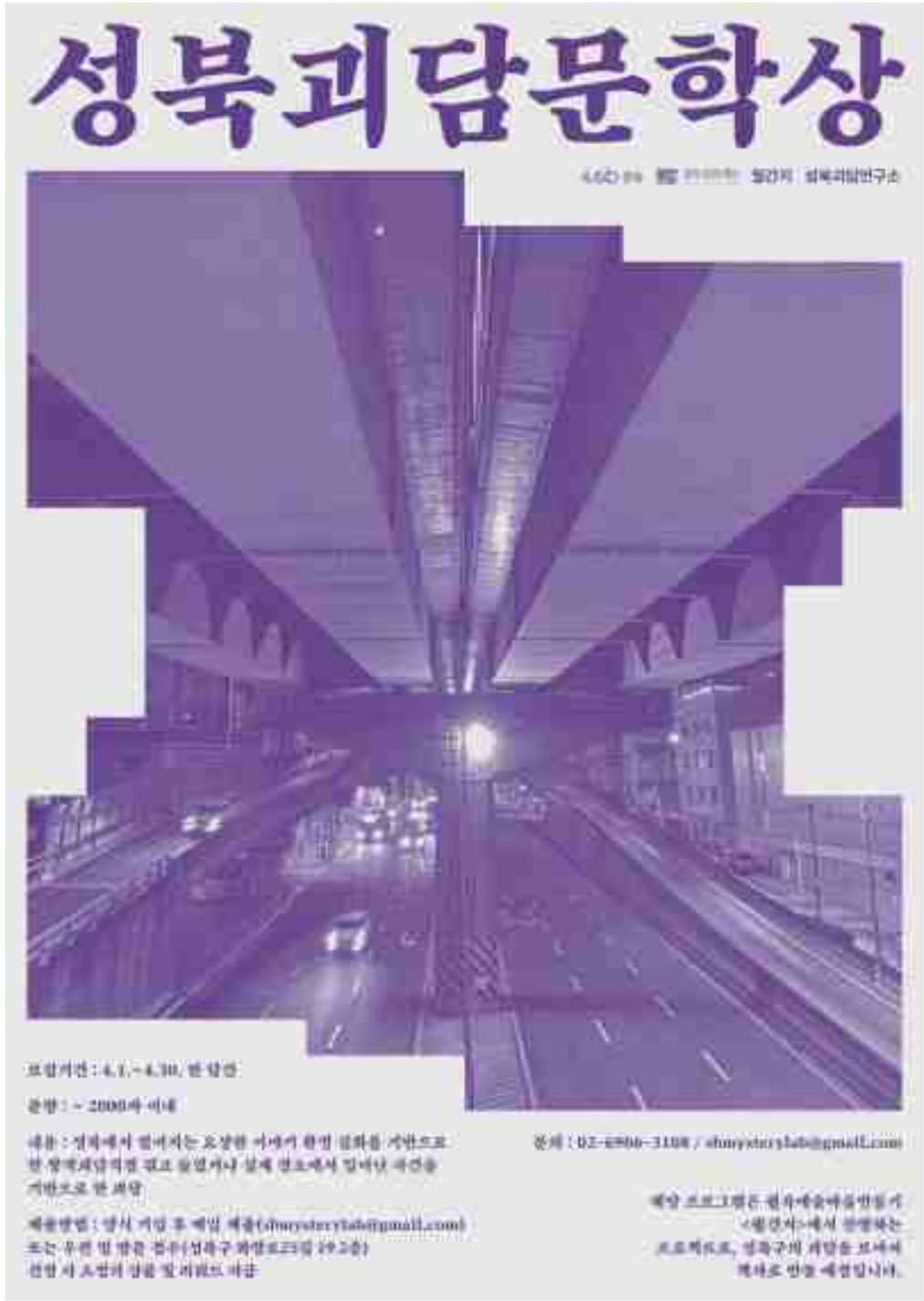
고개장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월곡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지역주민, 활동가, 예술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월곡예술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해당 커뮤니티는 <월간지>라는 이름으로 정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월곡 지역 이야기 아카이빙을 위한 '성북괴담문학상'을 진행하고 '성북괴담집'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그 후 22년에는 월곡지역 1인가구들을 인터뷰한 '혼자 뭐하니?'를 추진하여 나만의 커피블랜딩을 경험하며 1인가구의 삶을 기록하는 인터뷰집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이어 나가는 중이다.

구분	2022년	2021년
기간	2022.01.~12.	2021.01.~12.
장소	월곡1동	
주요대상	월곡동 주민, 예술가, 활동가, 청년 등	
내용 (추진방향)	• 월곡1 예술마을 커뮤니티 <월간지> 운영 및 활성화 • 월곡동 아카이빙	
성과	• 월곡1 예술마을만들기 월간지: 총 9명, - 정기모임 33회/ 누적참여자 206명(11.05.기준) - [언젠가 월곡] 프로젝트 <혼자 뭐하니?> 총 8회, 누적참여 32명 - 성북 1인가구 청년 인터뷰집 <혼자뭐하니?> 책자 제작 및 배포 예정	• 월곡1 예술마을만들기 월간지: 총 7명, - 정기모임 31회/ 누적참여자 149명 - 성북지역 스토리 아카이빙 프로젝트 <성북괴담문학상> 총 12편 작품 선정 및 <성북괴담집> 책자 제작 및 배포 완료
	지역 주민, 예술가 등 민간 활동 주체 발굴 및 민-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동 영역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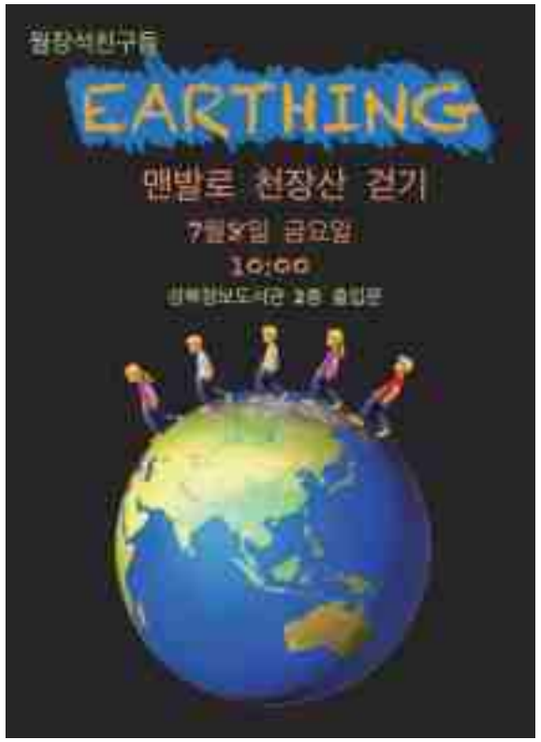
문의

월장석친구들은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의 예술가와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지역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 오픈 네트워크다. 7개의 공연예술극단을 비롯하여 2개의 문화기획자그룹과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시각·음악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모임을 시작해 2018년에는 임의단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에 위치한 천장산우화극장을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였으며, 주민들과 지역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21년과 22년에는 성인지 감수성 및 장애 관련 교육 등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모두가 배워야할 부분들을 공동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체 기획 사업인 '서서히 학교'와 '월장석 방방방'은 천장산과 삼태기마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 각각이 지역의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만나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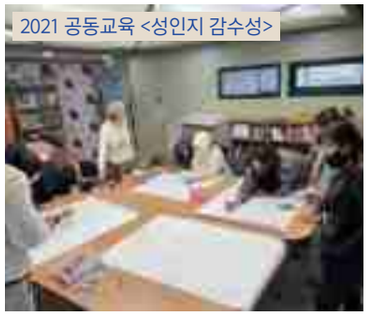
연도	사업명	회차	참여인원(누적)
2021	월장석친구들 정기모임	50회	530명
	월장석친구들 공동교육	4회	36명
	월장석 방방방 <기묘한 우화전>	1회	95명
2022	월장석친구들 정기모임	49회	514명
	월장석친구들 공동교육	6회	100명
	월장석친구들 활동 아카이브 영상 제작	1회	-



2022 월장석방방방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천장산 맨발걷기 <EARTHING>

2022 월장석방방방 <갓 태어난 것은 따뜻하다>


2021 공동교육 <성인지 감수성>

월장석친구들 정기모임

2021 공동교육 <장애학의 도전>

월장석친구들 정기모임

월장석친구들 정기모임

2021 월장석친구들 연말파티 <서른, 마흔, 반백식>

2021 월장석친구들 연말파티 <서른, 마흔, 반백식>

2021 월장석친구들 연말파티 <서른, 마흔, 반백식>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장위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장위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장위예술마을 네트워크 개구장위들은 21년 소규모 워크숍의 형태로 전환하여 4가지 주제(친환경/ 예술놀이/ 아놀로그라이프/ OHP)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 내 문화적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연결하는 별걸다해 콘텐츠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참여를 제공해왔고 공유촉진사업 노임팩트 아지트를 통해 지역 내 친환경 배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문화커먼즈의 기반을 만들었다.
22년에는 지역 내 빈집 공간을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빈집,괜찮으시겠어요?', '빈집 집들이', '별별모임'을 진행하여 유휴공간인 빈집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연도	사업명	회	인원
2021	개구장위들 정기모임	48회	누적 414명
	장위별 별걸다해	12회	158명
	공유촉진사업 노임팩트 아지트	5회	52명
	장위 빈집 프로젝트	1회	22명
2022	개구장위들 정기모임	39회	누적 259명
	빈집, 괜찮으시겠어요?	6회	누적 139명
	장위 빈집 집들이	1회	97명
	장위 별별모임	11회	95명

장위별 별걸다해
MHP동화

불편하게 놀기
Episode① 길찾기

10월 24일(일) 오전 11시
장위별 별걸다해
불편하게 놀기
Episode ③ 요리하기
장위별 별걸다해
불편하게 놀기
Episode ④ 글쓰기
10월 31일(일) 오후 1시
누구나 참여

별별모임

진짜 빈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주마다 나의아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디어 내아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빈 집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면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종암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2019년부터 종암동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브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종암예술마을 네트워크 '종종걸음'은 21년에는 지역 아카이브 책자 '어떤종암'을 발간하였다. 한 해 동안 종암동에 있는 개운산 사계의 모습과 지역 내 노포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했다.
소소한 동네의 소중한 부분들을 다룬 '어떤종암'은 지역 곳곳에 배포되어 다양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마을 아카이빙의 작업 역시 '문화도시, 성북'을 이뤄나가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구분	사업명	회	인원
2021	종종걸음 정기모임	44회	누적 176명
	개운산 사계 아카이브	23회	누적 69명
	<어떤종암> 아카이브 책자 발간	1회	18명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성북예술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모모모는 성북동을 중심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주체적인 모임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한양도성, 길상사, 심우장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하여 성북동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며 발견하는 다양한 것들에서 마을자원으로서의 의미를 발굴했다. 그리고 이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동네관찰, 동네비평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21년에는 성북 내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상호 학습의 장인 동네배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디퍼커션, 바느질, 미술소품 제작 등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각자 가진 자원들을 서로 확인하며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2년에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동네기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북동 산책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구분	정기 모임	기획 프로그램
2021	12회 / 53명 참여	12회 / 134명 참여
2022	10회 / 55명 참여	4회 / 42명 참여 동네기록 단행본, 영상컨텐츠 제작 동네사진 온라인아카이브 23회

성북동 산책

바디퍼커션 워크숍

단체 전시 관람

그림책 워크숍

모모모 축제

동단위 예술마을만들기 : 정릉예술마을만들기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정릉예술마을만들기는 '정릉축제재밌당'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 및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모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릉지역 대표축제 '정릉더하기축제'를 진행했다. '정릉더하기축제'는 동네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의 기획자와 다수의 참여자라는 이분적 구분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의 기획자임을 인지시키고 기획 및 준비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가능한 마을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의 주도가 없음에도 모두가 축제를 만들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참여자들의 주체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알 수 있다.

21년 '정릉더하기축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에 구축된 마을의 축제 모습은 새로웠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중장년층의 참여를 걱정했지만, 막상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자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22년에는 예전처럼 교통광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서로를 근거리에서 만나 웃고 즐기는 모습을 통해 여전히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구분	축제 사전 모임 진행	축제 참여인원
2021	14회 / 141명 참여	198명 참여 (온라인)
2022	10회 / 124명 참여	1,580명 참여

2022 정릉 더하기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2022. 8.27
정릉고등
고등광장일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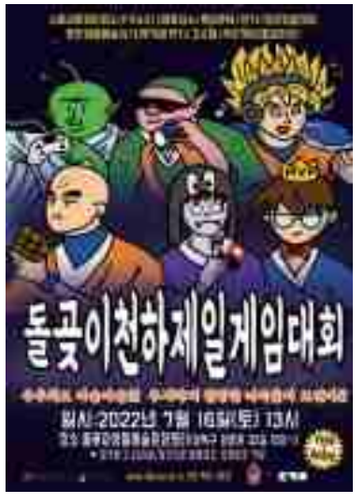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생활문화활동을 기반으로 주민과 주민이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다.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변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네사람 프로그램은 세대가 어울려 다양한 생활기술을 배운다. 또한 주민창작자율기획 프로그램과 동네스펙트럼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의 시민력을 기르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지역 자원의 교류와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의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마을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고 있다. 공유하고 교류하는 경험들은 주민들의 시민력을 키우고 지역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생활문화 기반의 마을 커뮤니티활동, 미래에 더 나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민공동체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문화도시의 거점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분	총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지역협력활동
2021	2,734명	498회	141
2022	2,953명	617회	120

2022
성북진경X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다시, 활짝
2022.10.18 - 10.30 (총 13일)

위기의 영화관


돌곶이천하제일게임대회

도시자원의 연결과 공유를 위한 문화커먼즈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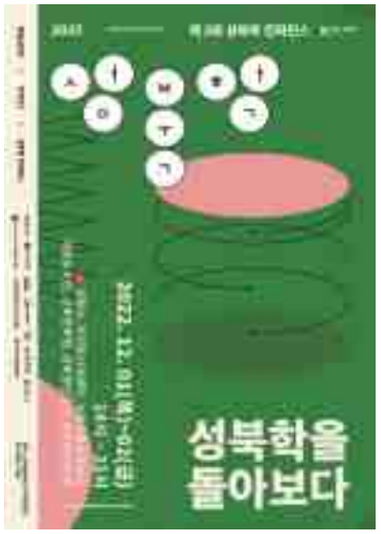
학습-공론-실험-혁신-아카이브 순환을 통한 지식 순환생태계 모델을 제시하고자했다. 지역자원을 시민 공동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한 시민력 향상과 다층적 시민주체와 활동을 연계한 도전과 실험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목표였다.

◦ 활동하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드는 협력 플랫폼 <성북활력>
: 지역에 필요한 의제별 해결법들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공동의 감각과 경험으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동가 크루를 모집했다.

◦ 지역을 담는 <성북도큐멘타 8> 아카이빙
: 미아리성매매집결지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도시변화를 예술로 기록하고 아카이빙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공론장 '우리는 왜 에술로 지역을 기록하는가'를 진행했다.

◦ 성북학 <오픈리서치랩>과 <2022 성북학 컨퍼런스>
: 지역학(로컬리티) 연구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콜렉티브를 운영하고, 지역학 연구 기반을 함께 축적하고 공유하는 연구 플랫폼 '오픈리서치랩'을 활성화 하며 '성북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구분	프로그램 운영횟수
활동하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드는 협력 플랫폼 <성북활력>	◦ **의제 및 아이디어 26개, 활동가 크루 46명 모집** - 전문가 자문 및 기획 및 과정 설계(4~9월) - 플랫폼 홈페이지 제작 및 참여자, 아이디어 모집(10월) - 아이디어 선정 및 구체화 과정(11월), 어워즈 진행(12.12)
지역을 담는 <성북도큐멘타 8>	◦ **참여예술인 조직 및 사업 협력 기획회의 진행(9회/65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지원 사업-예술로> 기획사업 참여예술인 4인 매칭 및 협력 아카이빙 진행 ◦ **2022 성북도큐멘타 공론장 진행(2회/86명)** - 2022 성북도큐멘타 참여예술인 내부공론장(10.17/7명) - 2022 성북도큐멘타 공론장 '우리는 왜 예술로 지역을 기록하는가' 진행 (11.04/79명) ◦ **결과자료집 발간, 온라인전시 진행(12월)** - 2022 성북도큐멘타 결과자료집 발간 - 2022 성북도큐멘타 8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 오픈
성북학 <오픈리서치랩>과 <2022 성북학 컨퍼런스>	◦ **성북학 <오픈리서치랩>과 <2022 성북학 컨퍼런스> 운영** - 성북학 추진위원회 조직(16명) 및 협력 기획회의 진행(5회/65명) ◦ **2022 성북학 컨퍼런스 '제2회 성북학을 돌아보다' 개최(12.01.~02.)**



성북활력 어워즈(12.12) 활동가 크루

성북학 컨퍼런스 메인 토론회

성북활력 활동가 크루 오리엔테이션

성북도큐멘타 내부공론장

도서관은 실험실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왔다. 단순히 조용한 공공시설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의 고민을 나누고 변화를 실천하는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개별의 주체가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모습을 제안하는 공간이 되었다.
문화도시 성북 안에서 도서관은 10년 후 성북의 모습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실험실이 되기를 바라며, '도서관은 실험실'을 진행하였다.

1) 지역의 아카이브를 잇는, 성북이음프로젝트

성북의 아카이브 주체 간 거버넌스 구성 및 협력을 통해 성북의 기록이 순환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순환 생태계 구축

2)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한, 마을in수다

마을의 현안,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다음을 상상하는 도서관 공론장

3) 누구나 빛날 수 있는, 학습공동체, 랑(with)

경험을 나누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4) 세대별 문화향유 확대, 다시 만난 세대

다양한 세대가 만나는 연결고리, 도서관

5) 도서관 거버넌스 3.0, 한 걸음 더

성북구립도서관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다음을 이야기하는 라운드테이블

성과지표	사업 성과 (지표 별 단위 상이)
시민주체(한책추진단)	2,131명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참여자수	11,722명
세대별 문화향유 축제	4회
학습공동체 운영	8개 / 366명
공론장 운영	18회 / 109명
거버넌스 구성	4개 / 32단체

<다시 만난 세대> 세대별 축제 포스터

어린이 세대: 그냥 놀고 싶어

어린이 세대 : 밤의 놀당

청소년 세대: 기고만장

청년 세대: 미래잔치 우리는 만날거야

책과 지역 자료의 만남

2022년 12월부터 성북구립도서관과 성북마을아카이브의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성북이음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지역자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마을아카이브 자료 검색

2022 다시 만난 세대: 어린이 그냥 놀고 싶어

2022 학습공동체, 랑(with)

2022 도서관 거버넌스, 한 걸음 더 라운드테이블

마을in수다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마을in수다'는 도서관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공론장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책과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정한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컬렉션 등 생활 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론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논의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삶과 마을의 문제에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성북구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22년 문화도시 연계 사업으로 진행 되었다.

2021

구분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운영횟수(회)	7	221

도서관명	의제
성북정보도서관	기후위기는 공정하지 않다
석관동미리내도서관	기후위기, '우리'여서 할 수 있는 것
종암동새날도서관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는 가능한가?
정릉도서관	청년 이웃 발견!
청수도서관	자원순환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월곡꿈그림도서관	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 "Green, 꿈그림"은 지속가능한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노임팩트장위) 내 삶을 바꾸는 소비

NO	성북구립도서관 누리집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게시글
1	마을에 대해 공부할 때 함께 볼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공동체 #마을
2	마을에 대한 책 중에 추천할만한 책이 있을까요? #공동체 #마을
3	우리 주변 청소년을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있을까요? #청소년 #인권 #문화
4	일이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워라밸 #직업 #노동
5	나이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노년 #나이듦 #노년의삶 #시니어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동네동물 #동물권 #비건 # 환경
7	왜 우리는 서로를 협오할까요? #혐오 #약자 #소수자
8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다시 읽기 #환경 #기후정의 #소비 #실천

2022

구분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운영횟수(회)	7	2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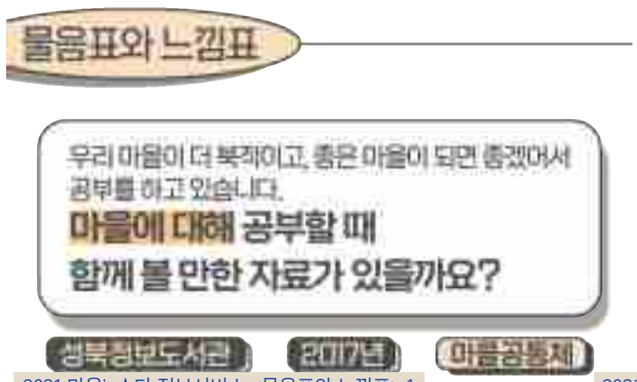
도서관명	의제
성북정보도서관	어떤 노인으로 살 것인가?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선배시민
석관동미리내도서관	10년 후 석관동(feat. 문화도시)
종암동새날도서관	종암안전모 : 안전에 대한 모든 것
청수도서관	마을공동체, 환경을 고민하다
월곡꿈그림도서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과의존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무해한 소비를 향하여
성북길빛도서관	로봇과 함께할 우리 미래 이야기

NO	성북구립도서관 누리집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게시글
1	성북길빛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2	월곡꿈그림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3	종암동새날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4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5	청수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6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7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의제 어떻게 정해졌나요?
8	종암동새날도서관 종암동 안전에 대한 모든 것
9	석관동미리내도서관 10년 후 석관동(Feat. 문화도시)
10	월곡꿈그림도서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과의존
11	청수도서관 우리 마을 환경지킴이
12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무해한 소비를 향하여
13	성북정보도서관 어떤 노인으로 살 것인가?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선배시민
14	성북길빛도서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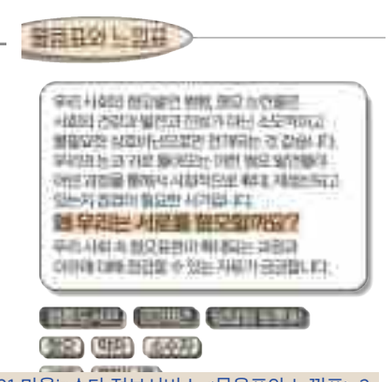
2021 마을in수다 포스터

2021 정릉도서관 마을in수다 포스터

202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포스터



2021 마을in수다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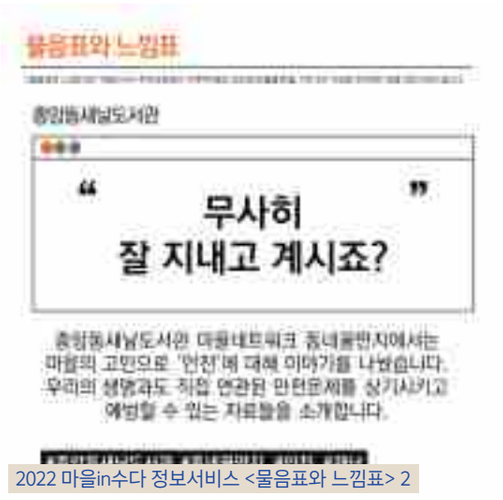


2021 마을in수다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2

2022 마을in수다 포스터

2022 월곡꿈그림도서관 마을in수다 포스터

2022 마을in수다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1



2022 마을in수다 정보서비스 <물음표와 느낌표> 2

2021 정릉도서관 마을in수다

2021 월곡꿈그림도서관 마을in수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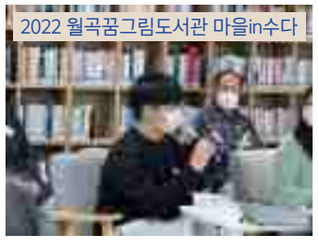
2022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종암동새날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청수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월곡꿈그림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성북길빛도서관 마을in수다

인문학습공동체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인문학습공동체'는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발굴 및 지원한다. 지역 내 지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습공동체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문학 소양을 기르고, 사람들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기에 22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2021

영상콘텐츠명	게시일	조회수
호흡공동체를 위한 과학과 정치 - 전치형	2021.10.27.	180
과학기술이 가린 호혜의 삶 - 이광석	2021.10.28	182
언론의 자리, 보편의 부재 - 강유정	2021.10.29.	166
[수어버전] 호흡공동체를 위한 과학과 정치 - 전치형	2021.12.15.	32
[수어버전] 과학기술이 가린 호혜의 삶 - 이광석	2021.12.15.	31
[수어버전] 언론의 자리, 보편의 부재 - 강유정	2021.12.15.	46
[티저영상] 2022 학습공동체 티저 영상	2022.05.24.	101
합계		**738**

2022

영상콘텐츠명	게시일	조회수
인공지능과 사회생태 - 유재연	2022.10.05	250
에너지와 사회생태 - 김선교	2022.10.12	202
유전자와 사회생태 - 김준혁	2022.10.19	126
합계		**578**

학습공동체 1개, 총 5회 운영, 누적참여 35명

- 문화도시와 연계하여 학습공동체 확장(학습공동체 9개, 총 54회 운영, 누적참여 390명)

학습공동체 연계 북토크 1회, 참여인원 35명

2021 인문학습공동체 포스터

2022 인문학습공동체 포스터

2022 학습공동체 포스터

2022 학습공동체 연계 북토크 포스터

2021 인문학습공동체 <보통에서 보편으로,>
전치형 교수 강연

2021 인문학습공동체 <보통에서 보편으로,>
이광석 교수 강연

2021 인문학습공동체 <보통에서 보편으로,>
강유정 교수 강연

2022 인문학습공동체 <보편에서 보통으로, Ⅱ>
김준혁 교수 강연

2022 인문학습공동체 < 보편에서 보통으로, Ⅱ>
김선교 에너지 전문가 강연

2022 인문학습공동체 < 보편에서 보통으로, Ⅱ>
유재연 AI 전문가 강연

2022 인문학습공동체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임소연 교수 북토크

2022 인문학습공동체 학습공동체

문화도시, 성북은 재단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 안에서 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했다.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도 '문화도시'라는 말을 인식시켜야 했고,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야만 했다. 그래서 지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재단은 지역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 문화도시, 성북 BI 제작
성북의 구조 참새와 성북의 S의 형태에서 유사성을 찾아낸 우리는 두 가지의 형태를 결합한 BI를 디자인했다. 참새는 우리나라 텃새로, 사계절 내내 개나리 덤불 속, 어느 집 담장 위, 전선줄 위에서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어디서나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한데 모이고 어우러져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2) 영상 콘텐츠 제작
서로 다른 세대가 문화도시라는 키워드로 꿈꾸는 성북을 이야기하고, 문화도시 성북을 함께 알아가며 10년 후 성북을 그리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3) 캠페인 전시 '우리동네, 성북구' 운영
꾸준하게 주민들이 방문하는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활용한 홍보 방식이었다. 도서관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생태계를 표시한 지도와 문화행사 등에 사용된 포스터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성북구의 지난 기억을 함께 나눔과 동시에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성북구 문화도시 사업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홍보하고 공유 및 관리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성북의 비전 및 추진체계 등 성북문화도시센터의 브랜드와 문화도시 사업 및 연계사업의 내용과 과정을 공유하고 소개했다.

5)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홍보채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로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콘텐츠 제작 전 일관성을 가진 디자인 매뉴얼을 구축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관련 콘텐츠 통일로 문화도시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확립했다. 더 나아가 문화도시센터 채널만이 아닌 재단과 구청의 여러 홍보채널들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안에 전파시켰다.

6) 홍보물 제작
성북구 문화도시 주요사업 및 비전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북구 문화도시를 보다 더 친근하고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 굿즈 배포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7) 마을버스 광고 게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운영되는 마을버스에 10년 후 성북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광고지면을 게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을버스 홍보물 인증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온・오프라인 환경에 맞는 홍보방식을 진행하였다.

8) 홍보부스 운영
문화도시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진행해왔다.

9) 보도자료 배포
문화도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배포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성과]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조회수 314회	유튜브 누적 조회수 : 622회 블로그 누적 조회수 : 266회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 첫 번째 이야기	조회수 80회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 두 번째 이야기	조회수 46회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 세 번째 이야기	조회수 49회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 네 번째 이야기	조회수 49회	
10년 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성북] : 다섯 번째 이야기	조회수 84회	
영상 링크 :		

[캠페인전시 기획 및 운영 사업성과]			
연번	장소	기간	관람객수(명)
1	성북정보도서관/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9.18.(토)~10.8.(금)	2,690
2	글빛도서관	9.30.(목)~10.25(월)	7,500
3	아리랑도서관	9.30.(목)~10.28(목)	4,165
4	달빛마루도서관	9.30.(목)~10.28(목)	3,025
5	장위행복누림도서관	10.13.(수)~10.28(목)	1,016
총 관람인원			17,380
문화도시 인식조사: 총 349명 (설문지 참여인원 288명 /온라인참여인원 61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업성과]	
콘텐츠 게시	총 96회(12월 기준)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총 7,346명(12월 기준)
문화도시성북 홈페이지 링크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사업성과]		
성북문화도시센터	성북문화재단	성북구청
◦ SNS 콘텐츠 게시 : 총 138회 ◦ 좋아요 1,949개 ◦ 팔로워 수 : 총 928명	◦ 블로그 업로드 : 30회 / 조회수 7,485회 ◦ SNS 채널 콘텐츠 게시 : 97회 / 좋아요 1,908회 ◦ 유튜브 콘텐츠 게시 : 11회 / 조회수 1,515회 ◦ 뉴스레터 발행 : 36회 ◦ 카카오톡 뉴스 발행 : 11회	◦ 성북소리 발행 : 8건
문화도시성북 인스타그램		
문화도시성북 페이스북		

[홍보물 제작 사업성과]		
거리 현수막 제작 및 게시	50종 제작 및 게시	
문화도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500부 / 유튜브 조회수 154회	
문화도시 굿즈 제작 및 배포	2021	총 2,050개 (대나무 칫솔 170개, 치약 170개, 3단우산 170개, 마스크 스트랩 300개, 양장점착메모 1000개, 캘린더 120개, 다이어리 120개)
	2022	굿즈 11종 총 25,912개 제작(스포츠타월 1,400장, 천연비누 3,200개, 티셔츠 120장, 포춘쿠키 600개, 원형스티커 3,000장, 소창손수건 2,392장, 대/소봉투 각 3,000장, 쇼핑백 1,000개, 커팅스티커 2,000장, 명함 3,200장, 책자철 6,000장
문화도시 소품 제작 및 활용	마이크 5개, 아크릴배너 5개, 룰렛 1대	

[마을버스 광고 게시 사업성과]	
문화도시 광고 마을버스 운행	문화도시 광고 마을버스 운행 : 5대 (성북 02 2대, 성북 12 1대, 성북 20 2대)
운행기간	운행기간 : 9월 5일 ~ 12월 4일
총 운행횟수	총 운행횟수 : 6,825회

[문화도시 홍보부스 사업성과]			
우리동네재미난 잡화점 (6.24) 참여인원: 74명	청소년축제 기고만장 (7.25) 참여인원 100명	성북문화바캉스 (7.29~7.31) 참여인원 604명	정릉 더하기 축제 (8.27) 참여인원 318명
청년시민모꼬지 (9.17) 참여인원 146명	성북공공예술사업 (9.18) 참여인원 51명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9.25) 참여인원 232명	성북동 밤마실 (9.30~10.1) 참여인원 165명
두근두근별길마켓 (10.15~10.16) 참여인원 839명	문화도시 성북, 뭐든지 공론장 (10.23) 참여인원 267명	노인에서 선배시민으로 (10.27) 참여인원 188명	**총 11회 운영** **참여 2,984명**

[보도자료 배포 사업성과]					
연번	**매체명**	**제목**	**URL**	**게재일자**	**배표수**
1	25뉴스 외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7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http://www.25news.co.kr/_press/?newsid=944255	2022-05-11 09:34	111건
2	메트로 외	성북문화도시센터, '대놓고 거버넌스, 시민원정대-춘천편' 6월 30일 성료	http://press.metroseoul.co.kr/newsRead.php?no=947407	2022-07-05 15:05	109건
3	시사코리아저널외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원과 지역 문화·예술·역사 자원 공유 위한 업무 협약 체결	http://press.koreajn.co.kr/newsRead.php?no=949416	2022-08-11 11:46	107건
4	서울포커스신문외	성북문화도시센터, 성북구주민자치회, 성북구청 업무협약	http://www.imnews.tv/mobile/article.html?no=64423	2022-09-20 19:24	80건
5	내외통신 외	서울 성북구-성북문화도시센터, '2022 성북구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회의' 진행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12	2022-08-30 15:21	50건
6	코리아플러스 외	성북구의회, 성북구 법정문화도시 지정 결의문 채택	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440924	2022.10.25 22:13	60건
7	뉴스와이어 외	사람·공간·예술이 일상에서 연결되는 문화도시 성북 '2022 성북진경-오픈스페이스 페스타' 성료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54755	2022-11-03 10:50	101건

영상콘텐츠 제작

캠페인전시 '우리동네, 성북구'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마을버스 광고 게시

홍보부스 운영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구를 법정문화도시로!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선정 기쁘다!

성북구의회, 성북구 법정문화도시 지정 결의문 채택

사람·공간·예술이 일상에서 연결되는 문화도시 성북 '2022 성북 친경·오픈스페이스 페스타' 성료

'지붕없는 박물관'을 문화도시로

성북구-주민-단체 뭉칩니다

보도자료 배포

성북문화도시센터, '대동고 거버넌스 시민원탁회의 준전문' 6월 30일 성료

축제의 성북 만든 '금손'… "소통이 비결이죠"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3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원과 지역 문화·예술 역사 자원 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도시, 아카이브

공유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 사업의 설명 및 추진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진 발간과 동시에 온라인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추진 전과정을 기록집으로 제작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 그린북 자문단 운영
아카이빙 북 출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그린북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 그린북 자료집 제작
그린북 1권, 2권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3) 그린북 웹사이트 제작
그린북 프로젝트를 디지털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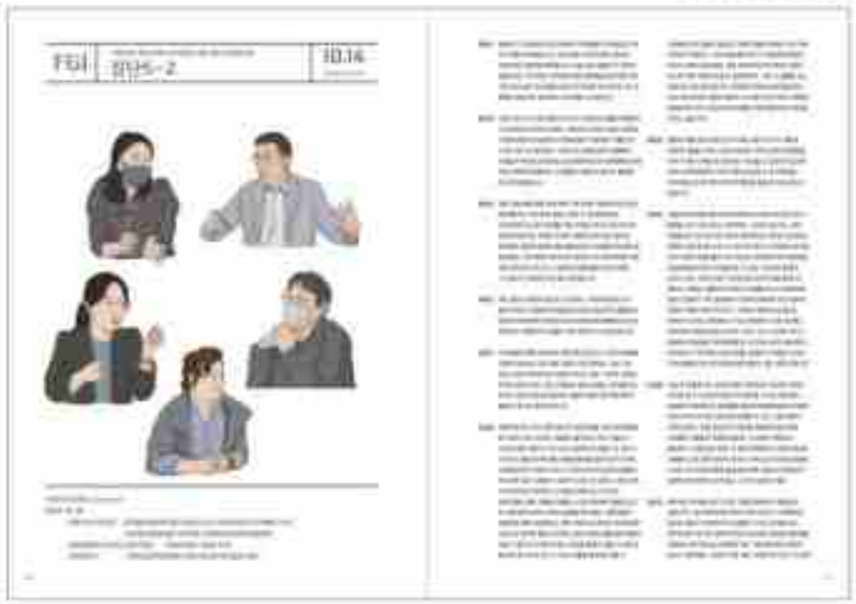
4) 문화도시 웹진 '웍더글덕더글'
시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문화도시를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안에서도 자유로운 공론장이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5) 문화도시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제작 및 운영하여 누구나 문화도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6) 문화도시 기록집 '문화도시학개론 : 성북'
22년 예비문화도시 성북의 추진 전 과정을 담은 기록집을 발간하여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구분	내용/운영횟수
(1) 그린북 자문단 운영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원, 기획자 등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로 그린북 자문단 구성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카이브의 방법론 제언 및 발전방안 논의 그린북 자료집 방향 및 콘셉트 자문
(2) 그린북 자료집 제작	그린북1 : 성북구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 성북구 도시현황 및 15개 문화도시 사업 설명 그린북2 : 의견수렴(FGI), 작은공론장, 문화도시 성북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 설문조사 등 내용 수록
(3) 그린북 웹사이트 제작	그린북 자료집 1,2권에 대한 내용을 압축 및 가시화하여 아카이브 웹사이트로 제작
(4) 문화도시 웹진 <웍더글덕더글> 발간	2회 발간, 누적 페이지뷰 1,689회 / 문화도시 웹진 1호 / 2호 발간 링크 : https://www.sbculturecity.com/webzine
(5) 문화도시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링크 : https://archives.sbculturecity.com
(6) 문화도시 추진 기록집	문화도시학개론 : 성북 발간(500권)

그린북 2021 성북구 문화도시 추진기록서
구성 및 디자인 안을



문화도시, 성북 : 다시금 순환으로

지역대학협력사업

생활문화거버넌스

문화,공간, 사람이 연결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

성북진경x오픈 스페이스 페스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지역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동네 친구들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친구 따라 공탁에 갔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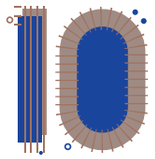
문화도시, 성북

순환

순환(共有)

1.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돎, 또는 그런 과정
2. 돈을 운영함
3.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의 집합

문화도시 성북의 핵심가치 마지막은 순환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생명이 다하 듯,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생태계 활동은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문화도시 성북은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생태계 활동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이 불어나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이 또한 지속가능하도록 오늘도 노력 중에 있다.



지역대학협력사업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문화도시, 성북은 민・관・학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역 안에 문화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가치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양한 성원들이 문화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문화도시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들이 고여있지 않고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 될 수 있었다.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학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7개의 사립 대학교와 1개의 국립대학교는 보기 드문 자원으로 문화도시는 적극적으로 지역 안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교육과정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공간 등 여러 문화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큐레이터를 비롯한 예술가들에게 현장 중심의 강의를 들으며 진로탐색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성북의 자원을 조사해 지역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습하면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다. 이처럼 지역대학 협력은 재단과 대학이 지역의 여러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순환시키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구분	학교명 / 과목명		내용	참여인원
2021	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교육원 <입체조형>		성북구민여성회관 B.I. 및 사인에이지 디자인 프로젝트	13명
	서경대학교	<지역문화컨설팅/문화예술교육개론>	지역문화콘텐츠 창출 프로젝트 및 지역문화현장 활동가 연계 특강 등	54명
		<문화콘텐츠현장실습/문화예술교육론>	지역문화콘텐츠 창출 프로젝트 및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58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의 무대적수용>		전통연희수업을 통한 공연제작	86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문화기획실습종합설계>		지역문화맵핑 및 거점공간연구를 위한 현장탐방	8명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도시문화세미나>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탐구 세미나	18명
2022	국민대학교	<창의융합프로젝트 스튜디오>	도시문화컨텐츠 전문가 특강 및 프로젝트 기획	19명
		<성북컬쳐&글로컬 인스티튜트>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 프로젝트 기획	4명
	동덕여자대학교	<현대미술과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예술현장 이해를 위한 미술관 탐방 및 큐레이터 특강	34명
		<졸업작품, 논문>		27명
	서경대학교 <브랜드와 이미지>		문화도시 홍보 브랜딩 및 프로젝트 기획 등	35명
	성신여자대학교 <지역문화, 문화도시>		성북구 문화도시 연계한 전문가 특강 및 현장탐방	11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문화기획실습종합설계>		지역축제와 연계한 도시문화프로그램 특강 및 현장탐방	7명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 성북문화재단 / MOU 체결		지역사회 기반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8개 기관
총 참여인원(협약 기관 제외)				374명

동덕여자대학교 권진규 아뜰리에 탐방

동덕여자대학교 - 미술관 탐방 및 전시기획 특강

서경대학교 문화도시 브랜딩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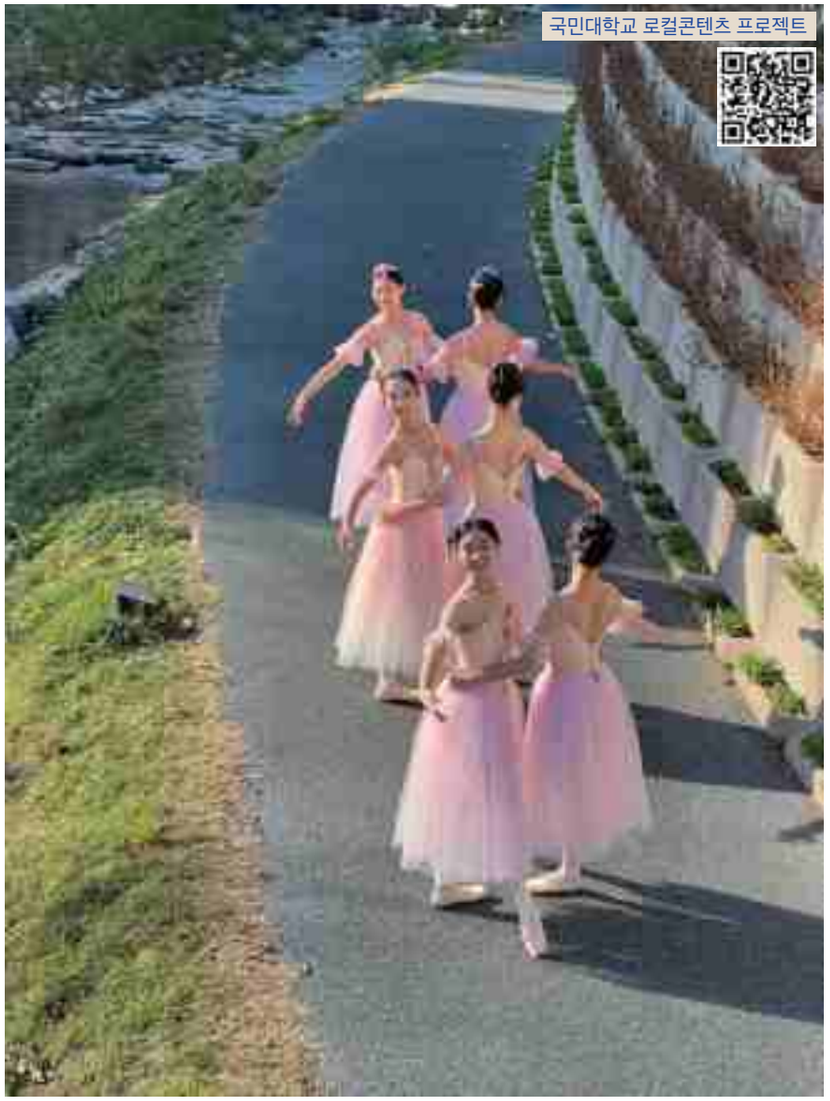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교육원 BI 디자인 프로젝트

서울시립대학교 지역거점공간 탐방

성신여자대학교 최순우옛집 탐방

한국에술종합학교 연희공연 기획

국민대학교 프로젝트 발표


국민대학교 로컬콘텐츠 프로젝트

생활문화거버넌스 ‘성북생활문화살롱20’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생활문화거버넌스 ‘성북생활문화살롱20’은 성북구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생활문화활동 발굴 및 지원,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북구만이 가진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성북형 생활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 <성북 뭐든지 중개소> 운영/ 중개소 요청 13회/ 공간 요청 2회/ 모임요청 3회 / 동네예술가 요청 20회
2. 성북생활문화플랫폼<성북생활문화살롱> 구축 및 운영/ 2021~2022 기준 943명, 7185회 조회
3. 성북지역공간네트워크 구축 : 13개 공간 기반 정기모임을 운영/ 지역공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포럼 2회 운영
4. 생활문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역 중간지원조직 및 협력기관, 단체, 공간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는 관계 구축(21개)
5. 성북생활문화기획단 운영 : 성북구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자원 연계를 위한 3~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 운영
6. 지역축제 연계 협력프로젝트 : 성북구 대표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성북구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인의 활동 기회 확장을 위한 연계 활동 지원

2017년부터 시작된 ‘성북생활문화살라오’의 사업으로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동아리, 공간, 모임들을 만나고 이를 기반으로 성북생활문화플랫폼 ‘성북생활문화살롱’을 구축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반을 온라인상에 마련하였다. 또한 ‘성북뭐든지중개소’를 22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성북구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중개소가 되어 시민의 문화적 욕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오프라인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성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소년, 청년, 복지, 마을, 사회적경제 등의 8개 기관들과 지역에서 다양성이 넘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 13개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축제 및 행사(성북진경, 누리마실, 정릉더하기 축제 등)와 협력하고 있다.

어린이날 100주년 뭐든지 플레이 프로그램 운영

성북공간 공론장 운영

성북공간네트워크 모임

성북공간네트워크 모임

성북생활문화 기획단 모임

성북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문화, 공간, 사람이 연결되는 문화도시 기반구축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성북의 다양한 영역의(생태문화+역사문화+도시재생+생활문화공간+예술창작공간) 지역문화자원(하드웨어, 휴먼웨어, 콘텐츠웨어)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사업중심에서 벗어나 생태적, 역사적, 일상적, 접근을 통해 지역 내 삶-문화의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결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자원들의 연결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술의 일상적・지속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동북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였다.

1) 오픈 스페이스 페스타

- 기간 : 2022.10.18. ~ 10.30.(13일간)
- 참여인원 : 20,435명/ 참여공간 : 31개/ 진행프로그램 : 47개(연계프로그램 2개 포함)

2) 문화예술 공간 네트워크

- 기간 : 2022.01. ~ 12./(15회)
- 참여인원 : 187명/ 참여공간 20개소
- 공간 네트워크 포럼 2회 개최

3) 동북4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간 : 2022.04. ~ 12.(8회 모임)
- 참여인원 : 93명 참여/ 참여공간 6개소
- 동북권 열린대학 포럼 1회 개최

4) 협력과 연결을 위한 <성북 문화도시 시민원정대>

- 일시 : 2022.06.30.
- 방문장소 : 춘천시 일대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공간
- 참여자 : 100명

미인도 칸타빌레 ver.2

문화도시성북 뭐든지 공론장

지역협력전시 곳곳

월장석 대축제

2022 오픈 스페이스 페스타

성북문화도시 x 춘천문화도시 시민원정대 단체사진

성북지역공간 네트워크모임

동북권 열린대학 포럼 진행 사진

2022
OPENSPACE FESTA
성북진경;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2022 성북진경: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2022.5.3.(화)
16:00 - 18:00

성북 문화도시

2022년
동북권 열린대학 포럼

2022년
동북권 열린대학 포럼

성북진경x오픈스페이스 페스타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소식, 정보를 연결해왔던 플랫폼 축제 성북진경은 코로나 확산으로 잠시 쉬는 시간을 거친 후, 성북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성북진경x오픈스페이스 페스타로 재정비되었다.

6개의 공간을 방문하는 개막릴레이토크쇼로 시작된 21년은 13개 공간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던 문화예술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31개 공간과 함께 했으며, 익숙했던 카페, 도서관, 마을문화공간, 거리에서 펼쳐진 공연・전시・체험・워크숍으로 문화와 사람, 공간을 연결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의미있는 시도들이었다.

축제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공간 운영자들이 모인 성북공간네트워크와 공동 기획 및 운영했다. 동네를 발견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 문화예술공간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겹쳐져 있음과 이들이 성북을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구분	참여공간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2021	13	16	1,500
2022	31	49 (지역연계행사 포함)	20,435 (지역연계행사 포함)

미인도 칸타빌레

씨어터 레스토랑

콧바람 수업

성북진경 x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2021
11.23화 — 27토
성북구 일대

2021 성북진경X오픈스페이스페스타는?

성년창업실험공간
아토모
2022 성북진
오리랩하우스
엘마드랩
음악심리연구소 선물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성북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의 대표 축제이다. 음식을 넘어 각국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다양성 주체들과 함께 인종, 민족, 국가,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 축제로 매해 거듭나고 있다.
21년 누리마실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록 서로 마주보는 즐거움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지역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였다.
22년 누리마실은 '우리를 구할 가장 가벼운 맛'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상의 기쁨을 회복하고 코로나로 겪었던 여러 상실을 애도하며,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축제로 주민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세계음식과 체험, 전시, 마켓, 퍼레이드 속에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함께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2021]

일시 : 2021.11.12.(금) ~ 11.14.(일)
장소 : 성북구 일대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공간 : 50개 (문화예술공간 25개 / 지역가게 25개)
프로그램 수 : 43개 (사전프로그램, 5개 주제)
참여단체 : 34개 단체 (지역예술단체 17개/ 주민커뮤니티 및 활동그룹 12개/ 협력기관 5개)
대사관 : 대사관 11개 / 문화원 1개 (15개 국가)
청소년 온라인 축제 기획단 모집 및 운영 : 24명

사전프로그램	함께 살 궁리	함께 이야기 할 궁리	예술로 함께 할 궁리	함께 맛있는 궁리	함께 놀 궁리
3개	3개	7개	10개	14개	6개

[2022]

일시 : 2022.09.25.(일)
장소 : 성북구 성북로 일대
참여자 : 총 36,000여명
참여단체 : 117개

세계음식요리사 (대사관)	동네남다른요리사 (일반음식)	우주별별체험 (체험, 놀이)	지구살림마켓 (플리마켓)	홍보 및 캠페인	개막공연 및 퍼레이드, 전시
11개국	25팀	11팀	20팀	3팀	7팀

2021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22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22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22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지역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순환

공유성북원탁회의는 2012년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제안을 통해 준비모임이 시작된 이후 10여년의 세월동안 지역 안에서 과거를 함께 이야기하고, 현재를 발견하고 미래를 위해 행동해왔다. 호혜를 기반으로 지역을 아끼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유성북원탁회의는 현재 400여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자율성・민주성・연대성・다양성의 4가지 기본원리 아래 지역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형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선출되는 2명의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을 중심으로 매달 운영위원회와 전체모임을 진행하며 사업주체이기보다는 우정과 협력의 오픈커뮤니티이자 지역 이슈에 대한 공론장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워킹그룹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코로나 속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전체모임을 통해 문화도시 성북, 기후위기, 공공미술 등의 주제 발굴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22년에는 성북의 다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내용 공유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대하며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구분	운영위원회	전체모임
2021	11회 / 157명 참여	10회 / 345명 참여
2022	12회 / 172명 참여	10회 / 723명 참여

협치를 위한 자치규약 워크숍

문화도시 성북 정책 전람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공탁! 오랜만에 한 잔 어때요?

동네 친구들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황지원(육끼)_2022년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어제는 성평등 관련 주제와 시상식을 엮어 의미 있게 구성해보고자 12월 전체모임 담당 운영위원과 장소와 예산을 의논하는 통화를 나눴다. 이번 달 전체모임인 오늘은 동네친구들과 모여 '기후위기'를 주제로 비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룰렛게임을 통해 한달 동안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해보자는 약속도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마을 모임이 이렇게 건전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음식을 만들고 룰렛 게임을 하면서 "아 재밌다! 더 많이 모였으면 좋았겠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연신 들렸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모이기 어려웠는데 이제야 비로소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탁)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설레고 기뻤다.
올해 초 공동위원장이 되고 나서 동네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공탁이 예전처럼 다시 북적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즐거웠던 그때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 막연한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탁의 즐거움이 확장될 수 있을까.

"공탁 활동의 다양성 확장"

8년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월1회 공탁의 전체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가끔 참여하는 사람도, 성북에 살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오면 공탁의 분위기를 알고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모임이 필요했다. 올해는 공탁의 의미를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416 공동행동, 지방선거 정책제안, 문화도시 공론장, 맥주 파티, 성북구 축제 이야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의 모임을 운영했다. 덕분에 달마다 만난 새로운 친구들의 이름과 별명을 알게 되었다.

"운영위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역할 분담 진행"

올해는 스물다섯명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했다. 모두 자율적인 참여로 모인만큼 첫 운영위원회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담당을 나눠서 월별 전체모임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담당을 맡은 운영위원들은 모임 홍보부터 진행까지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과 일상적으로 연결되었고, 함께 준비하는 운영위원들 사이에도 마을의 동료로서 한 번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탁의 자체 재원 마련의 가능성 확인"

공탁의 재원은 운영위원들의 월 1만원씩 정기후원과 개인(단체)의 후원이 기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곳간은 넉넉하지 못하다. 올해는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동네친구들의 기부물품으로 분수마루광장에서 공탁마켓을 열었고, 단순한 후원 마켓이 아니라 공연과 놀이 프로그램 등을 해 하나의 축제가 되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았지만, 우리가 채운 건 목표금액뿐만이 아니라 더 큰 우정과 친구들의 환한 웃음이었다.

"공탁 사무국의 안정화 모색"

공탁에서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올해 새롭게 대두된 화두가 아니다. 사무국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국장의 활동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매우 약소하지만, 그래도) 월 활동비를 정례화 하였고 향후 재원조성의 목표를 다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되었다.

"공탁 운영의 개방성과 상호 소통 활성화"

성북에는 공탁을 중심으로 수많은 모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공탁 초기 이후 뜸해졌던 공탁 운영위의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활동을 회복하였다.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활동소식을 모아보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정리, 공탁 단톡방(현재 398명 활동 중)에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마을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 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 추진"

2022년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대활동에 공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이다. 지역 내 복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고 연대하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탁 친구들이 함께 했고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등 지역사회 내의 일상적인 연대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따.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같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같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놓은 게 아니다. 다 같이 하나하나씩 쌓아올린 결과물들이다. 지금의 공탁은 십년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동네친구들이, 새내기로 들어와 조화롭게 참여한 새로운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모인 둥근 테이블(원탁)이다.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다음 달 사무국에서는 이후 활동을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볼 참이다. 공탁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들 말이다. “공탁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공탁 운영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확장해보자”, “성북구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시민정치를 실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탁 구성원들의 일상적 교류와 즐거움을 확산해 보자”.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이듬해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우리만의 룰이 있다. 내년에 다시 운영위원으로 돌아가면 나는 공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언제든 편안하게 모이고 드나들 수 있는 공탁만의 공간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연락이 뜸한 동네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밥 한 끼, 술 한 잔 하는 모임이 생겼다고 꼬셔내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것은 내가 올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계기가 되었고,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낯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건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 따라 공탁에 갔다가...

허혜윤(야호)_2021년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봄에 친구를 따라 공탁에 갔다. 정확히는 동네 친구 토스를 따라서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올 한 해 운영위원장을 뽑는 회의에 갔다. 토스는 동네에서 공탁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월장석친구들에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도, 동네에서 오래 보고 만났지만 공탁을 잘 모르는 나 같은 친구들에게도. 토스는 공탁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만나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한다. 한창 말하고 난 다음 "월장석친구들도 공탁에서 시작했다니까, 재미있는 모임이야." 하고 덧붙인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자주, 많이 공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토스의 설명은 날이 갈수록 풍부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공탁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약간씩 변주하며 만나는 사람에 맞는 설명을 풀어낸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 고민하던 나의 말에 토스가 다시금 공탁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한 4년 정도 듣고 있자니 나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다. "자꾸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탁이 뭐야? 네 설명은 이제 지겹게 들었으니 나는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은 마음이었다. 그맘때 학교를 졸업하고 이 동네에서 먹고 살길을 찾아봐야지 하고 여러 일들을 벌이고 있던 참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모여 아트라운지 쌀이라는 문화예술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상월곡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커뮤니티 월장석친구들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기도 했다. 공탁에 가봐야지 했던 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데 얼굴을 잘 모르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첫 회의 자리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이 될 줄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1) 월장석친구들 : 상월곡에 있는 천장산우화극장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마을만들기 커뮤니티.
2) 아트라운지 쌀 : 상월곡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동네에 살고 있는 9명의 예술가와 기획자가 운영한다. '쌀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른다.

강남구청장이 된 꼴이라고 해야 하나. 친구 따라 놀러 간 오디션 장에서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 어느 연예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같이 간 친구랑 함께 합격했다는 말에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나는 토스와 함께 2021년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되었다.

처음 공탁에 온 내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공탁의 조금 특이한 선출 방법 때문이다. 매년 두 명의 운영위원장을 뽑는다. 한 명은 투표로 한 명은 신탁으로 선정한다. 포인트는 신탁에 있는데, 신이 점지한다는 마음으로 사다리타기를 한다. 신탁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나는 친구들이 이 과정에 놀이의 방식을 녹여낸 거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그리 무겁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 신이 뽑았으니 네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함께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펼쳐봐.'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인 누가 되어도 좋다는 우정과 신뢰가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 방법이 계속 유지 되는 이유는 아주 웃기고 즐겁기 때문일 거다.

나와 토스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던 날도 굉장히 이상하고 웃긴 날이었다. 먼저 투표로 토스가 먼저 선정되었다. 그리고 토스가 사다리타기로 함께할 공동운영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다. 화이트보드에 사다리를 그리는 동안 나머지 운영위원 친구들은 숫자가 적힌 종이를 하나씩 뽑았다. 토스가 사다리 타기로 뽑은 숫자는 6이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숫자가 6인지 9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처럼 6인지 9인지 알 수 없는 쪽지를 뽑은 다른 한 사람은 박과장이었다. 쪽지 두 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게 6이고 9인지 한참을 씨름했다. 이 숫자를 적은 사람은 누구냐부터, 다음에 할 때는 위아래 구분 표시를 해야겠다면서 이야기를 왁자지껄 나누다가 칠판에 적힌 숫자와 비교하기까지 이르렀다. 내가 가진 쪽지가 칠판의 6과 더 닮아 있어 최종적으로 내 쪽지가 6이 되었다. 6과 9를 판별하는 과정은 사실 누가 먼저 자신의 숫자를 6으로 인정할 건지 묻는 것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나는 내 쪽지를 6으로 인정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이 되었다. 기시감! 두 명의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은 투표, 한 명은 신탁! 토스가 신탁으로 뽑은 야호! 바로 한 달 전 월장석친구들 안에서 같은 장면이 있었다. 월장석친구들의 우화 학술 세미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코디네이터를 선출했고, 투표로 뽑힌 토스가 뽑기로 나를 뽑았다.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창 웃더니 둘이 운명이라며 머리에 리본 달린 머리띠를 씌워줬다. 공탁의 공동운영위원장, 월장석친구들의 공동코디네이터, 아트라운지 쌀의 공동운영자까지.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토스와 함께 전임 운영위원장인 노디와 오배에게 수고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만년필을 건넸다.

공동운영위원장을 뽑을 때 느꼈던 기시감은 공탁에서 활동하며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월장석친구들과 공탁의 닮은 점을 하나둘 발견하며 '뭐야, 너무 비슷하잖아!' 했더라. 지역의 의제와 개인이 나누고 싶은 관심을 공유하며 분과 모임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모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월장석친구들 안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 혹은 스터디가 시작되거나 운영되는 모습을 떠올렸다. 운영위원들의 회의는 월장석친구들의 정기모임과 연결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의 소식과 이슈를 공유하며 나눈다. 매주 만나는 월장석 친구들의 정기모임이 좀 더 일상적인 단위의 일과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간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네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나누는 이야기의 결이 어딘가 닮아있다. 공탁 사무국은 두 명의 코디와 재단 친구 설이 함께하는 회의의 풍경과 이어진다. 정기모임에 이야기 나눌 것들을 모으고 장소를

정하고 공지 글을 만들어 게시한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 자리를 만든다. 공탁 MT는 월장석친구들의 우화학술세미나로. 여럿이 모여 일을 진행하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실무적인 회의 단위가 있고 함께 워크숍을 하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구조나 절차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토스의 말을 떠올린다. “월장석친구들도 공탁에서 시작했다니까” 월장석친구들에는 어딘가에서 경험하고 온 재미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풀어놓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그것들의 출처가 공탁이었군 했다.

다르지만 닮은 점을, 닮았지만 다른 점을 헤아려 본다. 공탁은 깔때기에 이야기와 소식이 모이는 것 같고, 월장석친구들에서는 한 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부채꼴 모양을 한 것 같다. 큰 틀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생각을 펼쳐내는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왜냐하면 두 커뮤니티 모두 느슨함과 유연함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두 공동체는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 간다. 모여서 축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공연도, 전시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운동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고, 노래도, 춤도 추고, 밥도 먹고 보드게임도 한다. 하는 게 정말 많다. 동네에 가볍게 모여 가볍게, 가볍게 모여 무겁게 흩어질 때도, 무겁게 모여 무겁게, 무겁게 모여 가볍게 헤어지길 반복하며, 끝엔 다시 만날 인사를 한다. 지역을 놀이터와 일터로 교차시키며 삶의 현장으로 빚어낸다.

친구 따라 공탁에 왔다. 생각해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친구를 따라서 왔다. 나를 공탁에 초대한 토스도 마찬가지!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따라오게 될지, 그 사람, 엄청 환영해 줘야겠다.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동네에서 잘 살아보고 있어야겠다.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성북구립도서관

성북구 한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네트워크 : 온
이야기청 성북
북스타트
성북 U-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 도서관총회 활성화
- 월곡 인문학동행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글빛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글빛도서관

성북구립도서관

비전 2020+

슬로건	내 곁에 함께 하는 도서관
비전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도서관
미션	개인-이웃-사회를 잇는 지식정보플랫폼 강화
핵심가치	다양성 : 개인의 고유성 존중과 확대 (균형/풍요) 상호성 : 서로 연결하여 풍요로운 공동체 형성 (공존/풍요) 포용성 : 소외와 배제 없는 지역사회로의 변화 (균형/공존)
행동원칙	소통, 협력, 신뢰
4대 전략 방향 및 8대 핵심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예시: 한 책,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습공동체,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② 세대별, 개인별 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예시: 도서관이용자 조사, 생애주기 도서관별 프로그램, 북스타트, 북큐레이션(컬렉션), 정보서비스 개발 등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① 다양한 커뮤니티 확대 및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 예시: 독서동아리 활성화, 한책추진단(운영위원회) 운영, 책모꼬지, 마을in수다,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인 아카이브 등 ②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예시: 재단 내부 협력, 도서관 기반 네트워크, 서울시 및 관내 도서관 협력 등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①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예시: 소외/지식정보취약계층(여성, 노인, 구직자 등) 서비스 강화,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서비스 개발 등 ②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예시: 전자책 구입, 모바일서비스 개선, 공유 개방공간 확대, 다문화언어 제공,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등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① 사람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예시: 성과평가 체계 개발 및 운영, 도서관별 거버넌스 운영 혁신 사례 개발 등 ② 조직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예시: 도서관 직원 전체회의, 직원 재교육,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등

성북구립도서관은 “내 곁에 함께 하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과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통해 15개의 구립도서관이 일관성 있게 같은 목표를 향해 성장해왔다. 이는 단순히 책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거점으로 끊임없는 지역 이슈 발굴부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성북구 한 책 읽기

‘성북구 한 책 읽기’는 지역 주민이 함께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는 우리구 대표 독서 운동으로, 한책추진단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함께 읽고, 경험하고, 토론하고 있다.
특히 성북의 ‘한 책 읽기’ 운동은 한 권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성북구 한 책을 뽑기 위해 1년 동안 성북구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 한 책 읽기 주요 사업

한 책 후보도서데이	안 읽어도 할 수 있는 문턱 낮은 독서토론
더드림 서비스	성북구 한 책 최종후보도서 및 올해의 한 책 특별 대출 서비스
최종선정토론회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기 위한 대토론회
한 책 작가와의 만남	올해의 한 책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한 책 선정	어린이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린이 한 책 선정 및 관련 프로그램 진행
청청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한 책 프로그램

한 책 사업 추진과정

310권	10권 → 4권	4권	1권	1권	1권
후보도서 추천	**1차/최종 후보도서 선정**	**최종후보도서 연계 행사**	**최종선정토론회 및 투표**	**성북구 한 책 선포식**	**올해의 한 책 연계 행사**
주민, 독서회, 사서 추천	도서관 한책담당자 및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	작가와의 만남, 토론회 등 후보도서 콘텐츠 제공	온·오프라인 최종선정토론회 및 투표 진행	주민 투표 결과 개표 및 선포식 진행	올해의 한 책 연계 행사 및 토론회 진행

◎ 성북구 어린이 한 책 선정 과정 별도 (관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연계)

작가와의 만남

성북구립도서관 '작가와의 만남'은 지역주민 관심사, 시대적 이슈와 맞물리는 주제를 다룬 문학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학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고, 도서관은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1. 2021 작가와의 만남 총 6회 비대면 운영 / 온라인(줌, 밴드 등) 채널 진행 / 175명 참여
2. 2021 작가와의 만남 영상콘텐츠 2개 제작 / 유튜브 24시간 공개 / 579회 시청
3. 2022 작가와의 만남 총 4회 운영 / 유튜브 송출 및 대면 진행 / 1,665명 참여
4. 2022 작가와의 만남 영상콘텐츠 4개 제작 / 유튜브 공개 / 3,420회 시청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작가를 조사하고 직접 반영하여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전한 운영과 더불어 작가 선정과 구성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2022년에는 이런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 유튜브를 통해 지역적 관심이 높은 성북구 한 책 후보도서 작가와의 만남을 라이브, 녹화공개 방식으로 운영했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녹화 시 현장참여, 오프라인 작가와의 만남 등의 추가 운영을 통해 직접 작가와 대면하고 싶었던 주민들의 요구가 해소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2021 <박준 작가와의 만남> 녹화 현장

2021 작가와의 만남 <천선란 작가와의 만남> LIVE 현장

2021 작가와의 만남 <김소영 작가와의 만남> LIVE 현장

2021 <이슬아 작가와의 만남> ZOOM 강연 현장

2022 작가와의 만남 <이유리 작가와의 만남> LIVE 현장

2022 작가와의 만남 <이현석 작가와의 만남> 녹화 현장

2022 작가와의 만남 <최은영 작가와의 만남>

네트워크 : 온

성북구립도서관을 기반으로 마을의 기관 및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을의 자원과 정보가 순환하는 장을 만들었다. 도서관 별 네트워크:온에서는 지역의 정보, 현안 공유를 바탕으로 연계활동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2021년

1. 구성현황 : 7개 도서관, 8개 네트워크 / 103단체 / 247명

2. 추진현황 : 총 156회 / 1,694명 참여

[2022년]

1. 구성현황 : 10개 도서관, 12개 네트워크 / 135단체 / 266명

2. 추진현황 : 총 324회 / 3,287명 참여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갖는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성북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혼자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도서관은 지역의 정보를 나누는 곳,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곳,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곳이 되었다.

[네트워크:온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일부 발췌]

도서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잘 몰랐던 다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분위기를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어쩌면 도심 안에 이미 빽빽한 고층 건물, 난개발로 인해 **'마을'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북구립 도서관은 민관 주도 하에 마을 안 도서관 존재의 의미를 잘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검다리. **주민과 주민을 잇고 마을과 주민을 잇고, 주민과 기관을 잇고, 나아가 만나기 힘들 것 만 같았던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오작교 같은 느낌이에요**

더 많은 주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나누는 충만감도 늘어날 것만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이런 모임이 나의 생활에 사소한 변화를 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사회에 변화를 줄 것만 같은 기대감.**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온 홍보 카드뉴스 '반짝부록'

성북길빛도서관 네:온 '길빛로 52' 모임

성북정보도서관 네:온 '히히살롱' 연계 2021 <도서관은 원두막>

종암동새날도서관 네:온 '동네꼴딴지' 협력활동

이야기청 성북

이야기청 성북은 지역 노인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가 경청하고, 기록해 새로운 문화예술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이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예술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교감하는 계기의 이야기청 성북은 매년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끌어내며 성장해나가고 있다.

[2021년]

1. 참여예술가 : 5명 / 참여노인 : 2명
2. 결과공유회 / 3회 / 누적 4,659명 참여

[2022년]

1. 참여예술가 : 4명 / 참여노인 : 6명
2. 결과공유회 / 2회 / 누적 3,520명 참여
3. 이야기청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회의, 워크숍 등) : 총 149회 / 487명 참여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이야기청 성북 사업을 통해 성북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노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의 이야기가 청년 예술가와 만나 예술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결과공유회를 도서관에서 진행하여 예술 활동 지원 플랫폼으로서 도서관 모델을 실험하였다. 일상의 기억을 예술로 전환하고, 예술을 일상의 공간인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야기청 성북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예술을 접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노인의 삶과 교감하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고 있다.

2021·2022 이야기청 사업 포스터

북스타트

북스타트는 “책 읽는 성북” 조성을 위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워지고, 구립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성북구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북스타트데이를 통해 도서관으로 초대하는 과정은 성북구와 도서관이 태어난 아기를 환영하고 함께 키우는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북스타트데이는 단순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아닌, 양육자 간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아기들을 위해서 관내 아동복지기관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데이’를 운영 해 성북구의 모든 아기들이 그림책을 보고 즐거움을 나누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책 특강, 양육자 교육, 전시 등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북스타트 활동가를 발굴하고 조직 해 지역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돕고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육아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1. 성북구 20개 동주민센터와 협력 해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포 95%(출생아 대비)
2. 구립도서관 및 관내 작은도서관 ‘북스타트데이’ 운영: 59회, 496명 참여
3.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 4개 기관 대상 30회, 147명 참여
4. 북스타트 연계프로그램 진행: 13회, 1,626명 참여
5. 북스타트 활동가 모임 및 역량강화 교육: 13회, 156명

도서관과 성북구의 20개 동・주민센터가 협력해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95%가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었다. 매월 도서관에서 열리는 북스타트데이를 통해 아기와 양육자가 육아선배인 북스타트 활동가를 만나서 그림책을 보고 책과 함께 놀며 육아 정보를 나누었다.
또한 북스타트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자발적이고 다양한 북스타트 활동이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유아대상의 체험 전시, 그림책 특강, 양육자를 위한 강연 등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해 지역의 독서문화환경이 조성되고 도서관이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강연과 콘텐츠 등을 제작해 도서관이 가정 안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왔으며 도서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아기들을 위해 복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부모 수업,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소외와 배제가 없는 보편적 육아복지를 실현하고 양육자와 영유아가 책과 도서관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내 사회적 육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왔다.

2022 북스타트 전시 <안녕, 난 동그라미야>

2022 북스타트 전시 연계프로그램 <동글동글 나라, 동그리 해결사>

2022 북스타트데이(성북정보도서관)

2022 북스타트데이 연계 전시

2022 북스타트 활동가 역량강화 4 차시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스피치법>

2022 북스타트데이 (아리랑어린이도서관)

2022 북스타트 육아특강 <미래사회의 힘, 내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라>

성북 U-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성북구립도서관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성북구 책드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내가 머무는 동네를 기반으로 책과 도서관을 연결하여 책 읽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2021년

1. 상호대차 운영개소: 15개, 대출: 133,512건, 반납 188,230건
2. 무인예약·대출·반납 운영개소: 14개, 대출 56,045건, 반납 87,615건

2022년

1. 상호대차 / 운영개소 :15개, 대출 162,893건, 반납 253,492건
2. 무인예약·대출·반납/ 운영개소: 15개, 대출 74,300건, 반납 124,289건

*상호대차: 원하는 도서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성북구 관내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신청하여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무인예약·대출·반납: 성북구립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성북구 관내 설치된 무인기기를 통해 구립도서관 운영시간 외에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

책드림서비스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책드림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자

성북정보도서관

대지면적	2,468m²	건물	지하 2층~지상 5층
운영 시간		평일(09:00 ~ 22:00) 주말(09:00 ~ 18:00) (1, 3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2002년 성북구에서 가장 먼저 개관한 성북정보도서관은 약 21만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성인을 위한 종합자료실, 잡지와 신문, DV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정보센터가 있으며 24개국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자료실도 보유하고 있다.
성북정보도서관은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책과 정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 새로운 생각과 질문, 이웃이 만나는 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 갈 것이다.

1) 주민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 2021년 37회, 309명 | 2022년 16회, 883명

2)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

- 2021년 북큐레이션 42회, 정보서비스 10회 | 2022년 북큐레이션 52회, 정보서비스 7회

3) 도서관 네트워크

- 2021년 히히살롱: 어쩌다 도서관에서 1회, 85명,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1회, 31명
- 2022년 여름, 도서관은 원두막 1회, 199명, 성북정보도서관 마을in수다 1회, 60명

4) 북스타트

- 2021년 북스타트데이/활동가모임/회의/교육 34회 / 1,448명
- 2022년 북스타트데이/활동가모임/회의/교육/특강/프로그램 / 115회 / 2,425명

5) 성북 U-도서관

- 상호대차(2021)요청:1,961/제공:27,134/반납:8,982/타관반납:3,183
- 무인(2021):대출(건수:15,037/인원:11,132),반납(건수:19,768/인원:11,510)
- 상호대차(2022) 요청:2,469/제공:31,972/반납:10,502/타관반납:3,366/
- 무인(2022): 대출(건수:15,457/인원:11,356),반납(건수:21,242/인원:12,045)

성북정보도서관 외부 전경

성북정보도서관 내부 전경

아리랑도서관

대지면적	1,398㎡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
운영 시간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2, 4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아리랑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개관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공감하는 도서관,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1. 2021년 푸른별 지9인 프로젝트 <5단계 9개 프로젝트 > / 55회차 / 1,125명(누적인원)
2. 2022년 지역공동체 같이가치살기 프로젝트 <5단계 9개 프로젝트 > 70회차 / 1,175명(누적인원)
3. (2021~ 2022)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나도한다. 디지톡> / 12회차 / 126명(누적인원)
4. 길위의 인문학 <마을를 품은 아리랑> 10회차/145명(누적인원)

21년은 환경문제를 공통 주제로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2년에는 도서관이 마을플랫폼이 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같이 가치 살기' 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학문적 통찰력을 키우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공도서관의 교류 협력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체험실습형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에 대한 경험 확대 및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리랑도서관 외부 전경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나도한다 디지톡>

지역공동체 같이가치살기 프로젝트

길 위의 인문학<마을을 품은 아리랑>

푸른별 지9인 프로젝트

해오름도서관

대지면적	985.08㎡(연면적)	건물	지상 2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2009년 7월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한 해오름도서관은 좀 더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서(청소년, 성인)의 장서비율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이제는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시설 면에서도 2022년 노후시설 개선 및 서가 공간 최적화 작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오름도서관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다양한 영역의 생활예술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좀 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연도	사업명	회차	참여인원(누적)	비고
2021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5	280	온/오프라인
	컬러몬스터와 떠나는 감정여행	1	9	온라인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30	114	온라인
	랜선 어린이 건강교실	6	42	온라인
	산부인과에 가기 전에 듣는 과학이야기	1	45	온라인
	그림책 원화전 및 연계 책놀이 활동지 배포	9	933	오프라인
2022	도서관주간 기념행사	1	16	오프라인
	가정의 달 기념행사	2	19	오프라인
	생활예술체험 원데이클래스 <소일향>	3	32	오프라인
	여름방학 어린이 특별프로그램	8	12	오프라인
	독서의 달 기념행사	5	76	오프라인
	글쓰기 특강 <다시 읽는 좋은 문장들>	4	40	오프라인
	지역 음악동아리 연계 연주회	1	63	오프라인
	연말 기념행사	3	30	오프라인
	단체 견학 및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7	144	오프라인
	주제전시 <햇살가득 컬렉션>	7	-	온/오프라인 전시
	그림책 원화전	8	-	오프라인 전시

2021 컬러몬스터와 떠나는 감정 여행

2022 나의 이끼모빌 만들기

2022 내가 바로 해오름 유생

2022 소일향 -마크라메 행잉 만들기

2022 소일향 -센터피스 소품 만들기

2022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환경/역사 특강)

2022 대박 쉽게 읽는 어린이 한책

2022 임재희 작가 글쓰기 특강 <다시 읽는 좋은 문장들>

2022 음악동아리 연계 <도서관 속 작은 음악회>

2022 음악동아리 연계 <도서관 속 작은 음악회>

2022 연말행사 <한 해를 마무리해올> 체험 프로그램

종암동새날도서관

대지면적	724㎡	건물	지상 4층~지상 5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종암동새날도서관은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해나가고 있다.

1. 개관10주년 기념 행사 <다시, 새날> / 2021.4월~12월 / 참여자 총 702명 이상
2. 마을네트워크 연계활동 <따로따로 프로젝트2021> / 2021.4월~6월 / 참여인원 개인 206명, 가족 46팀
3. 2022 여름방학 납량특집 <오싹오싹 낭독회> / 2022.08.12. / 가족 10팀(총 27명)

종암동 새날도서관 로비

종암동 새날도서관 내부 전경

2022 여름방학 납량특집 <오싹오싹 낭독회>

2021 마을네트워크 연계활동 <따로따로 프로젝트> 보도자료

신아일보

성북구 초등학생 100여명 '환경보호' 손편지 전달

서경로꿈마루도서관

대지면적	165㎡	건물	지상 1층~2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성북구립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지상 2층 돔형의 복층구조를 가진 서경로꿈마루도서관. 1층에는 일반자료실과 영유아 도서가 있는 아기꿈방이 있으며, 2층은 어린이자료실로 아동을 위한 도서와 그림책, 다양한 주제별 잡지 등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정릉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독서회, 북스타트데이,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 여름방학 프로그램 <내 마음 행복 담기> 2회 / 20명

2022년
1. 도서관 주간 행사 <꿈마루에서 책을 잇다> 1회 / 188명
2.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마주보는 5월> 1회 / 168명
3. 특별프로그램 <시민력 100단 프로젝트> <싸이퍼와 함께하는 인체교실> / 8회 / 69명
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어린이독서회 1cm+> 16회 / 98명
5. 작가와의 만남 <찾아가는 박현숙작가와의 만남>/ 1회 / 75명

2021~2022년
1. 독서의 달 프로그램 / 2회 / 211명
2. 독서동아리 운영 / 68회 / 313명
3. 연말행사 <메리, 꿈마루도서관> / 2회 / 246명

작지만 강한 서경로꿈마루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 구성원과의 협력> 운영으로 주민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싸이퍼와 함께하는 인체교실

도서관에 휴(休) 있다

특별시민 꿈지기 시민력 100단 프로젝트

어린이독서회 1cm+

찾아가는 박현숙작가와의 만남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대지면적	433㎡ (연면적: 542.57㎡)	건물	지상 4층~5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수요일 09:00~21: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 따뜻한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석관동미리내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과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도서관 석면제거공사와 천장개선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는 소규모 대면모임을 시작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1년	
1. 반철진과 함께 떠나는 <중국역사여행>	4회 / 88명
2. 여름방학 행사 <출장! 미리내>	7회 / 55명
3. 독서의 달 행사 <성북구 한책 선수권 대회>	1회 / 37명
4. 10주년 연말행사 <우리 지구 문제>,<지구의 세포들>	2회 / 51명
5. 이슬아 작가와의 만남	1회 / 30명
6. 박권일 작가와의 만남	1회 / 22명
7. 도서관 네트워크 모임	12회 / 112명
8. 마을in수다 강좌·워크숍	3회 / 45명
9. 마을in수다 공론장 <기후위기, '우리'여서 할 수 있는 것>	1회 / 31명
10. 마을in수다 기타 활동	5회 / 124명

2022년	
1. 재개관 행사 <오늘의 미리내>	2회 / 32명
2. 환경의 날 기념 행사 <너와 나의 지구>	4회 / 94명
3. 여름방학 행사 <미리내 놀이터>	7회 / 40명
4. 독서의 달 행사 <서로 다독이는 9월>	4회 / 149명
5. 북스타트 연계 부모교육 <발달을 돕는 그림책의 힘>	1회 / 17명
6. 연말행사 <빛나는 우리>	3회 / 140명
7. (동아리 지원사업) 백은하 작가와의 만남	1회 / 25명
8. 장강명 작가와의 만남 <문학독서의 힘>	1회 / 39명
9. 도서관 네트워크 모임	27회 / 222명
10. 마을in수다 강좌·워크숍	3회 / 60명
11. 마을in수다 공론장 <10년 후 석관동(feat. 문화도시)>	1회 / 32명
12. 마을in수다 기타 활동	3회 / 114명

석관동미리내도서관은 '성북구 한책, 마을in수다, 예비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성북구립도서관 통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석면제거 및 천장 개선공사 후 전경

연말행사 <빛나는 우리>

2022 북스타트 연계 부모교육 <발달을 돕는 그림책의 힘>

마을in수다 공론장 <10년 후 석관동(feat. 문화도시)>

장강명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견학

여름방학 행사 <미리내 놀이터>

달빛마루도서관

대지면적	829.13㎡	건물	지상 2층
운영 시간		09:00-18:00 수요일: 09:00-21:00(종합자료실)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달빛마루도서관은 지역의 정보, 사람,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책을 통해 얻는 삶의 즐거움을 북돋우며, 생활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돕고, 지역 도서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정보, 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달빛주민넷, 달빛청년넷)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이 협업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다.

1. **도서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협력/ 15단체, 161명**
   - 달빛주민넷, 달빛청년넷, 독서회, 생활문화동아리
2. **인문학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 21회, 800여명 참여**
   - '밤의 인문학, 성북'포럼,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특별 문화행사
   - 청소년 독서회(우수수), 어린이 독탐단, 견학 프로그램 등
3. **달빛 아카이브: 기억과 경험의 기록/ 3회**
   - 아카이브 전시 운영, 오프닝 도슨트 및 문화체험 등
4. **공간 개선 및 정보서비스 운영/ 월 1회, 각 자료실 내**
   - 달빛 갤러리, 이달의 언어, 숨 쉬는 맘, 달마다 책장, 방시리즈

달마다책장(신착코너)

2022 달빛아카이브<밤의 인문학>

<이달의 언어>주제정보코너

달빛아카이브 갤러리

2022 달빛아카이브<밤의 인문학>

2022 <일상회복, 함께 다시>

2022 <일상회복, 함께 다시>

2022 <일상회복, 함께 다시>

2022 독서회협력, 책놀이프로그램

2022 <달빛청년넷>

달빛 아카이브: 기억과 경험의 기록

달빛마루도서관 앞 큰 길을 따라 이어지는 종암동, 월곡동, 길음2동 '마을이 지나는 노선'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나와 이웃의 삶의 노선이다. 도서관과 공동체의 이야기가 저 마다의 기억과 경험으로 남아 이어질 수 있도록 <달빛 아카이브>는 지역의 가치를 기록하고 공유, 확산, 보존하는 가교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이다.

지역대학의 청년들이 '달빛청년넷'으로 모이고, 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마을작가를 발굴하며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기록을 쌓아가는 기록들은 주제정보와 참여형 전시가 결합되어 특별하지만 친숙한 도서관표 마을기록의 생태계 조성에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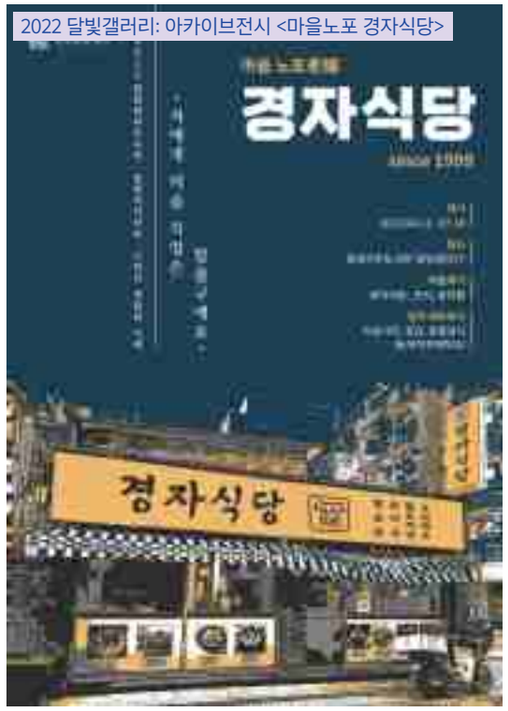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마을노포 경자식당>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 <손秀수秀작>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마을노포 경자식당>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J이야기>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 <마을노포 경자식당>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손수秀작>

2022 달빛갤러리: 아카이브전시<J이야기>

2022 <성북' 포럼>

정릉도서관

대지면적	283.31㎡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운영 시간		09:00~18:00 수요일 09:00~21: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모두에게 열려있는 담장 없는 도서관, 정릉도서관은 3만여 점의 자료와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정릉도서관 인문학 강좌 / 작가와의 만남	문화도시조성사업 [다시 만난 세대: 청년]
2021	4 / 81	-
2022	4 / 76	18 / 559

나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 및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마을의제를 드러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릉도서관 정보서비스데스크

정릉도서관 행복한서재

2021 <보선 작가와의 만남>

2022 <잔치의 시작, 지금 만날거야>

2022 <홍은전 작가와의 만남>

2022 <잔치의 시작, 지금 만날거야>

2022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만날거야>

청수도서관

대지면적	423㎡	건물	지상 1층 ~ 4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정릉 4동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청수도서관은 책과 정원이 있는 마을도서관으로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자연과 함께 사색하는 공간이다.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3대 가족도서관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소통하고 즐기는 고향집 같은 곳이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로 공유하고 나누며 꾸려나가는 커뮤니티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1. 2021 청수도서관 방학프로그램 <집콕,방콕,북(book)콕> 운영 / 4회차 / 73명(누적인원)
2. 2021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아동 체험예술 및 독서교육> / 23회차 / 126명(누적인원)
3. 2021 청수도서관 <마을in수다> 진행 및 사전프로그램 진행 / 15회차 / 132명(누적인원)
4. 2021 독서플러스(+) 생각쑥쑥 프로그램 진행 / 4회차 / 28명(누적인원)
5. 2021 영어그림책의 기적 <전은주 작가와의 만남> / 1회차 / 43명(누적인원)
6. 2021 청수도서관 연말행사<미션! 독서노트를 완성하라, 책이랑 놀자 외>/ 4회차/130명(누적인원)
7. 2022 독서플러스(+) 생각쑥쑥: 사서랑놀자/8회차/96명 (누적인원)
8. 2022 작가와의 만남(이예숙, 정은숙, 윤우상 작가)/3회차/77명 (누적인원)
9. 2022 슬기로운 ○○생활(공정무역, 커피, 건강)/3회차/60명 (누적인원)
10. 2022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슬기로운 시니어강좌/키움센터와 함께하는 여름, 겨울 독서교실 /토닥토닥 미술 책 카페/정릉 4동 그린서포터즈/70회차/1,860명 (누적인원)
11. 2022 청수도서관 「1관 1단」프로그램 마을기록 <청청기록당>/16회차/185명(누적인원)
12. 2022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놀이여행/엄마의 맛/미술놀이)/37회차/251명 (누적인원)
13. 2022청수도서관 북스타트데이/3회차/34명 (누적인원)
14. 2022 청수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책크>/5회차/53명 (누적인원)
15. 2022 청수도서관 <마을in수다>진행 및 사후프로그램 진행/10회차/200명 (누적인원)
16. 2022 시기별 행사프로그램(도서관주간/가정의달/독서의달/연말행사)/4회차/1,020명(누적인원)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회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유하며, 보다 폭넓은 소통, 공감, 나눔, 배려의 인문적 가치를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2022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사업 <청청기록당>마을기록청소년들

2022 청수도서관 마을in수다

2022 청수도서관 그린서포터즈 활동

2022 마을in수다 후속챌린지 '바다의 시작 ' 을 시작하며

2022 정릉4동 그린서포터즈의 플로깅 활동모습

2022 <메리♥해피 청수도서관>연말행사

2022 청수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매직쇼

청수도서관 케이크만들기

2022 청수도서관 청수마을놀이터

2022 어린이독서회 <책크>

2022 청수도서관 북스타트데이

2022 청수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우리 곧 사라져요>이예숙 작가와의 만남

<엄마심리수업>윤우상 작가와의 만남

<명탐견이 온다>정은숙 작가와의 만남

2022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엄마의 맛을 기록하다'

2022 키움센터와 함께하는 여름독서교실

2022 청수도서관 슬기로운시니어강좌: 스마트폰교육

2022 청수도서관 슬기로운시니어강좌: 한글, 영어교실

월곡꿈그림도서관

대지면적	340.7㎡	건물	지상 1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수, 금요일 09:00~20: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책과 음악이 있는 청소년의 열린 공간 월곡꿈그림도서관은, 개관하기까지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 번째 성북구립도서관이자 첫 번째 청소년특화도서관이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지역주민은 인터뷰를 통해 만났고, 주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마을간담회로 소통했으며,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주민이 직접 결정지은 첫 사례이다.
청소년 서포터즈 '독(讀)한 친구들'은 2017년 7월 22일 월곡꿈그림도서관을 함께 열고 지금도 도서관의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

월곡꿈그림도서관 전경

월곡꿈그림도서관 전경

월곡꿈그림도서관 : 도서관총회 활성화

청소년 총회를 통해 청소년 서포터즈 '독(讀)한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청소년들은 도서관과 마을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시민력을 강화하고 마을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021

총 7회, 189명 참여

연번	일자	주요실적	참여인원
1	2021.01.23.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재신임 평가단 평가회의	12
2	2021.02.06.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신규회원 선발 및 2021년 회원 확정	12
3	2021.02.22.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워크숍 OT워크숍	82
4	2021.05.29.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정기총회(온라인 의장선거)	54
5	2021.07.10.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상반기 임원회	8
6	2021.12.04.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하반기 임원회	8
7	2021.12.18.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연말총회	43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모임과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의 노하우를 살려 2021년에는 방역수칙에 준하여 워크숍 1회, 총회 2회, 임원회 2회, 자료집 발간 2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임시총회(7월) 1회만 취소하고, 워크숍과 임원회는 대면으로, 총회는 화상회의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아직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讀)한 친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았다.

• 2022

총 6회, 117명 참여

연번	일자	주요실적	참여인원
1	2022.02.12.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회원선발 평가단 회의	12
2	2022.02.28.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워크숍 OT	35
3	2022.05.21.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정기총회(의장선거)	27
4	2022.06.12.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상반기 임원회	8
5	2022.11.12.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연말총회	27
6	2022.12.10.	청소년 자치활동 '독(讀)한 친구들' 하반기 임원회	8

2월 독(讀)한 친구들 OT 워크숍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이후 방역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차차 대면으로 회의와 프로그램을 전환하였다. 기존에 청소년 주체들이 기획·운영하였던 청소년 축제 '기고만장'을 청소년과 지역의 다양한 활동단체가 결합하여 준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뮤지컬 단체관람, 우리동네 그림여행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2021년 OT워크숍

2021년 연말총회

2022년 정기총회

2022년 연말총회

독한친구들 자료집 발간

월곡꿈그림도서관 : 월곡 인문학동행

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월곡꿈그림도서관(공공도서관)과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대학도서관)이 협력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더불어 삶을 환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 제5회 월곡 인문학동행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 온라인 진행 : 유튜브 조회수 758회
2. 제6회 월곡 인문학동행 <은유 작가와의 만남 : 자기 언어를 만드는 글쓰기> 대면 진행 : 참여자수 63명

월곡꿈그림도서관이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여, 동덕여대 학생들과 주민 모두가 마을에서 풍성한 문화향유의 시간을 가졌다.
2021년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행사 시간이 맞지 않아 아쉬워하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2022년에는 만나고 싶은 작가와 주제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은유작가를 초대했다. 사전조사부터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이 두드러졌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생생하였다.

제5회 월곡인문학동행 <정유정 작가와의 만남>

제6회 월곡인문학동행 <은유 작가와의 만남 : 자기 언어를 만드는 글쓰기>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대지면적	694.68m²	건물	지상 1층 ~ 3층
운영 시간		09:00 ~ 18:00 (2, 4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책으로 신나게 더 신나게!"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대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일상 회복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다채롭고 유익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온 ·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하여 도서관 활동에서 배제되는 이용자를 최소화하였다.
마을 청년, 예술가와 협력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가 모여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전시를 관내 상시 진행함으로써, 어린이가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구분	항목명	참여자 수(조회 수)
도서관 계기별 특별 프로그램과 참여형 전시	도서관주간 <#지구_산_책> (2022)	419
	가정의 달 (2021-2022)	1,096
	여름독서교실 (2021-2022)	139
	독서의 달 (2021-2022)	2,193
	성교육 <성, 다르지만 같아요> (2021)	1,031
	<우리는 도서관 펜팔친구> (2022)	66
	윤담요, 최혜진 작가와의 만남 (2021)	491
	북스타트데이 (2022)	47
	연말행사 <안녕, 모두의 도서관> (2021-2022)	1,451
도서관 일상 프로그램과 참여형 전시	주제도서전시·특별전시·원화전시(2021-2022)	2,756
	우리 아이, 지금 필요한 책들만 <모아북> (2021-2022)	217
	<우리는 책친구!> (2021-2022)	1,362
	온·오프라인 견학 프로그램 (2021-2022)	2,703
도서관 협력과 네트워크	네트워크:온 (2021-2022)	144
	마을인수다 <네모랑세모랑> (2021-2022)	426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협력거버넌스 (2022)	430
	함함 프로젝트 : 손잡는 도서관 (2022)	59
	독서동아리 책꿈비, 함께 (2021-2022)	341
	도서관 청년 실습 (2021-2022)	50
합계		14,932

2021년 <지구는 우리가 필요해>

2021년 연말행사 <밤의 도서관>

상시 프로그램 <네모랑세모랑>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의 일상

2022년 <도서관 놀이터>

2022년 <도서관 놀이터>

2022년 어린이 한 책 <낭독의 발견>

2022년 가정의 달

<2022 성북구 어린이 한 책,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전시

2022년 <북스타트데이>

2022년 여름독서교실 <우리 건강 어쩔 건강?!>

2022년 여름독서교실 <우리 건강 어쩔 건강?!>

2022년 연말행사 <밤의놀당>

2022년 연말행사 인형극 <오즈의 마법사>

성북이음도서관

대지면적	166.05㎡	건물	지상 12층
운영 시간		09:00~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성북구 열두 번째 구립도서관인 성북이음도서관은 2018년 7월 27일 성북구청 12층에 개관했다. 성북구의 정책・행정・지역문화 자료를 소장하여 제공하는 지역정보 특화도서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연결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개방형의 세미나실에서는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독서회 등 다양한 그룹의 토론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1. 지역자료 아카이빙 '동(洞)동(動)서가' 시범 구축·운영
2. 초등 북아트 만들기 <내 손으로 접는 한국사> / 2회차 / 8명
3. 동동서가 아카이빙 전시 <(길음동·장위동) 친애하는 나의 집> / 1회차
4. 도서관네트워크 협력 아카이빙 전시 <역-歷세권 : 성_북아트> / 1회차
5. 지역자료 전시 <할망화실> / 1회차 / 93명

21년부터 동(마을)단위 지역정보자원 및 마을현안 정책 자료를 연계한 '모이고+분류되고+공유되는' 아카이빙을 통해 특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료 아카이빙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성북이음도서관 내부 전경

성북이음도서관 서가 & 컬렉션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대지면적	950㎡	건물	지상 2층~3층
운영 시간		09:00~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은 장위1동에 있는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늘어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과 교류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도서관 앞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오래된 향나무가 있는 넓은 마당이 있어 일 년 내내 쉼터, 놀이 공간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소한 마을축제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1. 사다리독서회 / 4회차 / 21명 (누적)
2. 낭랑낭독회 / 1회차 / 65명
3. 제로웨이스트 시즌 2 :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고금숙 작가와의 만남 / 1회차 / 17명
4. 마을in수다 <내 삶을 바꾸는 소비> / 1회차 / 54명
5. 유튜브 북콘서트 “무엇을 할 것인가” / 5회차 / 116명 (누적/ 회수 1,123회)

2022년

1. 여름방학 프로그램 / 4개 프로그램 / 127명 (누적)
2. 독서의달 프로그램 <마음 담은 그림책> / 2회차 / 18명 참석 (누적)
3. 북스타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 아이의 언어발달> / 2회차 / 26명 (누적)
4. 어린이독서 프로그램 <재미나게> / 12회차 / 80명 (누적)
5. 살롱드장위 특별 프로그램 <일상에서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다> / 3회차 / 27명 (누적)

[2021~2022년]

1. 도서관 네트워크 ‘살롱드장위’ 정기모임 / 15회 / 139명 (누적)
2.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 총8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순회사서 4명 채용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 32회차 / 312명 (누적)

기후위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고민, 양육자를 위한 정보제공,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즐겁게 머물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와 부모세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살롱드장위’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도서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마을에 필요한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전경

2021년 낭랑낭독회

2022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책 읽어주세요’연계-그림책 낭독

2022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종이접기

2022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재미나게

2021년 북콘서트 “무엇을 할 것인가?-For the Earth”
(호박이넝쿨책-야책X장위행복누림도서관)

2021년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마을in수다 “내 삶을 바꾸는 소비”

2022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종이접기

성북길빛도서관

대지면적	1,409.02㎡	건물	지하 1층~지상 2층
운영 시간		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성북길빛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유의미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연간 기획된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 큐레이션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상 속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확장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2021년

- 주제 프로젝트: 1.5℃ -

1. 어린이 독서동아리 <슬기로운 지구생활> / 6회(기초편·실천편 각 3회) / 80명(누적인원)
2. 주제 프로젝트 연계 전시 / 4회(오픈, 영상, 체험, 결산전시) / 230명(체험전시 누적인원)
3. <지화만사성(地和萬事成)> / 3회 / 33명(누적인원)
4. 가정의 달 <초록지구 히어로 실천수첩> / 1회 / 300명
5. 가정의 달 <「쩌저적」 이서우 작가와의 만남> / 1회 / 43명
6. <버려진 그림책, 이야기꽃을 피우다> / 4회 / 38명(누적인원)
7. 여름방학 독서캠프 <초록지구 히어로> / 5회 / 74명(누적인원)
8. <내 맘대로 팝업북> / 3회 / 76명(누적인원)

- 기타 프로그램 -

1. <홍민정 작가와의 만남> / 1회 / 30명
2. 가을 인문학특강 <윤홍균 작가와의 만남> / 3회(작가와의 만남 1회·참여행사 2회) / 2,754명(누적인원)
3. 북스타트 연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 아기가 만나는 첫 그림책> / 1회 / 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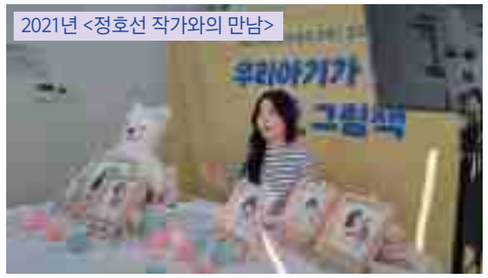
2022년

- 주제 프로젝트: 미래와의 상생;Robot[미;Ro] -

1. 주제 프로젝트 연계 전시 / 2회(오픈, 참여, 결산전시) / 568명(참여전시 누적인원)
2. 네트워크 협업 [미;Ro] 연계 공방 프로그램 / 1회 / 10명
3. 어린이 독서동아리 <로봇탐험대> / 3회 / 33명(누적인원)
4. 여름방학 북캉스 <미래로, 봇> / 2회 / 20명(누적인원)
5. 어린이 독서동아리 <가을에, 미;Ro 읽기> / 3회 / 33명(누적인원)
6. 성인 독서동아리 멘토교육 <가을엔, 함께 읽기> / 4회 / 37명(누적인원)
7. 마을in수다 연계 사전행사 <어쩌면 오늘 이야기> 1회 / 26명
8. 길빛 영화 인문학 <영화 속 우리네 이야기> / 2회 / 23명(예상 누적인원)
9. 마을in수다 공론장 / 1회 / 20명

- 기타 프로그램 -

1. <「내 마음 ㅅㅅㅎ>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 / 1회 / 20명
2. <그림책으로 행복한 육아> / 2회 / 16명(누적인원)
3.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빙글빙글 후~> / 1회 / 200명
4.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펼쳐라! 내 세상> / 2회 / 23명(누적인원)
5. 북스타트 책놀이 특강 / 3회 / 24명(누적인원)
6. 책보수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 4회 / 56명(누적인원)
7. 가을 인문학 특강 <정보라 작가와의 만남> / 1회 / 351명(현장 49, 온라인 39, 사전참여행사 263명)
8. 어르신 대상 <「치매를 부탁해」 저자 특강> / 1회 / 30명(누적인원)



2021년 <정호선 작가와의 만남>

2021년 <윤홍균 작가와의 만남>

2021년 <버려진 그림책, 이야기꽃을 피우다>

2021년 주제프로젝트 [1.5℃] 결산전시

2022년 <그림책으로 행복한 육아>

2022년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

2022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펼쳐라! 내 세상>

2022년 주제프로젝트 [미;Ro] 참여전시

2022년 <어린이 독서동아리 로봇탐험대>

2022년 주제 프로젝트 [미;Ro] 로봇서가 만들기 공방

2022년 <정보라 작가와의 만남>

2022년 마을in수다 공론장

2022년 마을in수다 공론장

2022년 주제특강 <어쩌면 오늘이야기>

2022년 치매를 부탁해

1.5℃

성북길빛도서관
2020 자원활동가 교육
; 책의 재탄생

이서우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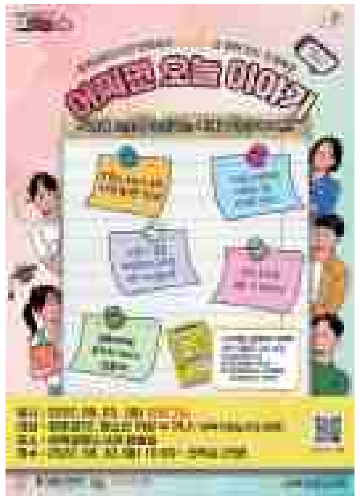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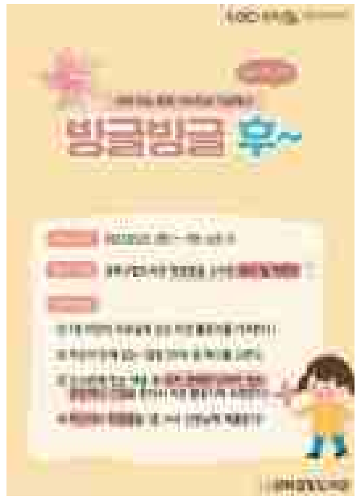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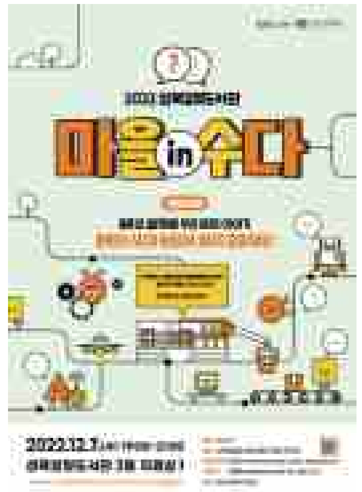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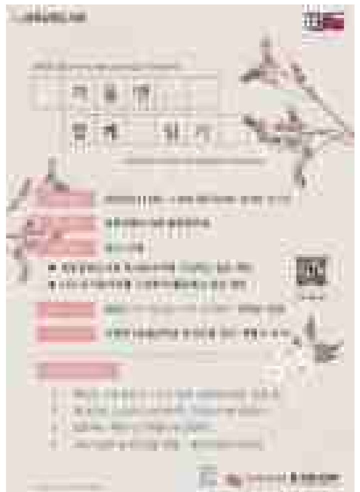
우리아기가
만나는
첫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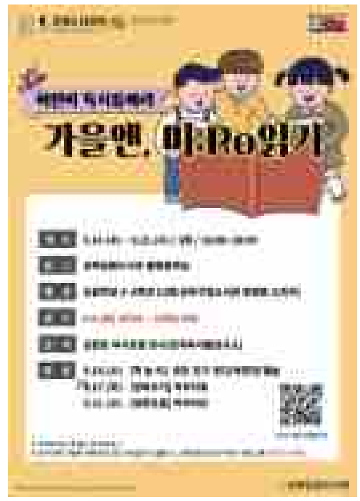
슬기로운
지구생활

홍민정
작가와의
만남

미:Ro

2022
성인 자원활동가 모집




마을in수다


그림책으로
행복한 육아

가을엔, 미:Ro읽기

글빛도서관

대지면적	923,67㎡	건물	지상 1층~2층
운영 시간		09:00 ~ 18: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위치한 글빛도서관은 2020년 12월 22일 임시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27일 정식 개관하여 운영 중인 성북구 15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의 독서진흥과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자료실1과 2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복층 구조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온라인 글빛견학관 이용자교육(메타버스 기반 가상도서관) / 9,574명(누적인원)
2. ICT 프로그램 (Kodu Game World! 외 14개)/ 59회차/ 706명(누적인원)
3. 글빛도서관 개관 행사/ 1회차 / 495명(방문자수)
4. [개관 1주년] ICT 체험전/ 1회차/ 2,334명(누적인원)
5. 성북구 어린이 ICT 올림픽/ 15회차/ 212명(누적인원)
6. 글빛문화버스킹/ 10회차/ 348명 (누적인원)
7. 오디오스트리밍 도서 구축 / 552권(총 누적권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독서문화예술이 융합된 콘텐츠 개발지원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도서관을 구축하여 비대면 견학을 통해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ICT 특화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적 스마트 기기들의 고도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글빛도서관 자료실 전경

2021 글빛문화버스킹
김유담 작가와의 만남

2021 우리동네 특파원은 바로 나

2022 어린이 ICT 올림픽

2022 ICT 체험전

2022 ICT 체험전

2022 온라인 글빛견학관

2022 ICT 시대의 핵심, 문해력

2022 메타버스 클래스

내 삶을 풍요롭게
성북문화재단 문화시설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 N 작가공모' 마무리 즈음에 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작업실 밖으로 나가 창작물과 마주 서기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안녕, 나의 미술관
거리갤러리
- 미술관 소장품 관리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미술관 콘텐츠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문화센터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10주년
꿈빛극장
꿈빛극장과 함께한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을 마무리하며
아리랑시네센터
-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인디웨이브'
-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미아리고개하부공간(미인도)
천장산우화극장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청년살이발전소
내가 만난 청년살이발전소
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성북문화재단 시설 운영 2

성북문화재단 시설 운영

성북문화재단은 영화관과 공연장, 미술관을 비롯하여 청년창업 지원 공간까지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재단의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예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낸다.

지역주민과 만나는 물리적 공간인 재단의 시설들은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으며, 현재도 안전한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

대지면적	722.8㎡	건물	지하1층/지상3층
운영 시간		화-일 10:00 ~ 18:00(전시중)	

성북구립미술관은 2009년 개관한 최초의 구단위 공립미술관으로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조망하는 독창적인 기획전시와 성북 지역의 문화 · 예술 컨텐츠를 담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며 미술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해오고 있다. 아울러 성북지역의 미술연구 및 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탐구하고, Museum Talk, 학술행사 개최 등 주민 들을 위한 생활 속 문화 향유의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기간	관람객 수(명)	보도현황(회)
<땅의 소리: 김승영>展	2021.03.25.~2021.06.27.	4,032	44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	2021.10.07.~2021.12.05.	3,628	50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展	2022.03.30.~2022.07.03.	9,777	58
<시간의 초상: 정현>展	2022.10.05.~2022.12.04.	4,090	61

성북구는 한국 근현대 예술가들이 다수 거주했던 특별한 지역으로 성북구립미술관은 성북 지역 속에 축적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조망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성북구립미술관은 이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의 주요 예술가 최만린, 서세옥, 윤중식 작품 등을 대거 기증받았으며, 현재 약 4,500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성북의 미술문화를 보존하고 한국 근현대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서세옥 기증작품의 가치를 탐색하는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과 윤중식 10주기를 추모하는 <회향>展 등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기획전시를 개최해왔다.

이 외에도 성북구립미술관 본관과 거리갤러리 공간을 아우르며 현대사회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현대미술가 김승영, 정현 등의 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전시 역량 확장과 다양한 관람객층 확보 등 일상 속 미술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 전경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 전시 전경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展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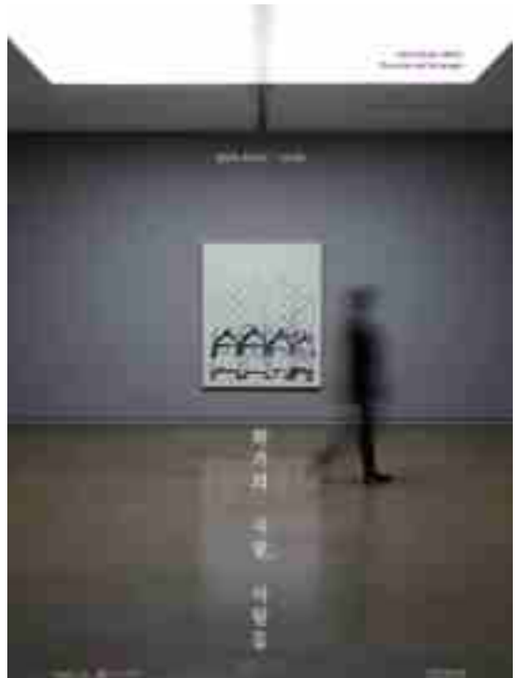
<땅의 소리: 김승영>展 전시 전경

<땅의 소리: 김승영>展 전시 전경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 전시 전경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展 전시 전경

<시간의 초상: 정현>展 전시 전경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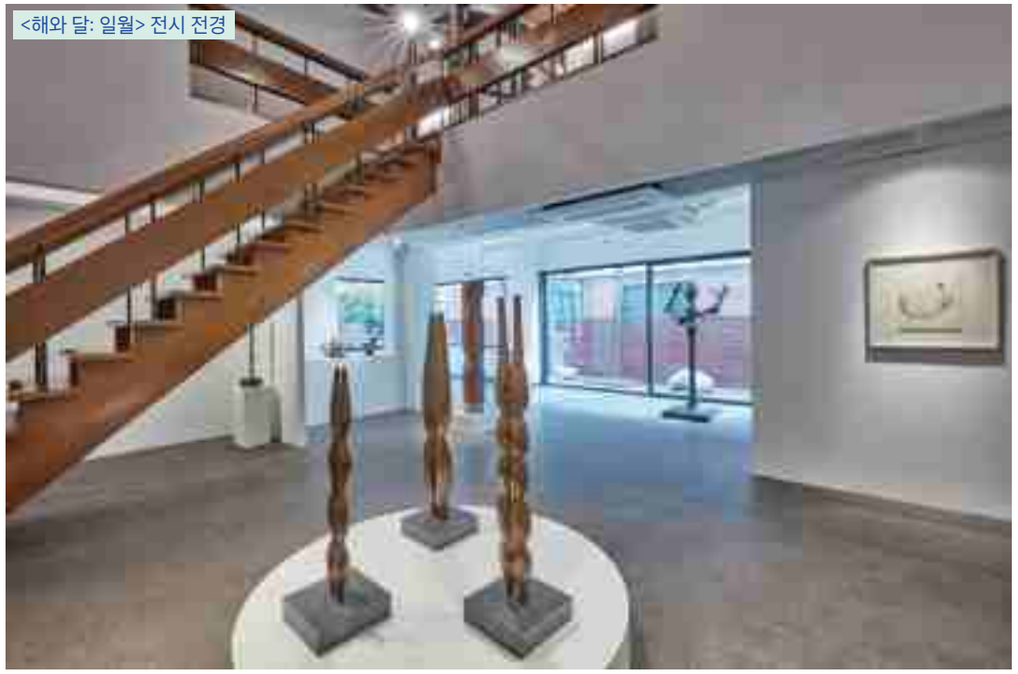
대지면적	321㎡	건물	지하1층~지상2층
운영 시간		화~토 10:00 ~ 18:00(전시중)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최만린의 정릉 자택을 매입하여 지난 2020년 8월,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은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최만린 작가가 삶의 터전이자 작품 세계를 만들어 온 작업실로 사용해 온 공간이었다.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작가 개인의 역사와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는 장소가 원형을 최대한 간직한 채 공공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례는 국내에서도 매우 드물어 그 의미가 깊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최만린 작가의 시대별 주요 작업과 관련 아카이브 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대 미술연구자 및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한국현대조각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업명	사업기간	관람객 수(명)	보도현황(회)
<해와 달: 일월>	2021.03.23.~2021.06.26.	882	19
<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2021.09.09.~2021.12.11.	1,378	32
건축x조각 기획전<감각의 시어>	2022.04.12.~2022.07.09.	2,333	28
최만린 공공조각 프로젝트 <모두의 조각>	2022.09.22.~2022.12.03.	1,011	16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는 2021년 봄 기획전시 《해와 달: 일월》을 개최하고 최만린의 추상 작품 중 특히 일월 연작을 소재로 한 작업들을 심도 있게 선보였다. 21년 가을에는 최만린 작가 1주기를 맞이하여 《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전시를 열었다. 고인을 추모하는 가까운 이들의 영상과 함께 최만린 작품을 오마주한 정원예술을 접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조각가의 집이라는 의미를 살려 조각가와 건축가를 일대일 매칭한 기획전시 《감각의 시어》를 추진,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지향성을 보여주며 저변을 확장하였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최만린 공공조각 프로젝트 《모두의 조각》전시를 진행, 공공조각 관련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 함께 최만린 공공조각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하고 공공조각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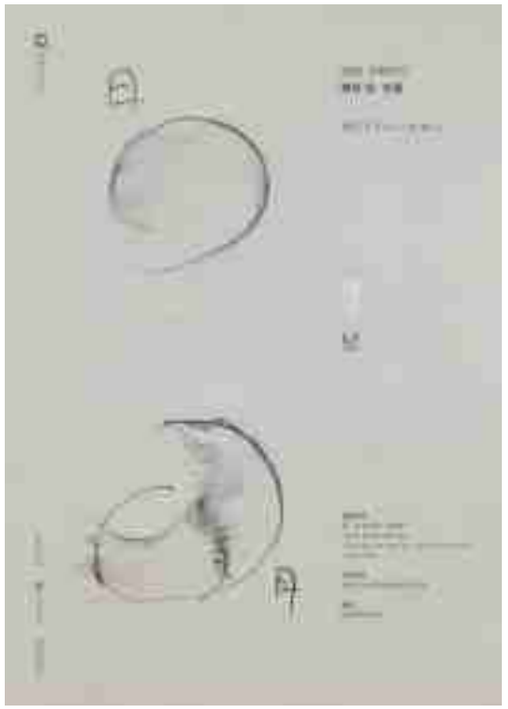

<해와 달: 일월>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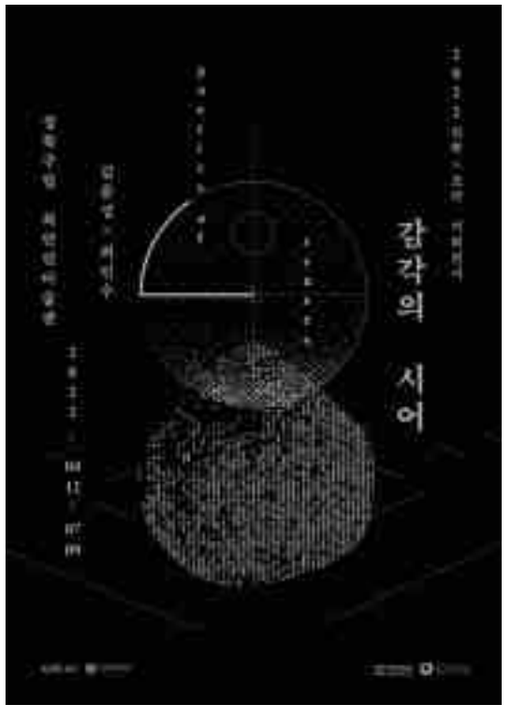
<조각가의 정원, 다섯 계절> 전시 전경

건축×조각 기획전시 <감각의 시어> 전시 전경

최만린 공공조각 프로젝트 <모두의 조각> 전시 전경

<모두의 조각> 전시 연계 프로그램 - 공공조각과 함께 하는 가을 산책





성북예술창작터

대지면적	204.76㎡	건물	지상2층
운영 시간	10:00 ~ 18:00 매주 화요일~토요일 (입장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	휴관| 매주 월, 일요일 및 공휴일 ·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	

기획전시, 작가지원 공모사업, 교류전시 등을 진행하는 성북예술창작터는 미술관·공공기관, 대안·민간 공간과의 유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북 안팎을 잇는 문화예술 교두보 역할 수행을 기조로, 동시대 담론을 견지한 특색 있는 전시, 프로그램, 연구, 아카이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각예술분야 내 다양한 창작자(작가, 평론가, 기획자 등)와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외 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기간	관람객 수(명)	보도 횟수(회)
2021 성북예술동 〈목소리의 극장〉	2021.05.25.~2021.07.24.	1,008	17
2021 성북 N 작가공모 〈구름 그림자〉	2021.09.07.~2021.10.23.	715	11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	2022.03.22.~2021.06.25.	2,041	15
2022 성북 N 작가공모 <채집-채굴>	2022.09.16.~2022.11.12.	1,201	51

한편, '성북 N 작가공모'는 20년 작가와 리뷰어를 동시에 선정·매칭 함으로써 시각/비평 창작자의 동반 성장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2년도에는 협력공간 매칭 프로젝트 N- Networking을 신설하여 영리/비영리, 지역/타지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프로그램 및 전시를 마련함으로써 선정작가 활동 영역의 확장과 미술생태계 연결 촉진을 성공적으로 견인, 지속적으로 공진화(coevolution)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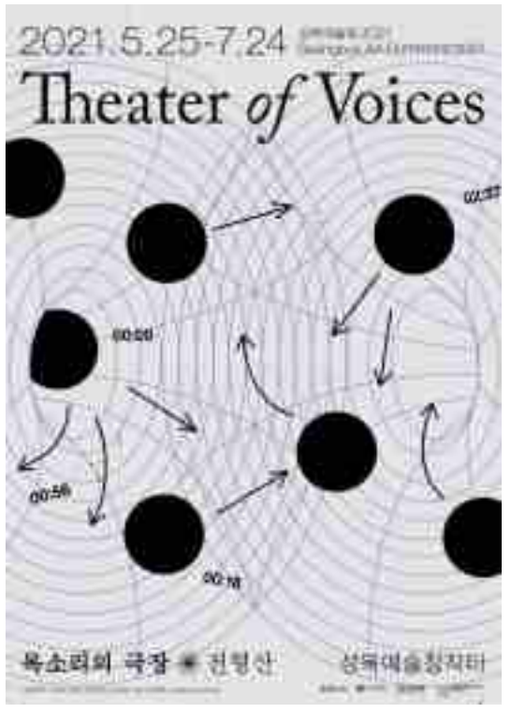
2021 성북예술동 〈목소리의 극장〉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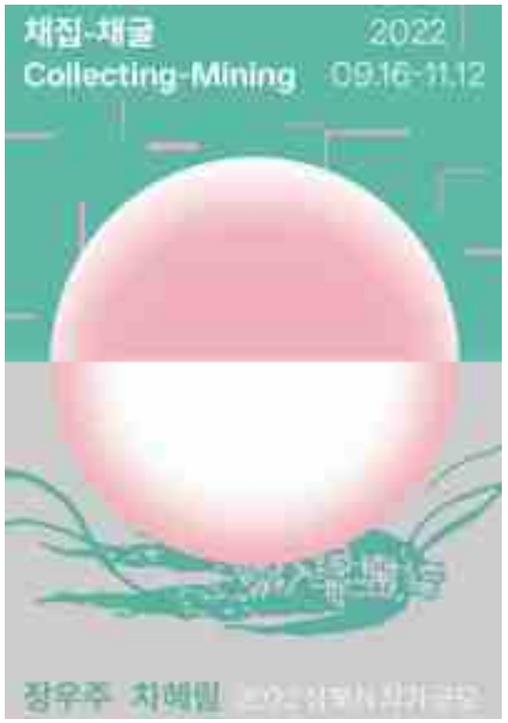
2021 성북 N 작가공모 〈구름 그림자〉 전시 전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미술관 관-학 연계 프로그램
〈쇼케이스 2021: 페르소나 사회〉 전시 전경

2022 기획전시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 전시 전경

2022 성북 N 작가공모 《채집-채굴》 전시 전경





‘성북 N 작가공모’ 마무리 즈음에 쓰는.....

장우주 (2022 성북 N 작가공모 선정작가)

저는 서울을 기반으로 설치, 영상,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건 짓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나’라는 프레임을 통해 다시 반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20년까지는 한 개인이 일상에서 소화해내는 다양한 역할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모순되는 지점들을 일상적 제스처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연결지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의 형태인 ‘복사-붙여넣기’를 미술의 영역에서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를 ‘미술작품의 공유하기와 공용하기’의 단계까지 논의를 확장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복붙’의 기술은 저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사유를 수행할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에, 이번 전시에서는 성북예술창작터 전시공간 1, 2층 자체를 ‘반복’해 보는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구현을 실현하는데 학예사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번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모든 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공모프로그램들에 참여했을 때,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에 머물거나 급하게 진행되어 이도저도 아닌 경우를 경험했었기에 참여 전후로 저 스스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었던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 N 작가공모’는 그러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어서 제게 기대만큼이나 만족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직 마땅한 활동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작가분들, 큐레이터분들, 평론가분들과의 끊임없이 연결의 장을 만들어 ‘내가 미술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되었고, 여러 방식의 교류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연을 넓히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전시, 관련된 여타 활동들은 전시를 많이 해보지 않은 저에게 있어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잦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작업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었고, 많은 주변 분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움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었다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작업, 난관에 겁먹어서 해보지 않았을 시도를 이번 공모에서 모두 해볼 수 있던 것에 대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마땅히 보장된 결과나 미래도 없고, 작업에 따른 보상이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기에, 작가들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는 데는 서로의 지지와 격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내간다는 과정을 돌이키면서 미술활동의 동력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북 N 작가공모’를 통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함께 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연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작업실 밖으로 나가 창작물과 마주 서기

차혜림 (2022 성북 N 작가공모 선정작가)

2022년 '성북 N 작가공모'를 통해 장우주 작가님과 《채집-채굴》전을 진행한 차혜림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근대의 발명품인 위생을 다루는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각 언어로 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집-채굴》전에서는 인삼을 중심으로 한약재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를 수집하여 전시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인삼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의 주요 무역품이었는데, 근대화 시기에 이르러 조선의 관광·소비문화와 뒤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일본 제국이 전시체제기로 들어서며 전쟁 물자 자원화를 목적으로 한반도의 한방 약재를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딛고 선 이미지는 어떤 계층, 누구를 위해 존재했으며, 오늘날 무엇을 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모은 사료를 오늘날 재편집하여 불러올 때 발생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선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고 특이하지요? 《채집-채굴》전에서 선보인 개항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시기는 양방과 한방이 혼재하는 동시에 외세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는 아마추어로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자료의 성격이 무거워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학, 민속학 전공자가 아니므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며 서양 의학, 신문물과 맞닿아있는 근대성을 둘러보는 데 흥미와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헌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미와 관심이 과하지 않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조사가 지속가능성이 있나.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북 N 작가공모를 통해 제 작업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장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북 N 작가공모' 전시 준비, 리뷰어 매칭과 작품 분석, '라운드 테이블'을 통과하며 제 작업의 줄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터의 위치로 인해 성북구 둘레길 관광객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작품을 감상하셨다는 점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람객 분들이 공공근로 선생님들의 설명을 재미있게 들으셨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셨다는 소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무겁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김소원 학예연구사님의 제안으로 《채집-채굴》전에서 처음으로 저의 자료 조사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워크숍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글과 참고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작품 환경에 언어를 직접 활용한 이번 경험이 저의 자료 조사와 표현 방식의 거리를 한 뼘 더 좁히고, 작업에 설득력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협력공간 매칭프로젝트 'N-networking'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 흐름을 엿보며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있어,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되새겨보며, 제가 어떤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가는 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작업에 대한 태도를 정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열려있는 형태로 가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세밀해졌습니다.

2022년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저 자신에게 느낀 부족함도 있습니다. 워크숍과 네트워킹이 시작되는 시기에 무리하게 신작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면 더욱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사람과 부대끼는 경험이 낯설다 보니 체력 소모를 가늠하지 못해 놓치는 부분이 생겨 아쉬웠습니다. 이번 '성북 N 작가공모' 과정처럼 신·구작을 둘러보며 새로운 작품군을 고안하고,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긴 호흡으로 나눌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생긴 아쉬움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성북 N 작가공모' 전시 준비를 함께하며, 작업 언어가 자리 잡는 시기에 다수의 전문가분과 협력하고 체계를 알아가는 귀한 경험을 얻어갑니다. 아직은 이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양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난 시간 받았던 응원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대지면적	337.94㎡	건물	5층(단층)
운영 시간		10:00 ~ 18:00	

자치구 최초 공립 어린이미술관인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이하 꿈자람)은 2019년 8월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하였다. 어린이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의 예술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필요는 성북구립미술관이 개관 이래 지속해온 '어린이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을 통해 이어져 왔으며, 꿈자람의 개관을 통해 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천장산 자락과 맞닿은 자연 속 미술관 꿈자람은 그야말로 예술과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이 좋은 자양분을 얻어 정서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관과 극장, 미술관이 모두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방문자에게 복합문화아트센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사업명	사업기간	관람객 수(명)	보도 횟수(회)
<이리듐에이지: 새 친족 만들기>	2021.05.14.~ 2021.07.17.	1,023	130
<그림X책: 블루 허밍>	2021.10.26.~ 2021.12.30.	1,151	141
SMA 아뜰리에 <아하, 우리!>	2022.03.22.~ 2023.02.04.	7,950	60
SUMMER PROJECT <백기은: 퐁퐁퐁 비행>	2022.07.26.~ 2023.02.04.	4,431	48

21년 꿈자람에서 진행한 기획전시의 주제는 사회적 관심과 시의성을 반영하면서도 시공간적 제약 및 관람대상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 생물학적 어린이와 어른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어린이를 모두 포괄하여 어린이미술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안한 시도로서 가치를 지닌다.
22년에는 꿈자람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하여 성북구립미술관의 풍부한 소장품과 예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상설전시 '아하, 우리!'와 '백기은: 퐁퐁퐁 비행' 전시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한 일상 속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이리듐 에이지: 새 친족 만들기》 전시 전경

SMA 아뜰리에《아하, 우리!》 전시 전경

SUMMER PROJECT《백기은: 퐁퐁퐁 비행》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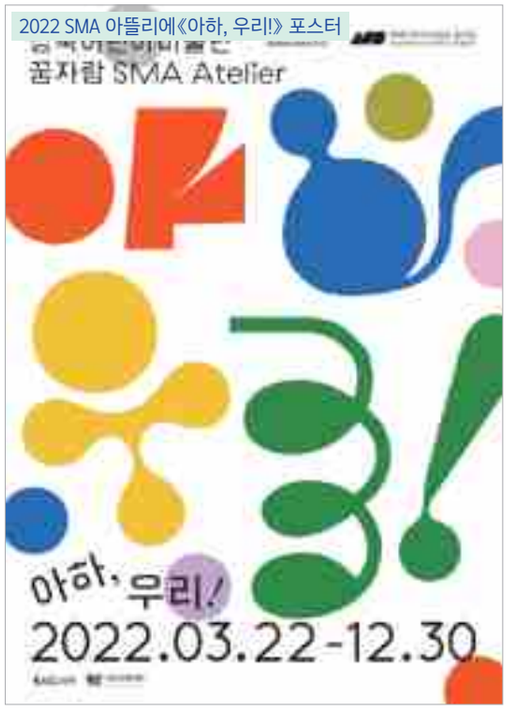
《그림X책: 블루 허밍 Blue Humming 》 전시 전경

《그림X책: 블루 허밍 Blue Humming 》 전시 전경

2021 기획전시《이리듐 에이지: 새 친족 만들기》
(IRIDIUM AGE: MAKING NEW KIN) 포스터

2022 SUMMER PROJECT《백기은: 퐁퐁퐁 비행》 포스터

2021 기획전시《그림X책: 블루 허밍 Blue Humming》 포스터



2022 SMA 아뜰리에《아하, 우리!》 포스터

안녕, 나의 미술관

조수예나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학교 연계 프로그램 교육강사)

화면 밖을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팬데믹으로 3년만에 마주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문을 들어섰다. 벌써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마음이 뭉클해졌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시작 종소리와 함께 학교가 고요해졌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나의 미술관〉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기획한 학교연계 미술연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성북의 미술가와 미술관을 소개하고 인근의 미술관에 방문해 전시 관람의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청덕초등학교와 인근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아이들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미술관에 가본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미술가와 작품들은 얼마나 되는지, 3차시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지루하진 않을지. 특히, 현대 추상미술과 추상 조각, 공공 미술이라는 아이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수업으로 만들자!”

아이들에게 ‘작가의 가방’ 키트를 나눠주었다. 이 가방은 3차시로 진행되는 동안 활용되면서, 아이들은 미술관의 큐레이터, 전시디자이너, 보존전문가, 에듀케이터 등이 하는 일을 경험해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경험하고, 작품 감상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키트를 통해 3차이로 진행되는 긴 호흡의 수업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했다.

첫 수업은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성북, 작가들의 사소한 이야기로 아이들과 라포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스승에게 감나무가 많은 집을 물려받았던 작가, 김환기. 유학시절 성북의 달빛을 그리워하며 그려나간 그의 작품을 보여주며 성북의 달밤을 떠올려보게 했다. 권진규 작가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고집스러웠던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는 100주년 기념전의 BTS RM과의 인연으로 풀어나갔다. 많은 아이들이 알아봤던 흰 소 그림의 주인공, 이중섭. 그 역시 정릉과 인연이 있었음에 나도 놀랐다. 정릉에서 지내는 동안 그린 그의 정릉 풍경에 속 달을 보며 예술가들이 좋아했던 정릉의 달밤이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곧 방문하게 될 최만린 미술관의 작가 최만린은 조금 더 집중해서 최만린 작가가 살던 당시의 시대 상황, 작가의 삶, 작가로서의 고민들을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줄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다음 시간에 방문하게 될 최만린 미술관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도 컸다. “우리 집 근처예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 우리 동네에 미술관이 있다구요?” 반응도 제 각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최만린 미술관에 가본 친구들은 없었다.

‘그래, 미술관은 항상 열려있었지만 선뜻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너희들에게 다가갈게.’

11월, 늦가을이라는 계절이 무색한 더운 날씨였다. 두 번째 수업을 위해 미술관에 도착한 아이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렸고, 반팔을 입은 아이들도 있었다. 미술관 문턱을 넘는 아이들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여기에 미술관이 있었다고?”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학예사 선생님께서 전시 중인 ‘모두의 조각’을 소개하고, 가방에 있는 작품 카드와 활동지, 재료들로 작품을 탐정처럼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모두의 조각’은 작가의 공공 조각들에 관한 전시였다. 전국에 있는 조각들의 리스트를 작품 카드로 만들어 아이들에게도 나눠 주고, 작품을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적어보게 했다.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이야기를 만들어줘도 좋아!”

아이들은 추상적인 작가의 작품을 달팽이, 가시달린 장미꽃, 사슴, 별이 되었다 빛으로 변해버린 조각 등 각자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 중 작가의 '맥'시리즈를 보고 인상적인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탱크를 표현한 것 같다.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탱크의 총구 여러 개를 붙여서 저런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흩날리는 꽃을 표현한 것 같다. 전쟁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흩날리는 꽃으로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라고 해석했다. 이 두 친구들의 해석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작품의 형태와 작가의 생애를 떠올려 작품과 연관 지었지 때문이었다. 아이들과 하는 감상 수업에서 작품의 재료와 기법, 형태뿐만 아니라 작가 살던 시대와 삶의 이야기, 그리고 맥락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유의미한 발견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와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 환경, 문화적 콘텐츠가 많은 성북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본 '모두의 조각'전시를 통해 알게 된 '공공미술'이라는 장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작가가 되어보기로 했다. 실제 계약서와 작품의뢰서를 작성하고 마케트를 만들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구체적인 형태의 만들기를 하기 마련인데, 최만린 작가를 통해 추상 조각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추상적인 형태의 조각들이 많았다.

" 그동안 모은 기록들로 나만의 미술관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은 그동안 모았던 자신들의 기록으로 작가의 가방을 만들었다. 3차시로 진행된 수업으로 모아진 성북과 최만린 작가에 대한 기록으로 70여개의 최만린 가방 미술관이 만들어졌다. 가방에는 성북구의 미술가들, 작가가 쓰던 재료, 작품스케치, 작품 해석, 공공미술 계약서, 마케트 등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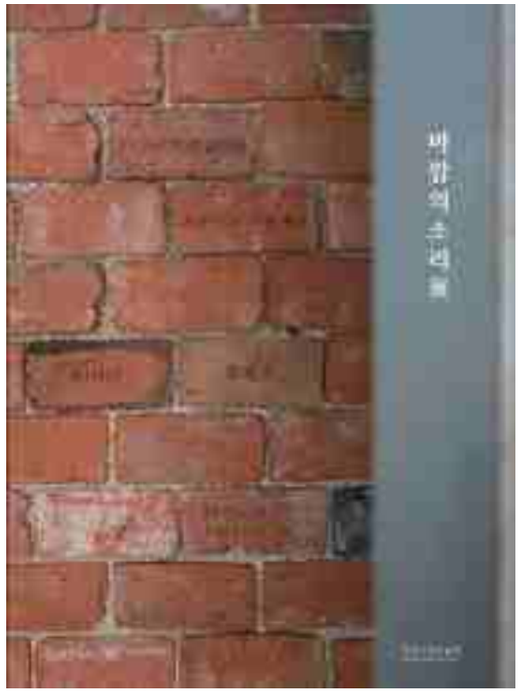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덕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며 느낀 건 비대면으로 랜선을 통해 만났던 수동적이었던 아이들이 아닌, 팬데믹 이전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했었던 팬데믹으로 변해버렸을 것만 같은 아이들은 없었다. 지나가는 길에 봤다며 미술관 문을 들어서며 안을 둘러보던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문을 열고 기다리기보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들어 가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술관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 시간 아이들에게 꼭 전했던 '친구들의 옆집에 지나가다 생각나서 그냥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모두의 미술관'을 꼭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거리갤러리

대지면적	1,137㎡	건물	지상 1층
운영 시간		상시	

성북구립미술관 거리갤러리 공간은 2018년 건축가 조성룡이 성북동의 지형적, 건축적 특성을 살려 직접 설계하였다. 오래된 석축(石築)과 길을 따라 남아있는 옛 물길의 형태, 수십 년간 그 곳에 위치해 있었던 집들의 흔적 등 과거의 공간과 지형들을 그대로 살린 이 공간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동의 대표적 거점 공간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기간	관람객 수(명)	보도 횟수(회)
거리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바람의 소리>展	2020.06.27.~2022.06.30.	일평균 100	44
<성북의 세 가지 이야기>展	2021.12.27.~2022.06.30.	일평균 100	-
거리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간의 초상>展	2022.07.30.~2024.06.30.	일평균 150	61



거리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바람의 소리>展 전시 전경

거리갤러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간의 초상>展 전시 전경

미술관 소장품 관리

신규 기증에 따른 소장품 외부 수장고 보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소장품 연구 기반 확립을 위한 학술자문 및 성북미술연구소 TF 운영을 시작하여 소장품의 전문적인 연구와 소장품 보존 및 복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

1. 서세옥 컬렉션 연구 용역 추진
2. 최만린 조각가의 작품<O 95-4>의 복원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3. 《모두의 조각》전시연계 학술심포지엄 《공공조각, 현안과 제언》개최
   - 최만린 공공조각을 중심으로 한 연구발제 6건
   - 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1건

성북구립미술관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세옥, 송영수, 윤중식, 최만린 등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 및 소장품을 다수 기증받음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소장품을 관리·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2년 성북구립미술관의 핵심 사업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총 4,522점에 달하는 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심축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장 작품들의 연구가치가 매우 높아 성북지역 문화연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한국 근현대미술사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성북구립미술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장품 수집, 관리, 운영을 통하여 지역미술자산 보존의 긍정적인 선례를 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성북의 대표적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미술관 21기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뉴턴: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은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와 관련한 미술활동을 수행하여 결과를 업로드 하는 참여 프로그램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하였다. 에듀케이터가 직접 등장하는 총 9개의 안내 영상을 제작하고,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년 어린이미술관 22기 '퐁퐁퐁 비행'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에서 진행되는 '백기은: 퐁퐁퐁 비행' 전시와 연계하여 작가 참여 교육과 에듀케이터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작가와 함께 한 워크숍에서는 연극적인 움직임 요소가 결합하여 작가의 음악과 이야기에 맞춘 어린이들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참여 어린이들은 코로나로 지친 마음과 일 속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예술로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1. 2021 <땅의 소리: 김승영>展 5월 가족 전시 감상 프로그램(5.4.~6.27.)
- 프로그램 진행: 18회/ 참여인원: 총 56명

2. 2021 <땅의 소리: 김승영>展 시각장애인 가족 전시감상 프로그램(5.11.~5.29.)
- 자문회의 진행: 1회 / 교수 1명 초빙(관련 다수 경험 및 논문 집필)
- 프로그램 진행: 6회/ 참여인원: 총 20명(시각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3. 2021 전시연계프로그램 <땅의 소리: 김승영>展 국가무형문화재 이생강 온라인 대금연주, 음악가 몽라 온라인 연주 퍼포먼스 프로그램 (6.30~ / 7.15~ (온라인 프로그램))
- 현장 연주회 및 문답 진행: 각 1회(총 2회)
- 온라인 동영상 제작: 2편/ 조회 수: 2개 평균 250회

4. 2021 성북구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1기 '뉴턴: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온라인 교육)(8.30.~9.13.)
- 온라인 동영상 제작: 9편(프로그램 소개 및 미션활동을 위한 영상)/ 재료키트 제작: 1종 103세트
- 온라인 게시판 운영: 9개/ SNS온라인미술관 운영: 2개 계정
- 프로그램 진행: 2기수 각 7회, 총 14회/ 참여인원: 총 103명

[2022]

1. 2022 성북구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2기 '퐁퐁퐁 비행'(8.23.~9.03.)
- 2022 SUMMER PROJECT <백기은: 퐁퐁퐁 비행> 전시 연계/ 참여 작가: 1명(백기은)
- 프로그램 진행: 총 6회(작가 참여 프로그램: 2회/ 에듀케이터 교육프로그램: 4회)
- 참여인원: 총 44명(7~12세 어린이)

2. 2022 전시연계프로그램 <시간의 초상: 정현>展 '기억을 담다, 그리다'(10.14.~12.04.)
- 프로그램 진행: 어린이 전시연계 프로그램: 16회/ 어린이 및 성인 도슨트: 전시기간 내 상시
- 참여인원: 총 400명(어린이 전시연계 프로그램 : 100명/ 어린이 및 성인 도슨트: 300명)

3. 2022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춤추는 사람들' (12.10.~12.17.)
- 프로그램 진행: 총 4회(그림책 프로그램: 3회/무용(움직임)프로그램: 2회)
- 참여인원: 총 20명

성북구립미술관은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4개관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대상의 체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12년 동안 이어온 성북구립미술관의 대표적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미술관'과 함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연계, 문화소외계층 연계 교육 등으로 운영 중이다.

2021 <땅의 소리: 김승영>展 시각장애인 가족 전시감상 프로그램 진행 모습

2021 어린이미술관 21기 '뉴턴: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

2021 <땅의 소리: 김승영>展 연주 퍼포먼스 프로그램

2022 어린이미술관 22기 '퐁퐁퐁 비행'

2022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춤추는 사람들'

미술관 콘텐츠 활성화

성북구립미술관 미술관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 속 미술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아트상품 제작 등 미술관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우고 관람객 층위 확장 및 재방문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마케팅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1. 2021 문화 프로그램<건축가와 함께하는 최만린미술관 건축투어>(05.07)
2. 2021 SMA 살롱음악회 <해와 달>(06.21)
3. 2021 SMA 살롱음악회 | 최만린 1주기 추모공연 <기억>(11.22)
4. 2021 정원토크: 예술이 되는 정원(09.16/ 10.01)
5. 2022 문화프로그램 <정원학교>(02.17~03.24)
6. 2022 SMA 살롱음악회 <대화>(온라인 프로그램)

미술관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술관 고유의 특성을 담은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여 관람객 층위 및 향유계층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미술관 5개 시설의 통합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건축가와 함께하는 최만린미술관 건축투어>

SMA 살롱음악회 <해와 달> / SMA 살롱음악회 <기억>

문화 프로그램 <정원학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2021]

1. 연구회의 활동 및 자문회의: 총 10회

2. 전시연계 프로그램 'Sound N Art 사운드 앤 아트'
   - 프로그램 진행: 총 5회(대면: 4회/ 비대면: 1회) / 참여인원: 총 6명(초등학생)/ 누적인원: 총 30명

3. 학교연계 프로그램 'Sound N Art 사운드 앤 아트'
   - 프로그램 진행: 총 6회(학급 당 2회)
   / 참여인원: 총 54명(성북구 소재 초등학교 5학년)/ 누적인원: 총 108명

[2022]

1. 연구회의 활동 및 자문회의: 총 10회

2. 학교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안녕, 나의 미술관'
   - 프로그램 진행: 총 18회(6개 학급으로 나누어 진행/ 학급 당 3회) / 참여인원: 총 192명

[Sound N Art 사운드 앤 아트]

<목소리의 극장 Theater of Voices>전시와 연계한 작가 참여 프로그램으로 에듀케이터와 작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작가는 사운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소리에 대한 탐구와 작품세계를 교육에 녹여 미술관에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소리예술의 즐거움과 발생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미술관 에듀케이터로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교육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언어적 표현과 작가 및 학교와의 소통, 실무 등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미술관 교육 전문가이자 기획자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작가와 함께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초등학생들은 미술의 다양함과 창작자 관점에서의 작품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참여 교사는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미술교육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안녕, 나의 미술관]

초등학교 4학년 미술교육과정의 '감상'영역과 관련하여 미술관을 방문하고 미술가를 알아보는 교과단원과 연계한 학교-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이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및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두 곳과 가까운 성북구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총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성북의 예술가들, 미술관을 방문하는 법, 미술관의 역할, 전시와 작품을 감상하는 법 등을 전문 에듀케이터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교실수업(사전)-미술관 현장 탐방-교실수업(사후)' 3차시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시범적 진행과 교사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1 'Sound N Art(사운드 앤 아트)'

2022 '안녕, 나의 미술관'

2022 '안녕, 나의 미술관'

성북구민회관 / 성북여성문화센터

대지면적	3,862㎡	건물	B1층 (778.10㎡) 1층 (767.90㎡) 2층 (695.78㎡) 3층 (462.27㎡)
운영 시간		9:00 ~ 19:00	

성북구민회관은 1990년 5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33년째 운영 중인 성북문화재단의 대표 시설이다. 1990년 개관 초기에는 성북구민회관으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2001년 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여성회관과 함께 운영 되고 있다.
2022년 성북여성회관은 네이밍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성북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성북구민회관은 대강당을 활용한 지역사회 우선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지원을 통해 성북구 지역사회의 복지와 주민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들을 협력 지원하고 있다.
성북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성북구 대표 평생학습시설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8개 분야 80개반 월 750여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2021]

1. 생활문화예술강좌 : 27개 강좌 70개반 442명(월평균등록) 운영
2.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 단원 78명, 프로그램운영 26회, 공연실적 3회
3. 꿈의오케스트라 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프로젝트 4기진작」: 참여 48명, 프로그램 운영 10회
4. 생활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 사업「성북공명」: 참여 5개 단체 78명, 프로그램 운영 78회
5. 학력인정문해교육「한글로행복교실」: 수강생 16명, 프로그램 운영 120회(240시간)

[2022]

1. 생활문화예술강좌 : 26개강좌 80개반 748명(월평균등록) 운영
2.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 단원 78명, 프로그램 운영 26회, 공연실적 3회
3. 꿈의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지역사회회복프로젝트> : 단원 70명, 프로그램 운영 4회
4. 음악전문기관 연계 꿈의오케스트라 기획사업 단원×예술가 설렘팡 희망톡 콘서트
   : 참여 총88명, 진행 1박2일
5. 학력인정문해교육「성북행복학교」: 수강생 11명, 프로그램 운영 총120회
6. 학력인정문해교육「맞춤형프로그램」: 수강생 8명, 프로그램 운영 총2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성북구 대표 평생학습시설로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북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한국형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역기반의 문화예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로 2013년 창단하여 올해로 10년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적 음악활동 및 연주회 진행으로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성북여성문화센터의 생활문화강좌는 성북문화재단이 출범한 2012년 이전부터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2년 재단 출범과 함께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예술강좌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역주민의 취미, 예술, 건강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다.
평생학습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사회통합 유도 및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성북공명

꼬마오케스트라
나눔 연주회

성북

음악으로
잇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2022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성북 Hello?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생활문화 예술강좌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10주년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참여 강사
구자민

2022년,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지난 10년의 시공간을 마주하였다. 2022년은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시작점부터 10주년 기념 음악회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해였다. 시간과 공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10년을 함께한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모습과 성북구민회관의 세월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회상과 더불어 공간을 이뤄낸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없이 느껴졌기에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변하지 않은 공간과 그 공간을 기억하고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존경이 함께 묻어난 마음이었다.

2021년 사기진작 프로젝트

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2019년, 미국의 티칭아티스트 베아타문과 협력한 〈빠져드는 오케스트라 여행〉을 시작으로 창의적인 오케스트라 수업을 시도하여 오케스트라의 활동과 개인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단원과 강사들에게 던지고, 음악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졌었다. 〈사기진작 프로젝트〉에서는 언러닝으로 이끄는 주체적인 예술 활동을 정의하고, 각 단원들의 개인적 서사를 음악적 활동으로 바꿔보았다. 〈사기진작 프로젝트〉에서는 각자가 표현할 예술적 활동들을 참여자 스스로가 정의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각자의 서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구성원들에게 다채로운 방식으로 전해는 주는 반짝이는 방식과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은 2021년의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시간으로 기억되어 창의적이고 즐거운 오케스트라 활동의 밑거름이 된 시간이었다.

베토벤과 10주년 홈커밍데이

베토벤은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문화적 기틀을 만들고자 하여단순한 모티브에 대한 변주와 통찰, 파격적인 구조와 형식 등으로 명료한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전달해 주었고, 음악을 통해 좀 더 보편적 가치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이성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문진탁 음악감독은 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레퍼토리를 베토벤으로 기획하고 2021년부터 2022년 10주년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총 6회 공연에서 베토벤의 고뇌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음악감독 문진탁은 긴 시간을 통해 역경을 극복한 음악가의 아이콘으로 베토벤을 조명하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음악을 단순한 정서적 도구로부터 진보시켜 사고의 방식으로 전환시킨 사상가로도 조명하였다.

코로나19 전후로 사람들은 여러 역경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전쟁과 역병, 차별, 구조적 참사 등은 좀 더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의식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켰다. 개인주의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 개별화(파편화)는 위기와 역경 앞에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가 되어, 다수가 함께하며 얻게 되는 장단점과 사회적 의식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해졌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판타지는 개인의 표현과 표출로 연결되면서 개개인의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역할을 비교적 얇게 만들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2021년 ~ 2022년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정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전달해 보았다. 10주년을 준비하며 베토벤 곡을 곱씹고 오케스트라를 통해 작지만 10년을 쌓아온 공동체의 연대와 유대를 긴 호흡의 음악으로 전달해 역경과 위기의 사회에 작은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이다.

환희의 송가 중 일부(An die Freude)

프리드리히 실러 작사, 루트비히 판 베토벤 작곡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진실된 우정을 얻은 자여,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Mische seinen Jubel ein!	다 함께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Ja, wer auch nur eine Seele	그래, 이 땅에 단 한 명 뿐일지라도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마음을 공유할 혼을 가진 자라면 환호하라!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그러나 그조차 할 수 없다면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떠나라!

또한,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홈커밍데이에서는 현재의 단원들과 10년 전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경험하였던 단원들이 마주하여 서로의 경험과 궁금증, 앞으로의 기대와 현실 등을 이야기하였다. 홈커밍데이의 대담은 미래의 두 세대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10년을 지속한 성북구민회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과 졸업 단원과 현 단원들이 다양한 음악 활동과 음악적 유대를 바탕으로 나눠 준 이야기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미래 활동을 약속해 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 다는 것과 10년을 고스란히 함께한 문진탁 음악감독을 비롯한 강사들과 단원, 공연예술팀의 노력이 지역의 문화자본으로 작동되는 생생한 장면을 목도하며 오케스트라 교육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문화 예술과 지역공동체, 지역 문화와 지역민의 상호성을 직관적으로 교감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무게감과 함께 앞으로 성북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될 오케스트라 예술교육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엄마표 간식, 간식데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위해 먹는 간식은 따뜻한 위로와 힘이 솟는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된다.
10주년을 맞이하여 단원들의 보호자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간식을 선사하여 즐거운 시간을 맛볼 수 있었다. 위로와 행복이 담긴 따뜻한 먹거리 만들기 행사는 꿈을 꾸기 위한 또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간식이 좋아 꿈의 오케스트라를 다니는 단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흐뭇해지는 행사였다. 오케스트라 교육이 지역의 돌봄을 품은 사업이기도 하기에 꿈을 꾸기 위한 먹거리 행사는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풍성히 만들어 줄 수 있는 너무도 훌륭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10주년을 돌아보며, 꿈이 만들어가는 서사

꿈은 무엇일까? 닐 게이먼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하는 DC의 넷플릭스 드라마 〈샌드맨〉의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통찰이 있다. 지옥의 군주 루시퍼와 벌이는 이미지화 대결 장면에서 꿈은 “나는 희망이다”, “희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란 상징으로 루시퍼를 제압한다. 또한, 꿈은 루시퍼에게 이런 말도 한다. "이곳에 갇힌 자들이 천국을 꿈꿀 수 없다면 지옥에 무슨 힘이 있을까?“

꿈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꿈은 희망이고 힘이다. 꿈은 죽음도 이기고, 생기 넘치는 삶의 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꿈꿀 수 있다는 것은 희망과 힘이 있는 미래가 도래하는 우리 사회의 실천적인 염원이 될 수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이 현실의 꿈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지역의 훌륭한 문화매개체로 수 많은 대가들이 꿈꿔왔던 지혜와 생각들을 나누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객체의 삶을 예술적으로 치환해 줄 수 있다면 각자의 꿈이 만들어낸 서사가 역경과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실제를 개척해나가는 공동체의 힘과 희망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빛극장

대지면적	324석 극장	건물	지상 4층
운영 시간		공연시간에 따라 상이	

21년 4월에 개관한 꿈빛극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선호도를 고려하여 클래식, 연극, 국악, 뮤지컬, 가족극, 대중공연, 브런치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공연예술을 직접 기획/제작하여 무대에 올려 많은 관객들과 예술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명	공연일정	관객수(명)
개관페스티벌 [유리상자 박승화 & 여행스케치 남준봉 듀오콘서트]	1. 2021.4.17.	84
개관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리사이틀]	2021.04.24	210
개관페스티벌 [연극 264, 그녀가 말하다]	2021.04.30.~05.02	330
개관페스티벌 [가족음악극 이솝우화]	2021.05.08.~05.09	254
성북국악페스티벌 2021 [풍류마치]	2021.08.28.~08.29	392
2021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정읍에서 부는 소리의 향]	2021.09.11	157
2021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진도의 삶, 한, 흥]	2021.09.12	165
페스티벌 나다	2021.10.23.~10.24	313
금난새의 클래식 라운지	2021.10.30	193
말로의 재즈 라운지	2021.11.06	205
싱어송라이터 오존 콘서트	2021.12.18	215
박유신 트리오의 클래식 라운지	2022.04.17	149
2022자치단체간 문화교류사업 [진도의 삶, 한, 흥]	2022.05.29	259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 - 1	2022.06.29	290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2022.07.29.~08.14	1,267
제8회 서울시민연극제	2022.7.18.~09.30	2,015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 - 2	2022.09.22	290
성북국악페스티벌 2022 [풍류마치]	2022.10.14.~15	494
크로키키 브라더스	2022.10.22.~23	534
2022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동제작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2022.11.19.~20	332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 - 3	2022.12.22	870
연극 [예외와 관습]	2022.12.28.~31	501
2021년 공연 50회 / 관객 4.528명	**2022년** 공연 165회 / 관객 25,544명	

무대규격 프로시니엄 기준으로 넓이 12.000, 깊이 5,950, 높이 4,500 사이즈로 중소극장에 해당하며, 객석은 324석이다. 로비, 분장실, 임산부휴게실, 매표소,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있고, 다양한 기획공연과 지역예술가와 공연단체의 대관으로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겨레

누구나 편하게 찾는 다목적 공연장

서울, 이곳 성북구 길음동 꿈빛극장

가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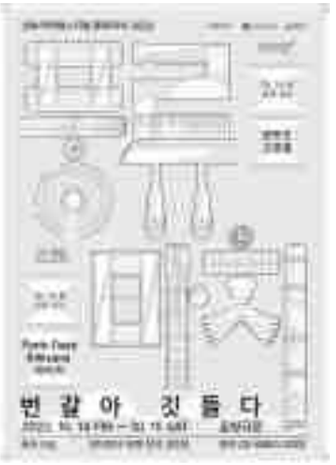
Ozohu
2021
12.18

장수진
리사이틀

금난새의
클래식
라운지

CLASSIC
Lounge

11시 1분


번 갈 아 깃 들 다

길수롱
가관이네!

크로키키
브라더스
CREATIVE
PERFORMER SHOW

스페셜 딜리버리

꿈빛극장과 함께한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을 마무리하며

공연 대본작가 정윤희

6월, 9월, 12월에 예정된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의 기획 회의를 위해 꿈빛극장을 처음 찾았던 것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에 둘러싸인 꿈빛극장의 첫인상은 다정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극장이었으며, 그 기저에는 품격 있는 콘텐츠들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꿈빛극장의 2022년 공연 목록을 살펴보면서 새삼 이곳의 콘텐츠가 여느 광역권 공연장과 비교해도 못지않을 만큼 풍성하고 품격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꿈빛극장이 좋은 여건을 지닌 공연장인 만큼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이 예쁘게 완성만 된다면 많은 관객들이 이 공연을 찾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공연들에도 꿈빛극장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의 경우 그 의미가 특별했을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외부 공연단체에 의해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공연이 아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직원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자체 제작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연 대본을 맡은 저에게도 이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평소 주로 홀로 작업을 하는 제게 이 공연은 저의 언어와 생각들을 많은 관객들이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직접 전달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브런치 콘서트 [11시 11분]은 인상주의 명화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는 콘서트이며, 인문교양 지식과 콘서트의 융합을 표방합니다. 평일 오전 인근 주민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객 소통형 콘서트는 어느 정도의 입지를 지닌 공연장이라면 자주 기획하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공연 제작이 결코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장르의 융합, 토크와 콘서트의 융합을 공연 결과물로 매끄럽게 창출해 내는 작업은 고도의 섬세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연장의 유사 공연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확고해졌습니다.

대본 작가로서 꿈빛극장 측에 제안했던 것은 다음의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콘서트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문 교양 지식들이 적절한 무게감을 지니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가의 일대기라는 커다란 줄기 위에 명화들의 제작 과정,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심정,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통일감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연의 진행을 맡는 전달자가 이러한 지식을 잘 습득하여 조리 있게 전달하되,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 도슨트가 진행자로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영상과 기사자료를 검색한 후 정우철이라는 인물을 찾아 극장 측에 추천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우철 도슨트의 섭외는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가로서의 역할은 대본이 완성되는 순간 대부분 끝납니다. 하지만 짜인 각본을 도슨트의 입말로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슨트의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는 인지도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진행자였으며, 제가 완성한 대본에 본인의 경험과 재치를 더해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조명과 디자인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진행자석과 악기,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명화 액자를 감각적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회 공연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주자 캐스팅도 성공적이어서 재즈, 어쿠스틱, 클래식 음악은 명화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매회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송준서, 기타리스트 박규희 님은 명화에 조응하는 연주를 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고민을 했노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의 몰입도가 매우 높았던 것은 물론이었고, 높은 예매율로 공연의 성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저 또한 스스로의 작업에 만족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작가로서의 제 미래에도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기회로 꿈빛극장 직원분들과 정우철 도슨트, 연주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리랑시네센터

대지면적	789㎡	건물	B1층 1관(181석) 1층 2관(164석) 3층 아리랑인디웨이브(127석)
연면적	2938.89㎡		
운영 시간		9:00 ~ 22:00	

공공영화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리랑시네센터는 영화, 영상, 미디어 등 지역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5월 개관하였다. 2012년 9월 성북문화재단이 운영을 시작하고, 2014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무대와 공유서가,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다. 현재 3개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1, 2관은 개봉영화관으로, 3층 아리랑인디웨이브는 한국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봉 영화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담은 다채로운 독립영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리랑시네센터는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한국독립영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함께 하고자 한다.

[2021]

1. 총관람객: 43,494명
2. 주요사업
   -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
   - 인디서울
   - 어르신극장나들이

[2022]

1. 총관람객: 89,600명
2. 주요사업
   -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
   - 인디서울
   - 어르신극장나들이
   - 우리가족극장나들이 4+day

아리랑시네센터 :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인디웨이브'

[2021]

▶ 총 관람객: 7,829명

▶ 개봉영화: 총 74편 상영

▶ 정기상영회 (월 2회)
- 3월~12월 인디서울: 468명

▶ 기획전
- 04.23.~04.25. 성북 감독전: 상영 7분 전 - 170명
- 07.01.~07.04. 제3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 412명
- 08.13.~08.14. 2021 KYFF 특별기획전 - 87명
- 09.02.~09.04. 기주봉 배우전 - 170명
- 10.12.~10.13. 스크린댄스특별전: 풀다, 바람 - 20명
- 10.15.~10.17. 보통의 우리, 우리의 2000's - 48명
- 11.11.~11.16.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1,135명
- 12.03.~12.05. 언니네영화관 2021 - 194명
- 12.23.~12.24. 제7회 다다름필름파티 with 언니네영화관 - 145명

[2022]

▶ 총 관람객: 11,452명

▶ 개봉영화: 총 80편 상영

▶ 정기상영회 (월 2회)
- 3월~12월 인디서울: 640명

▶ 기획전
- 04.28.~04.30. 인디웨이브PICK: 봄날-쉬고-영화 - 117명
- 05.07. 김재화 배우전 - 95명
- 07.07.~07.10. 제4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 691명
- 07.16. 디아스포라영화제 순회상영회 - 58명
- 07.23. 우지현 배우전 - 83명
- 08.26.~08.27. 양익준 전: 바라만 본다 - 508명
- 09.16./09.23. 신한솔 감독전 - 104명
- 11.10.~11.15.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1,351명
- 12.02.~12.04. 제8회 다다름필름파티 - 194명
- 12.08.~12.10. 인디웨이브PICK: 끝과 시작 - 351명

아리랑시네센터에는 365일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인디웨이브」가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영화의 물결을 의미하는 「아리랑인디웨이브」 는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을 맞아 성북구 주민 공모로 지어진 이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영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2020년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을 맞이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개봉영화와 더불어 독립영화 감독, 배우, 배급사 등 독립영화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더욱 밀도 있게 맺어 나아가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중 영화, 연극, 드라마 등 여러 장르를 두루 섭렵하며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스펙트럼의 한계는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배우 기주봉을 집중 조명하는 '기주봉 배우전'을 추진, 중견배우임에도 독립영화와 단편영화까지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는 그의 행보를 통해 한 배우의 깊이 있는 연기관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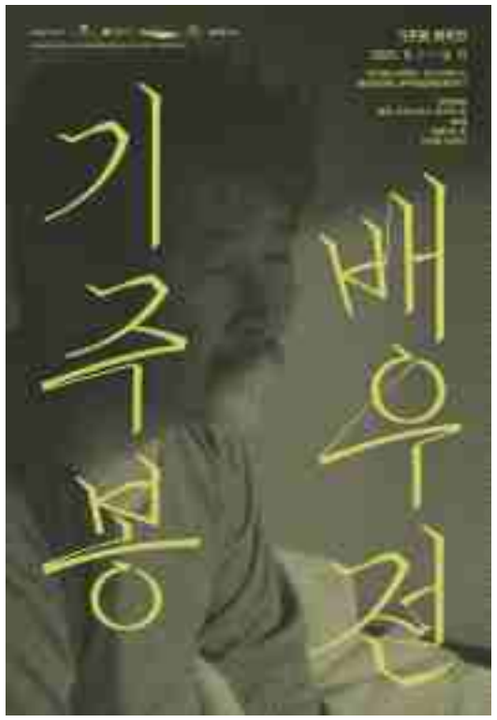
또한 "여성이( )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계 내 여성 영화인들의 설자리를 넓히고자 하는 '서울여성독립영화제'를 함께하며 이 시대 여성에 대한 담론 팽창과 여성이 영화계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일부나마 지원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지하는 '성북청춘불패영화제'를 시작하며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상영관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젊은 영화인들을 위한 영화제를 담아내었다.

이에 발맞춰 2022년에도 '성북청춘불패영화제'와 '서울여성독립영화제'를 연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더 많은 독립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들을 추진했다.

'김재화 배우전', '우지현 배우전' 등 독립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현재도 끊임없이 독립영화의 활기를 불어넣는 배우를 조명하는 행사를 기획하였고, 한국 독립영화의 고유한 얼굴이자 목소리로 존재해 온 영화감독 겸 배우인 양익준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며 '양익준 전: 바라만 본다'를 진행하였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독립영화 저변을 확대하며 앞으로도 독립영화가 성북구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들에게 익숙하게 스며들 수 있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몫을 다하며 독립영화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재화
배우전

우지원
배우전

바라만 본다

바라만 본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총 관람객: 1,135명

▶ 수상작

대상-양재준 감독<낙과>, 심사위원특별상-이소정 감독<로맨틱 머신>, 우수상-구소정 감독<거미>, 조유경 감독<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연기상-박세준 배우<낙과>, 기술상-김재형 촬영감독<끝내주는 절벽>, 관객상-강민아 감독<국물은 공짜가 아니다>

▶ 심사위원 총평

1회를 맞은 성북청춘불패영화제의 심사를 하면서 평가보다는 저희 심사위원들도 자극과 흥분을 받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정된 서른 편의 경쟁작 모두 창의성과 도전적인 지점에서 기록할 만한 작품이어서 어느 한 편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상작들은 무엇보다도 영화제의 키워드인 '청춘'의 에너지를 가진 작품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기존 영화들에서 흔히 보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각과 형식을 전개한, 말 그대로 영화적 창의력에 있어서 여전히 '청춘'인 작품들에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주었습니다. 선정한 작품들은 그래서 거칠고 모나더라도 영화적 질문과 문제의식이 충돌하고, 그 고민 끝에 도달한 작품들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야말로 단편영화를 만드는 즐거움이자, 또 관객인 우리가 단편영화를 즐기는 이유이기도 할 테니까요. 지금 호명된 수상작들이 앞으로 성북청춘불패영화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관객에게 다가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길 심사위원 모두 기대해 봅니다.

심사위원 일동 - 이화정, 임선애, 박홍열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총 관람객: 1,351명

▶ 수상작

대상-이다현 감독<머드피쉬> , 심사위원특별상-이다영 감독<햇볕을 볼 시간>, 우수상-황선영 감독<씨티백>, 정해일 감독<더더더>, 올해의 시선상-장태구 감독<어디에도 없는 시간>, 올해의 비전상-김민재 감독<기말과제(지각제출>, 연기상-김예지 배우<햇볕을 볼 시간>, 기술상-한지윤 편집감독<둔내면 임곡로>, 관객상-이지우 감독<하나의 마음>

▶ 심사위원 총평

청춘과 영화. 2회를 맞은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든든한 두 개의 바퀴를 갖추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이 함께 나누고 공감한 가치 또한 명확했습니다. 청춘의 매력과 에너지, 상상력과 용기를 지닌 서른 편의 영화 어느 한 편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작품이 없었습니다. 평가보다는 지지하는 마음으로, 열정 넘치는 작품을 제대로 응원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기준은 단지 하나의 잣대였을 뿐 서른 편의 작품 중 어느 한 편도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었다는 점 미리 밝히며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한 작품들에게도 모두 존경과 감사,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른 편의 작품들은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와 의지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향한 대책 없는 애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사이를 오가는 서른 편의 작품을 마주하며 저희도 위로와 격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극,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은 물론 폭넓은 주제의식과 다채로운 소재로 개성이 넘치지 않는 작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심사기준에서 밝힌 바 있듯 형식적으로는 영화적인 성취와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을 우선했습니다. 재미있고 잘 만든 작품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영화, 특히 단편영화만이 지닌 가치와 즐거움에 좀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의미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청춘들의 솔직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보석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주신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심사위원 일동 - 남연우, 송경원, 한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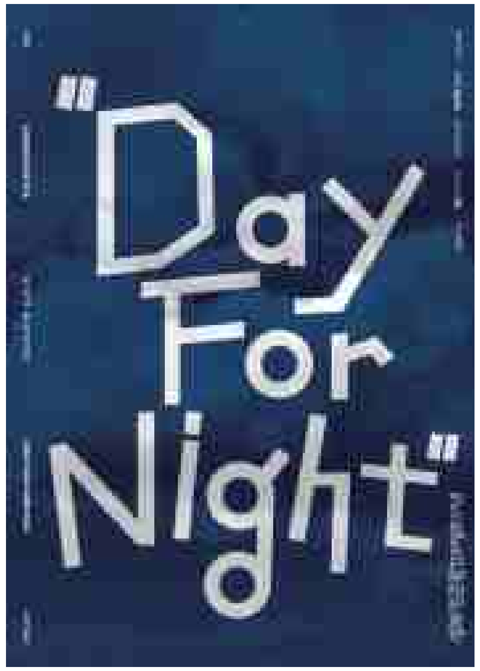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지하며 2021년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젊음이라는 공통의 조건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청춘들의 참신한 발상과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빛나는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마련된 영화제이다.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865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심혈을 기울인 공정한 심사를 거쳐 30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2021년 11월 11일(목)부터 11월 16일(화)까지 진행된 영화제를 통해 30편의 단편경쟁 작품은 1,135명의 영화제 관객과 만났으며 대상<낙과>, 심사위원특별상<로맨틱 머신>, 우수상<거미>,<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등 7편의 작품을 시상, 젊은 감독들의 뛰어난 수작들을 발견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

2022년 진행된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또한 806편의 작품이 출품되며 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새롭게 도전한 성북청춘불패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의 성과도 돋보였다. 재능 있는 창작자 발굴을 위해 단편영화의 제작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 창작자와 후원자의 꿈이 연결된 결과물인 <두 여자의 방>(감독 허지예)을 대중들에게 선보였으며, 성북구 관내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협업한 성북시퀀스 옴니버스 제작지원을 통해 <더 쉬운 방법>,<출소>,<스왈로우> 세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다.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대상<머드피쉬>, 심사위원특별상<햇볕을 볼 시간>, 우수상<씨티백>,<더더더> 등 9편의 작품이 수상하였고 1,351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앞으로도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단편영화라는 공간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젊은 영화인들의 도전을 기대하며 젊음의 불패(不敗)함을 응원하고자 한다.

城北성북
청춘靑春
不敗불패
映畫祭
영화제


Day For Night

11.11.(금) 17:30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대지면적	220㎡	건물	지상 1층
운영 시간		10:00 ~ 22:00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2017년부터 민관 협치를 통해 다양한 운영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민관 협력형 공공극장으로 지역극장으로서의 동시대 공공극장의 역할을 만들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공연, 창작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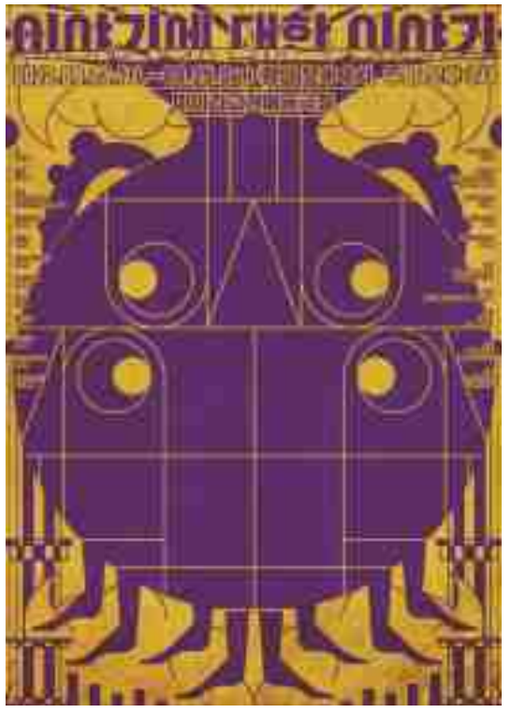
[2021]

사업명	기간(회차)	참여자	비고
공연예술분야 사전제작단계 공간지원프로그램 MAP	04.~05	9단체 36명	
기획공연_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7.22~8.1(10회차)	450명	
공연장상주단체 <베로나의 두 신사>	2.25~2.27(3일간)	907회(조회수)	온라인
	10.25~10.31(5회차)	230명	
공연장상주단체 <알마게스트>	12.3~12.12(9회차)	339명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모니터링단	07~12(6개월)	15명	

[2022]

사업명	기간(회차)	참여자	비고
공연예술분야 사전제작단계 공간지원프로그램 MAP	04.~05	9단체 36명	
공연장상주단체 <얇은 경계>	7.20~7.24(5회차)	296명	
기획프로그램 <이야기와 인물들>	8.1~8.2, 8.8(3회차)	67명	
기획공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9.23~9.25(3회차)	106명	
공연장상주단체 공공프로그램 <여기가 나의 무대다>	11.25~11.27(3회차)	120명	
기획공연 <황야의 이리>	12.9~12.11(3회차)	150명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모니터링단	07~12(6개월)	15명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매년 다양한 창작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1회 이상 배리어프리 공연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 관객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창작플랫폼 MA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젊은 공연예술인들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창작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획 공연을 통해 성북구민의 공연예술향유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2022
참작플랫폼 MAP
참여자(단체)모집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얇은 경계
The Thin Place
by Luca, Hnath

여기가
나의
무대다

미아리고개하부공간(미인도)

대지면적	385.3㎡	건물	지상1층
운영 시간		10:00 ~ 22:00	

미아리고개하부공간 미인도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개발과정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며 동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과 연결하며 예술적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네예술광부전>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지역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업사이클링 전시를 선보였다. 또한 2017년부터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을 통해 미아리고개 대표 지역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

사업명	기간(회차)	참여자	비고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4.~12.(5회)	1,613회(조회수)	온라인
동네예술광부전 <버려진 것에 관한 흥미>	6.8.~6.20	197명	

[2022]

사업명	기간(회차)	참여자	비고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04.~10(4회)	280회(조회수) 1,269명	온·오프라인
동네예술광부전 <광부의 셀렙숍>	8.24~9.4	148명	
미인도 <떴다 공원>	10.3~10.6	109명	

미아리고개하부공간 미인도는 미아리고개를 의미하는 '두루미(彌)',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人)', 길을 뜻하는 '길 도(道)'가 만나 만들어진 이름으로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 위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인도는 윈도의 갤러리, 실내공간, 야외쉼터로 구성되어있으며 2017년부터 협동조합 고개엔마을과 공동운영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창조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천장산우화극장

대지면적	2466.2㎡	건물	지하 1층
운영 시간		(평일)10:00 ~ 21:00 / (주말)10: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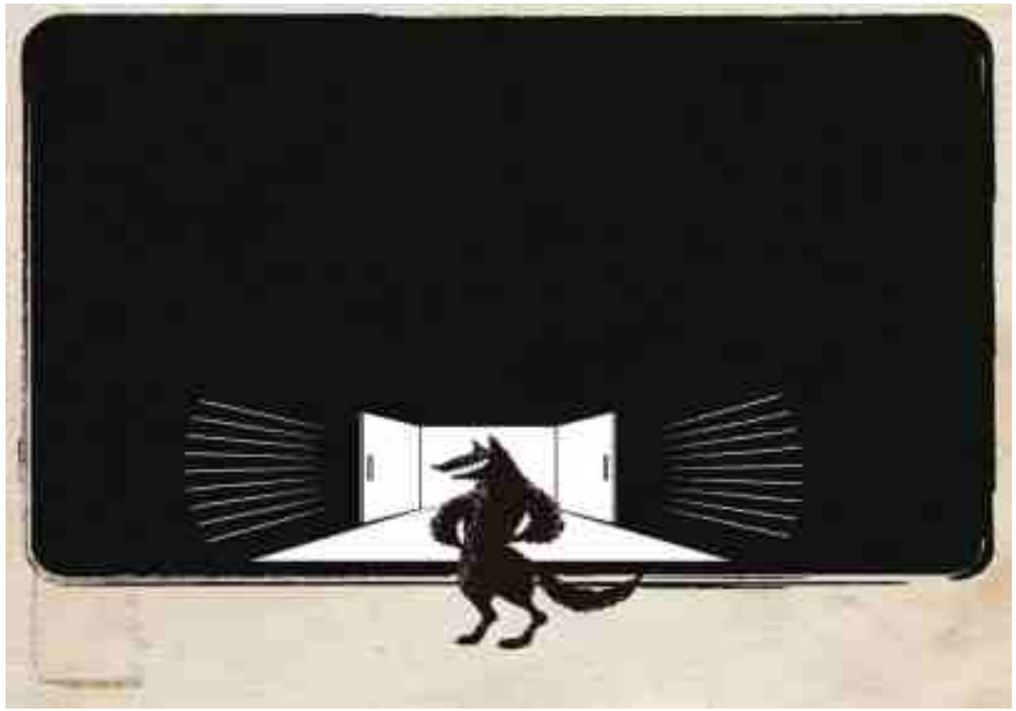
천장산우화극장은 2018년 3월, 성북구 상월곡동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에 개관한 마을극장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주민,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네트워크 '월장석 친구들'과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협치 운영 중에 있다.
창작/지역/교육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고루 살피며, 지역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이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블랙박스형 극장인 천장산우화극장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안에서는 광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연도	사업명	회차	참여인원(누적)
2021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31회	2,321명
	[공동제작]디아스포라 기행 트라이 아웃 공연	3회	110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의	2회	13명
	천장산우화극장 사무국 운영	44회	178명
	천장산 우화 예술제 <마을, 광장, 그리움>_10.01.~03.	1회(3일)	447명
2022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25회	2,317명
	[공동제작]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자의 시선	8회	234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의	2회	17명
	천장산우화극장 사무국 운영	44회	135명
	천장산 우화 예술제 <대축제>_10.26.~30.	1회(5일)	1,836명

천장산우화극장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창작 예술제인 '천장산우화예술제'를 매년 진행하며, 예술인들에게 협업을 통한 공동창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21년 ~ 22년에는 천장산 및 삼태기마을 등 야외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연·전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극장의 개관 이후로 현재까지 '월장석친구들'과의 공동 운영을 지속하며 지역극장의 협치 모델 발굴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장산수화예술제 제 5탄
10.1-10.3

대축제
10/26
10/30
info
祭
WORKSHOP
DRAWING
AR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대지면적	367㎡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운영 시간		화~토 10:00 ~ 17:00	

장위동에 위치한 김중업 건축문화의집은 건축가 김중업 건축연구소에서 1986년에 리모델링하여 김중업 주택디자인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담아낸 주택으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역 내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주민 대상 건축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연도	사업명	회차	인원
2021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상시 전시	235일	1,887명
	이웃집예술가_모두의집	3회	669명
	도시 저층주거지 아카이브 전시 '공유기억'	1회	254명
	어린이 건축학교 UM	4회	40명
	원데이 클래스	4회	16명
2022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상시 전시	247일	1507명
	금쪽같은 우리동네 예술공방	3회	34명
	월간장위클래스	3회	35명
	어린이건축학교<시시한건축학교>	4회	40명
	김중업건축문화의집 활용주간 <놀러와주week>	9회	182명

김중업 건축문화의집은 김중업 건축가 전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김중업 건축의 가치를 알리고 건축을 주제로 어린이 건축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대상 건축 교육 콘텐츠를 활성화를 이뤄냈다. 또한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웃집 예술가', '도시인프로젝트' 전시 및 아카이브를 통해 장위동 중심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 어린이건축학교 Vm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1층 전경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전경

금쪽같은 우리동네 예술공방 <셀로판 아트 워크숍>

어린이 건축학교 <시시한 건축학교>

청년살이발전소

대지면적	226.35㎡	건물	지상 2층
운영 시간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청년살이발전소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탐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유주방과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거점 활동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1]

1. 청년 창업자 인터뷰 <상인의 시간> / 총 5회 / 2,508회(누적조회수)
2. 청년 경제 강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 총 3회 / 1,058회(누적조회수)
3.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자의 산책> / 총 4팀 활동 / 42명(누적인원)
4. 지역문화프로그램 <성북 생태도감 만들기> / 총10회 / 59명(누적인원)
5. 지역문화프로그램 <2021 성북청년시민모꼬지 말하기 프로그램> 협력 운영 / 총 1회 / 17명(누적인원) / 380회(누적조회수)
6. 지역문화프로그램 <포춘 프로젝트> / 총 12회 / 36명(누적인원)
7. 공유주방 및 커뮤니티홀 대관 / 총 117건 / 628명(누적인원)

[2022]

1. 청년진로강연 <내일로 on/off> / 3회차 / 30명(누적인원)
2. 창업 아카데미 <창업.레시피> / 5회차 / 60명(누적인원)
3. 청년 진로탐색 <기획자의 계절> / 10회차 / 100명(누적인원)
4. 지역문화프로그램 <성북 생태도감 만들기> / 총10회 / 120명(누적인원)
5. 지역문화프로그램 <포춘 프로젝트> / 총 14회 / 83명(누적인원)
6. 공유주방 및 커뮤니티홀 대관(10월 기준) / 총 276건 / 2123명(누적인원)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안정적 도전을 위해 선배 창업자와 만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청년들의 진로를 함께 탐색하고 모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현재 공유주방은 예비 요식업 창업자들의 신메뉴 개발 및 지역의 청년 동아리 모임의 자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기획자의 부엌

상인의 시간

성북 생태도감 만들기

성북 청년시민 모꼬지

성북 생태도감 만들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포춘이와 친구들

내 일로
on off
내 일로 on/off

내 일로
내 일로 on/off

창업. recipe

포추니와 친구들

내 일로
on off
내 일로
내일을 그리다

상인시간
2021.07.08-22
人

나는 왜 도둑이 없을까?

청년발이 발전소의 새 가족 !!
도추니를 소개합니다 !!

기획자의 산책

기획자의 계절

내가 만난 청년살이발전소

창업 아카데미 〈창업.recipe〉 참여 강사
박상협

- 청년살이발전소에 대한 느낌

청년살이 발전소는 나와 인연이 깊다.
처음 개소식을 할 때부터 커피 Bar 부분은 많은 컨설팅과 셋팅을 도와주었고 그 후부터 계속 인연을 맺어 WED(work,eat,drink)식음료를 주제로 제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연자로 섰었다.
물론 커피 공간뿐만 아니라 제과나 빵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상업용 오븐, 식당을 운영해도 될 만한 높은 화력의 화구까지… 아마 직접 방문해 보고 이용해보면 놀랄 것이다.
너무 멋진 공간과 시설, 젊은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곳!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 시너지를 내어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곳! 그것도 예약만 하면 무료라니…
내가 창업할 때에도 이런 멋진 곳이 있었다면 좀 더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며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공간이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주변에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추천해 준다. SBS 다큐멘터리 “곰손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 할 때에도 이 장소에서 4주간 20명이 넘는 스태프와 출연자들이 편하게 촬영하며 교육을 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성북구안에 중학교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청년 창업 레시피까지 교육하게 되었다.

- 창업 레시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고객에게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6년. 이제는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re-start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잘 나가는 컴퓨터 회사를 그만두고 사서 고생을 시작한지 6년.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나는 요새 커피 가르치는 재미에 산다. 이번 창업 레시피도 그렇다. 성북구 작은 로스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나에게 커피 교육은 필수였다. 커피를 맛있게 로스팅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여도 고객이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집(빈스앤타임)은 그냥 맛없는 커피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고객에게 맛있게 내려 마시는 법, 보관 일수, 보관 방법, 기구 구입 등등…을 꼼꼼히 챙기는게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6년의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커피를 가르치는 일이 제조보다 재미있을 무렵 “청년 창업 레시피”라는 재미있는 일이 들어왔다. 항상 가르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청년들과 같이 하는 창업 레시피였다. 예전부터 “생명의전화”와 같이 협업하여 청년들에게 커피를 가르쳐주고 창업을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더욱 진지하게 임했다.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지만 필요 없는 경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좀 더 준비하고 배우면 그만큼 불필요한 경험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선배나 경험자, 선생님이 있는 것이다.

창업 레시피는 총5강으로 1강과 2강은 베이커리를 주제로, 3강과 4강은 커피를 주제로, 5강은 다른 창업팀 탐방으로 진행하였다. 수업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은 선생님들간의 팀워크였다. 서로의 강의 날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서로의 강의를 도와준 것! 베이커리와 커피는 빠질 수 없지 않은가! 베이커리 수업에는 커피로, 커피 수업에는 맛있는 디저트를 서로 준비해 주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나의 일처럼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맘이 척척 맞는데 강의가 나쁠 수 있을까? 수업은 저녁 7시라 회사 끝나고 오는 청년들이 많았다. 식사도 못하고 온 청년들을 위해 센스있는 베이커리 선생님은 미리 여분의 빵을 나눠주시고 나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허기를 채우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처음 수업은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을 만들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서먹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8정도라서 그런지 남성 청년들이 좀 더 어색해 보였다. 확실히 베이커리는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반죽과 발효, 그리고 성형 까지… 처음의 어색함은 빵이 완성 될수록 사라지고 장난 처럼 시작되었던 밀가루 반죽은 성형이 끝나고 오븐에 들어갈 때쯤 전문 파티쉐 처럼 진지해 졌고, 내 빵이 제일 맛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븐에서 빵이 나올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갓구운 빵의 냄새… 그리고 시식 할 때의 느낌. 이제야 서로 웃으며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는 순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베이커리 시간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아마 더 좋은 빵의 결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해져서 그런 것 같다. 마지막까지 청년들이 남아서 뒷정리까지 하고 나니 웃으며 하루를 마칠 수 있었다.
두번째 수업은 미니케이크 였다. 작은 상자 안에 미니사이즈의 케이크가 들어가는 화려하고 앙증맞은 케이크. 학생들은 생크림 만들기에서부터 신기해 하였고 선생님의 작은 행동과 설명을 계속 들으며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잘 할 순 없다. 물론 잘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언제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케이크에 화려한 데코를 하고 이쁘게 글씨를 쓰면서 각자의 케이크를 작품 만들 듯 완성해가고 두번째 수업도 마무리가 되었다. 서로의 케이크를 아까워서 먹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달달하고 폭신한 느낌의 맛이지 않았을까?

드디어 세번째 수업 내 시간이 돌아왔다. 어떤 것을 더 알려줄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은 청년들이 경험 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면 커피 머신을 다루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로 맛을 배워가면 아마 위가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은 부드러운 핸드드립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집에 가면 커피 머신이 없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기에 핸드드립을 세번째 강의로 하였다. 커피가 좋아서 집에서 핸드드립을 즐기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해본적 없는 청년도 있었기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모두 잘 따라와 주었고 여태까지 몰랐던 커피의 맛에 다들 놀라며 즐거워하였다. “여태까지 내가 마신 커피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청년의 반응이 제일 인상 깊었다. 참고로 내가 내려준 커피가 아니라 각자가 만든 본인의 커피를 마셨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 이럴때는 글로 현장의 분위기와 맛을 보여줄 수 없다는게 참 아쉽다. 첫번째 커피 수업이라 그런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지 질문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다음 수업때는 한 사람당 한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올 것을 숙제로 남기고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드디어 마지막 수업. 청년들이 제일 궁금해 하던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 청년당 하나의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 수업이어서 그랬을 까? 아니면 그동안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좋은 질문이 쏟아졌고 제법 사업가 다운 면모를 보여 주며 진지한 강의가 되었다. 여태까지 내가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 해주며 서로의 답답했던 상황을 해소해 주고 창업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다. 매회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으며 하나라도 더 듣고 잊어버릴 새라 적고 또 적고 사진도 찍고 또 찍고. 역시 젊음의 패기는 신선했다.

- 성북의 청년 창업에 대한 개인 의견

성북은 내가 살고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주민 복지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슈인 청년 창업에 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도 주민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인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청년 창업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조금만 유투브를 뒤져보면 젊은 청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진입장벽이 낮은 카페나 베이커리를 선택하고 창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 현실에 부딪히고 힘들어 하고 후회하며 폐업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모두 다 실패 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준비 없이는 절대 성공 할 수 없다. 나는 최소한 내 주변에 카페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나도 최선을 다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도와서 나보다 더 나은 청년 사장님을 만드는게 꿈이다. 지금 창업 준비 중인 청년 여러분 주변에 지인분들의 응원도 좋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분의 꿈을 이뤄 줄 청년 창업 레시피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빈스앤타임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대지면적	50m²	건물	지상 1층
운영 시간		13:00 ~ 18:00, 18:00 ~ 22:00	

'공업사'는 공들여 일하고 생각하는 공간(功業社), 함께 일하는 공간(共業社),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수면 위로 올리는 실험(OUP事), 직접 만든 물건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工業社)의 의미를 담아 삼양로에 문을 연 팝업스토어다. '공업사'에서는 청년이라면(만19세~39세) 누구나 공간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달 이내로 자유롭게, 창업에 관한 일이라면 제작, 판매, 프로그램 운영 등 어떤 것이든 실험해 볼 수 있다. 1인 창업, Side job, 진로 탐색, 문화예술창업 등 스스로의 일을 찾아 나서는 청년을 응원하는 공간인 '공업사'에서는 팝업존/프로그램 존으로 나뉜 공간에서 주로 13시~18시에는 판매를, 18시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매월 다른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물건,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공업사' 그 실험의 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월 별로 테마가 있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참여하는 예비 창업팀 & 초기창업팀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응대, 판매하는 경험을 하며, 다양한 클래스 운영을 통해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팀들도 늘어나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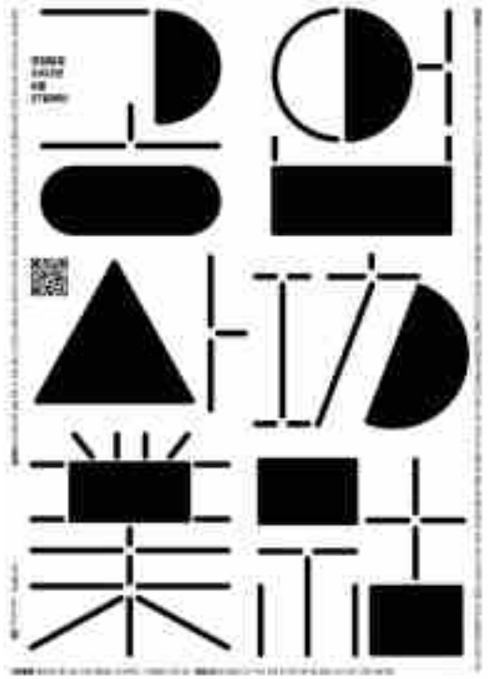
구분	테마명	기간	참가팀수(개)	참가인원(명)
가오픈	collettehr-우체국 공(업)사	2022.08.01.~08.07./10:00~20:00	12	200
8월	'내 것으로 만드는' 일상의 기술	2022.08.10.~09.08./10:00~20:00	4	200
9-10월	'나를 빛나게 하는' 일상의 기술	2022.09.16.~10.30./13:00~18:00	5	2,300
11월	'이야기를 담은' 일상의 기술	2022.11.02.~12.02./13:00~18:00	6	300
12월	'마음을 담은' 일상의 기술	2022.12.05.~12.23./13:00~18:00	5	200
12월	지역가게 협업프로젝트	2022.12.29.~2023.01.07./13:00~18:00	1	200

구분	참가팀
가오픈	나혜린, 유지윤, 이현진, 박민영, 김민정, 윤지수, 박정은, 변혜민, 부비프, 정명인, 이소, 양치
8월	에피소뎀 아트스튜디오, 종종스튜디오, 키후위키, 프랭크서클
9~10월	오늘날, 종종스튜디오, 수풀림, 콤팍트, 컴포트타올
10월	흙물불, 위드유어컬러링, 플러피페어리, 오늘날, 성북신나
11월	금시당, 위드유어컬러링, 스리엘라, 퍼리모먼츠, 조르바더크래프트

구분	클래스명	진행	일정	참여(명)
가오픈	<처음 보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문보영 시인	2022.08.05.(금) 19:00~22:00	17
	<가을 밤을 기다리는 편지>	collettehr	2022.08.04.(목) 13:00~15:00	3
8월	<향, 공간> 플로럴 퍼퓸 디퓨저 클래스	8월 참가팀 '에피소뎀 스튜디오'	2022.09.06.(화) 15:00/17:00	9
9월	'내가 노인이 된다는 상상' 늙는 것을 긍정하기	미닝오브	2022.10.07.(금) 19:00~21:00	6
	<나만의 향수 만들기>	예비창업팀 '하니센트'	2022.10.08.(토) 16:00	6
			2022.10.09.(일) 15:00/17:00	
	<오늘 나랑 팔찌>	9-10월 참가팀 '오늘날'	2022.10.25.(화) 17:00/19:00	11
			2022.10.27.(목) 17:00/19:00	
11월	<오늘 나랑 팔찌:연말선물>	9-10월 참가팀 '오늘날'	2022.11.16.(수) 18:30/20:30	3
			2022.11.22.(화) 18:30/20:30	
	<나를 추상하다>	9-10월 참가팀 '종종스튜디오'	2022.11.17.(목) 19:00/21:00	6
			2022.11.18.(금) 19:00/21:00	
	<나만의 향수 만들기>	예비창업팀 '하니센트'	2022.11.20.(일) 11:00/13:00	6
			2022.11.27.(일) 11:00/13:00	
	<한땀한땀 가죽공예>	11월 참가팀 '위드유어컬러링'	2022.11.25.(금) 18:30/21:30	3
			2022.11.26.(토) 14:00/17:00	
	<나를 돌보는 글쓰기>	심선혜	2022.11.25.(금) 10:00/12:00	8
12월	<나의 첫 에세이 상담소>	심선혜	2022.12.12.(월)~16.(금) 10:00/11:30	10
연계	2022 성북청년시민모꼬지 미래잔치 : 우리는 만날거야	성북청년시민회	2022.09.17.(화) 13:00~17:00	55
	[미래는 어떻게] '살맛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법수프 만들기		2022.09.20.(화) 19:00~21:00	6

8월 '나만의 것을 만드는' 일상의 기술

가오픈 프로그램 'Collettehr: 엽서가게'



한겨레

청년 창업 아이템, '판매와 전시'하는 곳

서울 이문 성북구 삼양로 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길음청년희망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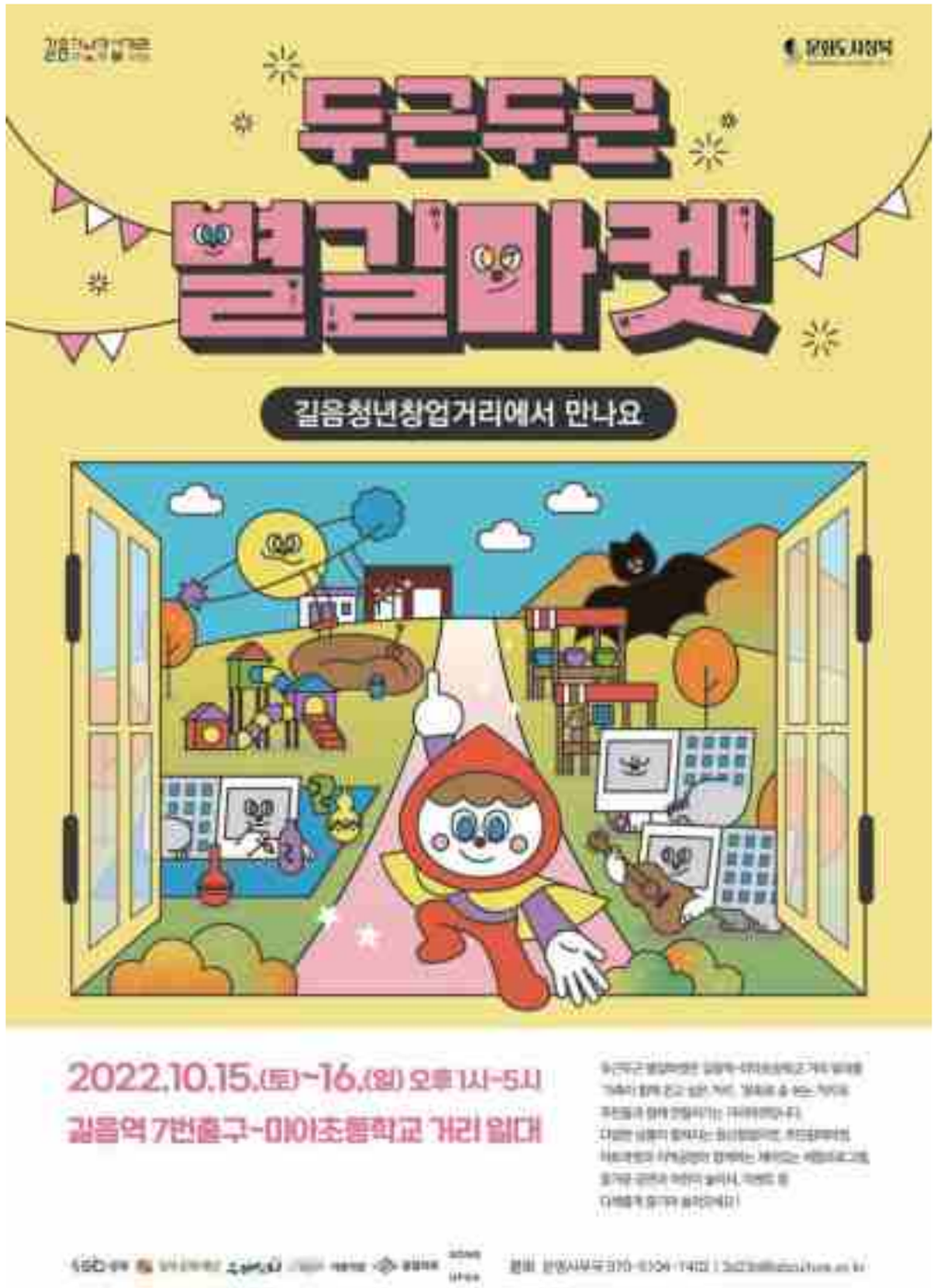
길음청년희망스토어는 삼양로 불법유해업소 밀집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삼양로 일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에 맞춰 발전된 형태로, 청년들의 창업실험을 돕고 지역주민,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를 만들어나간다.

1. 팝업스토어 운영(청년창업실험공간 공업사) / 08.01.~ / 누적 참여팀 31팀(예정) / 누적 방문자 3,500명(예상)
   팝업클래스 운영 / 09.06. ~ / 누적 참여팀 11팀 / 누적 참여자 40명
2. 주민 참여형 마켓 운영(두근두근 별길마켓) / 10.15.~16. / 참여팀 39팀 / 방문자 8,933명
3. 점포창업지원(다이닝 효효)
4. ※2019년~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점포창업 6개 지원하여 2022년 현재 4개 점포 영업 중

청년들의 창업실험을 돕는 공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판매 및 클래스 진행을 지원하여 단순 컨설팅보다 실전을 통한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길음청년희망스토어. 그간의 노력으로 성북구 뿐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편집숍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아이템을 삼양로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점포창업도 지원하며, 매년 열리는 주민참여형 거리 마켓인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통해 이전보다 더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이 숨 쉬는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나가고 있다.

청년창업점포 <다이닝효효>

2022년 길음청년희망스토어 사업을 통해 선발된 청년창업팀으로 '비스트로&양식 오마카세' 를 선보이는 곳이다. 현재는 이탈리아 요리를 재해석하여 대중적이면서도 독특한 음식들을 판매 중이며, 추후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코스요리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인 강병효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레스토랑에서의 셰프 경력을 통해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동네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 볼 수 있게 식당을 운영하고자 한다.


두근두근
별길마켓
길음청년창업거리에서 만나요
2022.10.15.(토)~16.(일) 오후 1시-5시
길음역 7번출구~미아초등학교 거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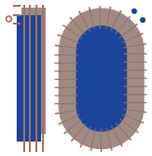
성북문화재단 사업운영

성북문화바캉스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동네예술치유소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 문화예술교육 허브하기
공유가꿈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나눔풍성

성북문화재단은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멀어진 우리의 거리를 다시금 좁히기 위한 재단의 노력은 '성북문화바캉스'를 필두로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있다.

익숙하지만 조금은 낯설게,
하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문화향유의 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성북문화재단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북문화바캉스

성북문화바캉스는 성북구 지역주민 모두가 여름휴가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 물놀이(워터슬라이드, 풀장) 및 공연, 문화예술 체험, 먹거리장터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성북문화바캉스'는 22년부터 다시 개장되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 **입장객 현황: 총16,048명(성인: 8,141명, 어린이: 7,907명)**
- **행사기간: 2022. 7. 29. ~ 8. 7. (10일간)**
  - 행사 운영 8일, 임시휴장(우천) 2일
- **운영참여인력: 총1,060명(10일간)**
  - 일 106명(재단 39명, 외부인력 43명, 자원봉사 24명)
- **공간조성**
  - 워터슬라이드 4개소(초대형 1개, 중형 1개, 소형 2개), 착지풀
  - 어린이 물놀이장 4개소
- **체험프로그램 5개부스: 총5,380명 참여**
  - 나만의 물총 만들기: 830명 참여
  - 신나는 물풍선 놀이: 1,900명 참여
  - 알록달록 부채 만들기: 800명 참여
  - 페이스 페인팅: 1,450명 참여
  - 바캉스 어린이 놀이터: 400명 참여
- **문화공연 총 24회(일 3회): 지역연고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공연**
- **먹거리부스 5개소**
  - 성북 새마을부녀회(4개부스), 꿈의오케스트라성북학부모회(1개부스)
- **홍보실적: 언론보도 47건**
- **안전관리**
  - 물놀이 시설 사전 안전성 검사 실시
    - · 검사일: 2022. 7. 27.
    - · 검사기관: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산업안전-곽두환, 기계장비-정진호)
    - · 검사결과: "적합"
  - 안전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문화재단 문화바캉스TF 및 참여 유관기관
  - 일일 안전점검
    - · 검사책임자 지정(총괄안전, 전기/기계장비, 물놀이 안전) 및 사전점검
    - · 상시점검: 수상안전 및 교통안전
  - 일일방역소독: 코로나19 감염예방
    - · 협조기관: 성북구자율방재단 및 석관동주민센터

코로나 이후 다시 재개한 '성북문화바캉스'는 석계역 옆 우이천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한 야외 행사로 우천(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상황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축제 기간 중 집중호우에 따라 2일간 재정비를 위한 휴장을 진행했다. 또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행사장 철수 및 재설치(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제로화하였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관리로 8일간 약 1만 6천여명의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즐거운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

즐거운 성북문화바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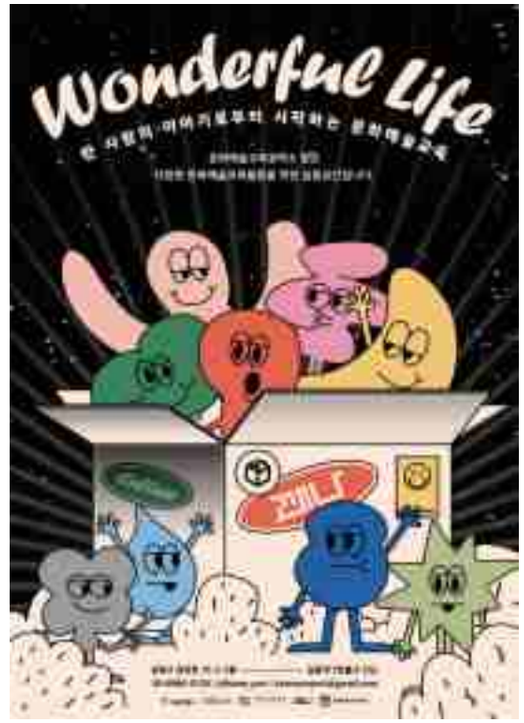
축제
워터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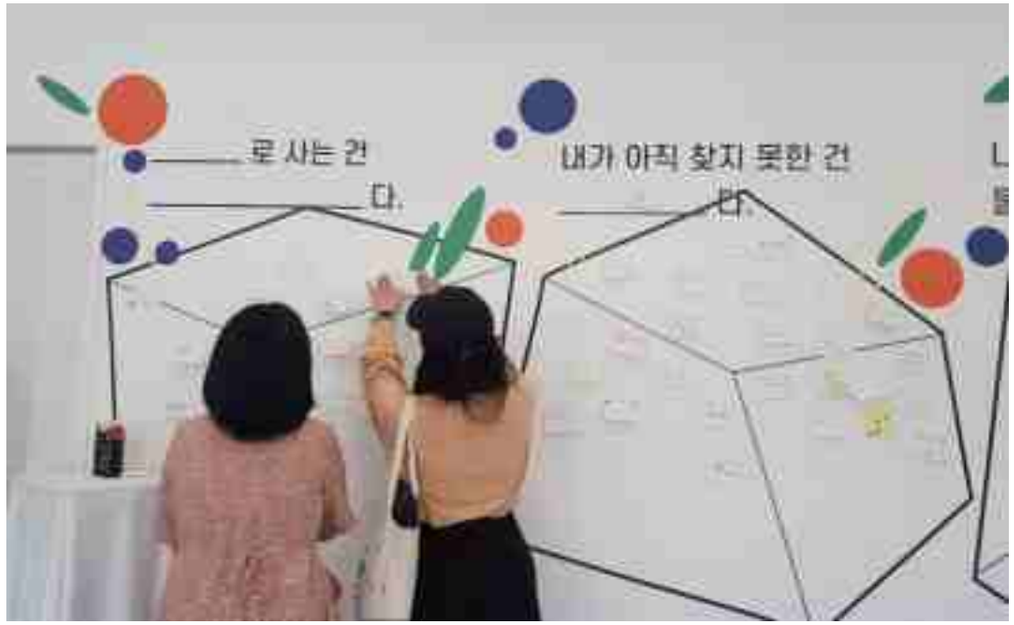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동네예술치유소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실천가를 양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문화예술교육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2021.04.~2022.12) -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삼양로 15-2, 2층)
2. 문화예술교육실천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총 16명(2021년 8명, 2022년 8명)
3. 문화예술교육실천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총 113회(2021년 46회, 2022년 67회)
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 총 85개(2021년 40개, 2022년 52개) / 총 211회(2021년 104회, 2022년 107회) / 참여자수 총 11,632명(2021년 1,027명, 2022년 10,605명)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은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성장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동네에서 서로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실험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지난 2년간 청년예술가 16명을 중심으로 상호성장을 위한 워크숍,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이슈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와 지역 연대를 만들어갔다.





2022.05.05 (목)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스스로 필요한 욕구를 발견하며 함께 계획을 설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활동이다.

1. 성북 문화예술교육 공론장 및 공유포럼 / 총 13회(2021년 7회, 2022년 6회)
2. 성북 문화예술교육LAB / 4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LAB 운영 총56회(2021년 21회, 2022년 35회) / 참여자수 총 3,908명(2021년 2,022명, 2022년 1,886명 누적포함)
3. 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그리기 I <예술로 키움> / 우리동네 키움센터 4개소 프로그램 총32회, 640명 참여 / 기획단 운영 10회, 참여자수 248명(누적)
4. 성북문화예술교육 거점 협의체 운영 19회(2021년 9회, 2022년 10회) / 참여자수 105명(2021년 85명, 2022년 120명)
5. 성북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및 거점 설계 연구 1회

성북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공론장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문화예술교육LAB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성북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해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생태계를 위해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형 공유 플랫폼으로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라는 이름하에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함께 일하기'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 문화예술교육 허브하기

김경옥 _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공간민들레 대표.

왜 우리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려 하는 걸까?
‘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 거점 만들기’라는 긴 이름의 활동을 3년 여 해오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다. 그냥 하면 될 텐데... 자꾸 바쁜데 모이자 하고, 대화하자 하고, 제안하자 하고, 왜 하는지 뭘 위해 하는지 물어보자 하고..... 그랬다. 3년 동안의 활동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다만 모이고 연결하고 대화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함께 검증하고 또 대화하고.....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 번거로우면서도 따뜻한, 모이고 대화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만들어낸 유형무형의 연결망을 ‘허브’라고 부른다. 허브는 플랫폼이거나 거점이거나 중심이거나 주변부기도 하다. 아직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어쩌면 앞으로 3년은 더 가야 온전히 정의 내려지거나 정체성을 가다듬을 허브 이야기는 3년 전에 시작되었다.

첫 해, 모이고 대화하고 마음 모으기

2020년 〈성북문화재단〉 협동조합〈마을온예술〉 그리고 〈공간민들레〉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활동을 함께 시작했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아르떼의 설명이 다소 여전히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문화재단이나 마을온예술 그리고 민들레는 오히려 그 모호함에 맘이 동해 공모에 응했고, 함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들은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분권을 실현...’이라는 말에 꽂혔다. 그것은 당시 성북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해하고 모호해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나 성북의 사람들과 ‘선명하게 만들어 가면’ 되겠지 하고 사업을 해보기로 의기투합한 것이 2019년 가을이었고 2020년 봄부터 본격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지역 분권 실현’은 시대적 화두로, 최근 10여년 사이 문화 뿐 아니라 교육정책 민주주의 정책 경제 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이나 활동이 ‘지역으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어딘가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그 도도한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들 욕구도 이해관계도 존재방식도 라이프스타일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이런 복잡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그 방향성으로 실행해내려면 기존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텀업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분권’과는 또 다른 시대적 화두가 있으니 그것은 ‘글로컬’이다. 시선은 글로벌에 두고 실천이나 실행은 내 발이 닿는 곳 로컬에서 하자는 것이다. 당장 내 발등의 불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도전이나 어려움이 곧 우리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실천은 각자 뿌리내리고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글로컬은 인식이 아닌 현실적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촌의 사람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지만, 결국 삶의 단위로 오면 각자 하루하루 마스크 제대로 쓰고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며 살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글로컬의 원리’를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기도 했다.

‘글로컬’은 문화예술교육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국가단위에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향성과 의제를 설정해 “성북, 강북에서 해봐요” 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동네마다 수요도 욕구도 이해관계도 다르고 복잡해서 마찰도 있고 어긋남도 있어서다. 어긋남, 마찰,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로컬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확보해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은 ‘일상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효능감도 느끼게 된다.

아르떼의 본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거라 짐작된다. 성북문화재단 마을온예술 민들레가 이 사업에 맘을 내게 된 것도 바로 이 시대적 요구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세 기관 모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활동의 엄중함과 고단함도 알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역에서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두를 살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셋은 모여 아르떼가 제안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를 시작했다. 거점 만들기는 만드는 과정도 거점 만들기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20년 한 해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활동을 했다.

한 가지는 성북의 문화예술교육의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망라하는 빅데이터 수집 정리 작업이었다. 이는 현상과 실태를 파악해야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서였다. 또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원탁 토론 활동을 했다. ‘지금 우리에게 거점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같은 질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했다. 교사, 수혜자(성인, 청년, 청소년), 복지, 예술강사 및 교육실천가, 교육전문단체 분들이 원탁 테이블로 초대되었고, 대부분 이른바 ‘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삶의 현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기초단위(동네)

정리 작업이었다. 이는 현상과 실태를 파악해야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서였다. 또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원탁 토론 활동을 했다. '지금 우리에게 거점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같은 질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했다. 교사, 수혜자(성인, 청년, 청소년), 복지, 예술강사 및 교육실천가, 교육전문단체 분들이 원탁 테이블로 초대되었고, 대부분 이른바 '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삶의 현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기초단위(동네)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지 뜻을 모으고,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연대성을 키워가야 한다고. 원탁 대화는 그 자체로 성북의 문화예술교육 공론화와 지역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기획 실행하기를 꿈꿔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모아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이 주축이 되어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 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이어오던 12월 그 다음해를 계획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자, 우리의 속도대로 하자. 성북 그 너머와도 연결되어 하자'라는 다짐을 세우기도 했다. 이때의 다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쟁점으로 훅 들어가기

21년에는 한 걸음 더 들어 가보기로 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중심 또는 동네 거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동네의 과제를 풀어가는 대화와 논의의 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콜로키움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주체라고 자임한 모든 이)들이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 주민 등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숙의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지역의 당면 과제는 물론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의 과제도 의제로 올려, 관리와 행정 중심이 아닌 실천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내용 중심 해법의 실마리를 기초단위에서 찾고 실행해보려 한 것이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당면한 과제를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털어내 보고자 했다. 이는 그저 사업을 위한 대화를 넘어 활동의 진화와 지속가능성을 열어가는 디딤돌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합의한 바였다.
대화의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성북의 학습커뮤니티인 '동네교육'이나 '공유원탁 성북' '마을은 예술' 등 기존의 커뮤니티들과 콜로키움의 취지를 공유하고 의제를 제안 받았다. 제안 받은 의제 중 공공성, 시급성, 혁신성 등을 고려해, '혁신교육에 거버넌스가 부족했던 또는 부족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분권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으로서의 진행 상황은?' '기초거점의 거버넌스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예술교육 실천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은?'으로 압축해 진행했다.

2021년 10월의 콜로키움은 지금도 자주 회자된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재인가'라는 화두로 토론했던 자리였다. 이날은 스코틀랜드의 스타켓처스라는 예술교육 단체의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유아들을 위한 예술교육 기관인 스타켓처스는

지역의 유아기관과 연계해 그곳의 아이들과 2년이라는 긴 시간 지속적으로 만나 활동한다고 했다. 아이들과 하는 직접 활동과 더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활동으로 연구활동을 강조했다. 지역의 정책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 예술교육실천가가 다 같이 모여 '2년 활동의 의미와 아이들이 보이는 변화와 성장'에 대해 진단한다고 했다. 특히 10월의 콜로키움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은 특별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계하고, 그 지표에 따라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연구'라는 사실에 크게 공감했다. 연구라는 활동이 자칫 일부 전문가의 것으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활동하는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의 '활동을 성찰하고 진화시키는 작업'인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 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만들기 작업'이라는 먼 나라 영국의 이야기가 훅 다가왔다. 10월 콜로키움에서 스타켓처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실천가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며, 문제의식과 실천 테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물었다.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은 스스로의 곤궁한 처지를 보따리상으로 불렀다. 3, 4월에야 나오는 사업비로 생활하다 보니 해마다 1월 2월이면 보릿고개를 견뎌야 하고, 아무리 사이좋은 사람이나 팀이어도 공모 사업 앞에서는 등 돌리고 경쟁해야 하고, 연말이면 정산과 실적 중심의 결과 보고로 헛헛해져,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실천가가 많다고.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지속가능성'이 공모사업에서 선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으니, 활동의 가치나 의미 등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문화예술교육 실천가의 곤궁한 상황은 고스란히 예술교육을 향유하는 이들과 공유된다. 모처럼 맘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 관계 맺고 영향을 받으며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심심하던 일상이 리드미컬 해진 이들도 난감해지긴 마찬가지다.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감한 처지에 봉착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시 정리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국가 단위에서도 두루 논의되어 온 걸로 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크고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공모사업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대화와 논의도 이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작정하고 이 문제와 직면했다. '성북'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어서였다. 직면하기는 이렇게 막연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성북 정도의 지역이라면 그래도 근본적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규모도 그렇고 논의의 경험도 그렇고 진심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실천가와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역시민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러므로 콜로키움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의 장인 셈이다.

성북에서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콜로키움 외에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원탁의 대화모임인 라운드테이블, 포럼, 연구모임 등 방식도 이슈도 참가자도 다른 여러 층위의 대화가 이뤄졌다. 당연히 한두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정답이 드러나진 않는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열심히 토론했지만 2022년 12월 현재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성북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대화중이다. 대화와 토론은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만들기' 활동으로 더 잦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다. 문화예술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상관없다 여겼던 이들도 어딘가 접점을 만들어 대화의 장으로 초대되고 연결된다. 다양한 이들이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성북은 그래서 상상하고 도전한다. 씨줄날줄 연결되어 이어지는 대화는 그 자체로 '상상과 도전의 거버넌스'다.

다시 2021년 10월의 콜로키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본다.
"우리의 활동이 공공재라면, 시민사회에게 어떻게 알리고 정책 담당자와는 어떤 합의를 해 낼 것인가?"
"우리에겐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하나? 어디서 어떻게 누가? 서로 얼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안에서 공공재로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활동해보자.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각자도생하지 않아도 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아주 작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보자." 같은 말도 나왔다. 지금도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많다. 하지만 그 숱한 대화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도 했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준'을 찾기 위한 동네연구팀을 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기록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거리로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문제해결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셋째 해, '허브'에서 함께 이어 걷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 활동이 3년째 접어드는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이 연결되고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이런 중에 2022년에는 '실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움직였다. 그동안의 대화와 연결이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졌다.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점을 우리는 '허브'라 불렀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북에는 서로를 잇고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알려내는 중심이자 연결망이자 네트워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실행은 무엇보다 '지역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중앙정부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연구되고 입안되고 그로 인해 지역에서 펼쳐지는 여러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지역에서 궁리되고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표준화된 문제의식이나 실행 로드맵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맞춤형이었다 이것은 '예술로 키움' '손바닥 실험실' '주민센터 연계 생활기반시설 강사 네트워크랩' 등에서 빛난다.

가령 지역성을 염두에 둔 실행의 시작은 이런 식이다.
"성북의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성북의 키움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그 중 하나라도 풀어보면 좋겠다 생각하며 제안 드립니다.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성북의 아이들이 '문화예술'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진단하고 궁리하고 의논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지역 예술가와 교육활동가 그리고 키움센터 선생님, 담당 공무원 또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술로 키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과정을 진단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성찰함으로, 성북에 필요한 예술로 키움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이 기획단 활동을 함께할 키움센터를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는 허브에서 성북에 있는 10개의 키움센터로 보낸 편지 내용이다. 위 편지를 받은 10개의 키움센터 중 4개의 센터에서 답이 왔다. 우리가 허브와 함께 그 작업을 해보겠노라고. 4개의 센터장과 교사 그리고 허브가 모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일지를 같이 궁리하고 실행했다. '예술로 키움'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북에는 겨우 10개의 키움센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그 숫자가 100개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지역성과 개별성 맞춤형은 이렇게 도출된다. 먼저 구체성을 가진 당사자가 모여 우리의 문제의식을 끄집어내고 그 문제의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연결한다. 이 또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면면을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기초단위여서 가능하다. 물론 기초단위에서 연결되어 있어 가능하다. 당연 허브가 있어 가능했다.

12월 초 '예술로 키움'을 정리하는 포럼에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했다. 왜 자꾸 모이라 하고, 왜 자꾸 말하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같은 영역에 있는 이들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더 낯선 눈으로 바라보니 더 많은 것이 잘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키움센터 아이들이 더 잘 보이고, 나의 강점과 약점도 보였다. 결국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라는 아르떼의 3년 사업은 12월로 마무리가 되지만,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내가 해보겠노라 손 들고 그리고 이어 걸었던 그 모든 생각과 원리와 지혜는 2023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사업은 끝났지만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공유가꿈

<공유가꿈>은 성북문화재단의 사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조직 운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안 및 조직운영 환경 등 이슈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 대두되어 추진된 내부 이해관계자 공론장이다.
재단의 각 부(문화사업부·도서관사업부·경영지원부)의 고유 업무 특성이 문화사업·도서관 운영·조직행정에 대한 이슈의 정기적인 공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적인 사업·조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 제1회 <공유가꿈> / 2022.04.14.(목) 14:00 ~ 16:00(참석자: 재단 임·직원 103명)
   - 주요내용: 문화도시 개요 및 주요사업 연계 방안 등
   ·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문화도시기획팀)
   · 도시작동 원리로 문화, 문화로 작동하는 도시를 위하여(협력거버넌스팀)
   · 도서관은 실험실(도서관기획팀)

2. 제2회 <공유가꿈> / 2022.10.26.(수) 11:00 ~ 12:00(참석자: 재단 임·직원 61명)
   - 주요내용: 재단 중장기 운영을 위한 미션·비전 등 재정립 및 경영체계 구축
   · 재단 중장기 운영을 위한 미션·비전 등 재정립 및 경영체계 구축(문화정책팀)

<공유가꿈>은 2022년 최초 추진되어, 한 해 동안 총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익명성을 보장한 오픈채팅 운영으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질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직원이 오픈채팅에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질의를 제시하고, 해당 질의에 대하여 <공유가꿈> 현장 관계자(임원·발표자 등)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소통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유가꿈> 종료 후 해당 회차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기 <공유가꿈> 주제를 선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공론장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가꿈>이 끊임없는 재단 내부의 운영 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2012년 9월에 출범한 성북문화재단은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향후 중장기 운영에 관한 기반 마련을 위한 미션과 비전 등 경영체계를 선포한 10주년 기념식은 외부 강연자를 초빙하여 10주년 기념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을 갖는 시간이었다.

<출범 10주년 기념식>

일시: 2022.10.26.

장소: 장소 : 아리랑시네센터 3관

참여: 재단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

내용: - 재단 중장기 운영을 위한 경영체계 공유
- 외부 강연자 초빙을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연혁 보고
- 미션 선포식 등

내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 뿐만 아니라, 미션 선포식을 통하여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 재단의 운영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직접 확인하고, 향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

지역문화재단의 위기와
성북문화재단의 새로운 사회계약
유상찬

Day For Night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나눔풍성

성북문화재단 후원 '나눔풍성'은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확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지원과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 등 문화예술후원을 통한 지역사회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1년]

1. 2021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운영 지원 / 2021.01.~12. / 어린이, 청소년 단원 77명 / 나눔연주회 <2021 달차오름 페스타>, 제9회 비대면 정기연주회 진행
2. 지역성을 가진 청소년!! 축제로 자라자!! 운영 지원 / 2021.01.~12. / 어린이, 청소년 참가자 213명
3.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운영 / 2021.05.~12. / 누적인원 장애청소년 280명 참가 / <CSI: 환경수사대>, <미디어와 놀기> 수업 진행
4. 베리어프리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운영 지원 / 2021.07.22.(목)~08.01.(일) / 참여자 450명
5. 제13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그래, 함께 살 궁리> 운영 지원 / 2021.11.12.(금)~14(일) / 참여시민 18,000여명
6. '이야기청_성북 프로젝트' 운영 / 2021.08.11.(수)~09.05.(일), 12.13.(월)~18일(토) / 시민 4,659명 참여 /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모르고>, <끝없는 끝말잇기> 전시 진행
7. 시각장애인 전시감상 프로그램 지원 / 2021.05.11.(화)~29(토) / 6회차 / 시각장애인 동반 가족 20명, 7가족 참여

[2022년]

1. 2022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운영 지원 / 2022.01.~12. / 어린이, 청소년 단원 78명 / 제10회 정기연주회 진행
2.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운영 / 2022.04.11.(월)~06.20.(월) / 누적인원 장애청소년 110명 참가 / <우리가 만드는 환경아지트> 수업 진행 /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협업
3. 제2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운영 지원 / 2022.11.10.(목)~15(일) / 1,500여명 관람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단 후원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후원을 하면서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미디어와 놀기>

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제9회 정기연주회(비대면)

2021년 <지역성을 가진청소년!! 축제로 자라자!!>

2021년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CSI: 환경수사대>

제13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그래, 함께 살 궁리>

수상실적

성북문화재단 수상실적

2021년

백상예술대상
-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 백상연극상, 남자연기상 2개 부문 수상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
-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2022년

2022년 우수 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평택국제영화제
- ‘천장산 산신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2022 사서한마당 영상콘텐츠 동상 수상
-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우수사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선정
- 성북구립미술관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발행처	성북문화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전화	02.2038.4901
전자우편	master@sbculture.or.kr
홈페이지	www.sbculture.or.kr

기획	문화정책팀
디자인	백호현
인쇄	라임애드

ISSN 2982-6276